



Seoul National University U.S. Alumni News

www.snuaa.org

서울대미주동창회보

242호 2014년 6월

서울대 미주 동창회

1952 Gallows Rd., #206
Vienna, VA 22182, USA
Tel. 703-462-9083 Fax. 703-462-9083
e-mail: snuaausa12@gmail.com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제23차 전국 평의원 회의 일정

6월 27일(금)부터 29일(일)까지 3박4일간

제23차 전국 평의원 회의가 워싱턴 DC 근교 Tysons Corner, Virginia에서 개최된다. 그동안의 증론에 따라서 제3회 Brain Network Symposium을 같은 시기에 개최하여 전국에서 모이는 평의원들이 참석할 수 있게 하였다. <자세한 일정은 3면 참조>. 아래 사진은 제22차 평의원 회의 광경.



제12대 회장단 제1차년도를 마치며

제12대 회장단이 2013년 7월부터 업무를 시작해 지금까지 12개월이라는 시간이 전광석화처럼 지나간 것 같다. 동창회보 발행사업 외에도 제12대 회장단의 8개 중점사업을 약속하고 회장단 임원들이 열심히 노력해 왔으며 이 자리를 빌어 1차년도 결과를 보고드린다. 위약 8개 중점사업들이 단 시간 내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오는 2차년도를 거쳐 이루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그 후 차기 회장단에서도 계승되기를 기대한다. 다음 2면에 제12대 회장단 1차년도 종합보고서를 참조하기 바란다. 동창회의 매개체인 동창회보 발

행사업을 위해 논설위원회(위원장 이항렬·법대 57), 주필(백순·법대 58), 편집위원회(위원장 장경태·사대 75)의 동창회보 편집에 1~3면에서는 회장단이 회원 여러분과 지역 동창회 회장단에 보내는 업무 보고서와 협조요청 사항들을 다루고 그 이후 면에서는 지역동창회 소식, 동문 동정, 모교소식, 관악세대 소식, 논설, 논문, 수필, 시, 여행기, 회비/후원금 납부자 명단, 동문 업소록, 일반 광고 등으로 편집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이기준 편집주간에 의해 디자인, 편집해서

인쇄돼 태어나고 있다.

지난 1년간 동문의 기고가 많이 늘어나 고무적이긴 하나 더 나아가 많은 동문들의 기고와 토론회의 다변화를 바라고 있다. 우리 동문들의 다양한 전문분야가 골고루 반영되었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표현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란다.

IRS Audit 대비한 미주 동창회 내부감사 기간 연장

미주동창회 감사위원회(위원장 배규영)에서는 지난 1월부터 5월

까지 만일에 있을 IRS Audit을 준비하기 위해 내부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5월 말 현재까지 내부감사에 정성껏 협조해 준 지역 동창회는 20% 정도 뿐으로 앞으로 100% 달성할 때까지 연장 실시하기로 했다. 우리 동문들이 Tax Deduction Privilege를 유지하려면 IRS Audit이 나왔을 때 모든 재정서류와 기록들이 있어야 한다.

Non-profit organization status를 유지하려면 사전(audit 나오기 전) 준비를 해두어야 하는 것이다. 과거 20여년 미주동창회

봉투에 ‘우수 작품상 응모’라고 명시할 것.

▶주의 = 응모 작품은 지금까지 타 언론이나 잡지, 인터넷 매체 등에 발표 또는 게재되지 않은 작품을 원칙으로 함.

원고는 반환하지 않음, 성명(영어와 한글), 졸업 단과대학 및 입학연도, 전화번호, 가능하면 e-mail주소를 명시할 것.

▶마감일 = 2014년 8월 15일.

▶보낼 곳 = 미주 동창회 사무실(1952 Gallows Rd., # 206, Vienna VA. 22182)

▶문의 = 미주 동창회 사무실. 전화 703-462-9083. e-mail: snuaausa12@gmail.com

▶결과 발표 = 가능한 경우 본 동창회보 10월에 심사 결과를 발표함.

서울대 미주 동창회

The Third SNU Brain Network Symposium on June 27, 2014 The Westin Hotel, Tysons, VA

<AM Session (8:30am-12:00pm):
한국의 역사와 전통>

▶일본 식민지 정책의 재검토
(Yumi Moon-Stanford Univ.)

▶미군정:설립, 특성과 한국에
의 공헌(Bonnie Oh-Law 53·
Georgetown Univ. 은퇴)

▶대중문화와 한국어의 변화
(Young-mee Yu Cho·영문75·Rutgers Univ.)

▶국제정치 사이의 남북관계:북
핵문제를 중심으로(Young C.
Kim·정치49·George Washington
Univ.)

<PM Session(1:30 pm-4:30 pm):
생명과학>

▶Prostate Cancer Today: Advances and Challenges(Johng
Sik Rhim-Med.51-USUHS)

▶How to live long and
healthy? (Byoung-Joon

Song·Pharm., 68-NIH)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신농업
기술(Byung Dong Kim·Agr.62·서울대 명예교수)

▶Current Status of Brain Infection(Kwang Sik Kim-Med. 67·
Johns Hopkins Univ.)

김병석(의대 53) 정신과 전문의

NY ‘올해의 자랑스런 의사’ 선정

뉴욕시 보건·병원공사 선정... 5월 1일 시상. “커뮤니티에 좋은 영향 끼치는 의사 되고 싶다”고 소감 피력

정신과 전문의로 뉴욕 코니 아일랜드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김병석(의대 53·사진)박사가 뉴욕시 보건·병원 공사가 선정하는 ‘올해의 자랑스런 의사’에 선정됐다.

11개 대형 시립병원을 운영하는 보건·병원 공사는 매년 ‘의사의 날’을 기념해 뉴욕에서 자랑스런 의사를 한 사람씩 선정해 표

창하고 있는데 올해 김병석 박사가 영예를 차지한 것이다.

김 박사는 지난 40여 년간 코니 아일랜드 병원에서 일하며 의학 분야의 탁월한 지식과 리더십 등을 인정받아 이 상을 받게 됐다. 특히 꾸준히 이민자들의 정신건강을 지키고 어려움 없이 미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도운 공로를 인정받았다.

6.25 한국전쟁 때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프로이트의 심리학 등을 읽으며 인간의 마음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다는 김



박사는 “나도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적응하느라 힘들었던 경험을 살려 이민자들이 열등의식 없이 잘 살 수 있도록 돕는데 주력했다”며 “앞으로 커뮤니티에 더욱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로 남고 싶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모교 의대 졸업 후 1964년 도미 로체스터 제너럴 병원에서 인턴을 시작했다. NYU 벨뷰 메디컬 센터 정신과 수련의를 마친 뒤 코니아일랜드 병원에서 40여 년간 정신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다. 플러싱에 정신과 개인 진료실도 운영해오며 한인들의 정신건강을 지켜왔다. 그동안 뉴욕 한인회 선정 ‘자랑스런 한국인 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국악협회 미동부지회 창립자다.

그는 ‘미국생활의 정신건강’ ‘The Road to American Dreams’ ‘울고 싶다 죽고 싶다 그래도 살고 싶다’ ‘최면으로 창조하는 삶’ ‘호스피스와 정신건강’ 등 다양한 저서를 펴냈다. ***

NON-PROFIT
US POSTAGE PAID
DULLES, VA
PERMIT NO. 645

제12대 회장단(2013.7 ~ 2015.6) 중점 사업과 1년간 진척상황				
사업 계획	1)미주 동창회의 좀 더 능률적인 운영 방식을 채택하고 운영의 내실화와 흑자 재정을 실현. 각 회장단이 장기적으로 조금씩 저축하여 모으면 새 회장단이 전국 평의원 회의를 개최하고 2개월 운영할 수 있는 Initial Operating Cost를 마련.	2)지역 동창회간의 획적인 Networking 을 장려하여 서로간에 장단점을 상의 하고 장점들을 선택, 장려하여 지역 동창회 운영에 대해 상향 표준화 실시. ‘지역 회장단 회의’를 개최 - 경험과 교훈을 교환하는 기회를 마련. 미주 동창회의 모든 서류를 한글/영어 로 병기. IRS Audit에 준하는 자체감사	3)미주 총동창회는 물론 각 지역 동창 회들이 각기 거주하는 지역사회(한인 사회 및 미국 주류사회)에 참여하고 봉사하면서 접촉시키도록 함.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미국사회에 서 울대학교를 알리는 기회로 만들. 서울음대 학생들의 미주 순회공연을 주선했 보겠음.	4)미주 총동창회장으로는 역사상 제일 젊은 기수(63학번)로서 미주 동창회를 좀 더 젊게 하기 위하여 Bridge 역할. 70~00 학년대 동문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하고 전국 평의원 회의와 동시에 ‘관악연대 혹은 Acropolis Conven-tion’ 개최.
진척 상황	연간 재정 자립을 위하여 회비 30% 모 금 캠페인을 벌이고 있음. 2014년을 대도약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30만불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음. 2014년 5월 31일 현재 1차년도 회비로 1084명이 \$81,245, 관악 후원회비는 113 명이 \$27,245, 기타 후원금(Brain Net-work, 대도약 등)으로 75명이 \$49,591 을 후원. 또한 동문들 명의로 모교 도서관 증축과 수학과 책값 기증으로 \$29,000을 기증해 모교로 송금.	제22차 평의원 회의 때 처음으로 ‘지 역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상호 교 류를 하기로 했음. 동창회보에 지역 동창회 활동보고를 게재하여 좋은 경험을 공유하도록 노 력하고 있음. 회원 주소록 표준 Spreadsheet Tem-plate 을 만들고 전문인력 자료를 포함 시켜서 시험 중에 있음(현재 600명 정 도 접수) 감사위원회(위원장 배규영)를 구성하 고 2014년 1~5월까지 Internal Audit을 실시 하고 있음(현재 미완성 상태-계속	지역 동창회에서 지역사회(한인사회 및 미국 주류사회)에 참여하고 봉사하 는 뉴스를 동창회보에 싣고 있음. 미 주류사회 담당 부회장 임명(공순옥 ·간호 66), 한인사회 담당 부회장 임명 (권기현·사대 53). Partnership 체결 : The Korea Society 와 교류 협력 Partnership체결. JG Business Link, International과 Bio산 업 conference와 정보 교환 partnership 체결. 서울음대 학생 미주 순회공연을 위한 후원단체를 찾지 못하였음.	관악세대 담당 부회장 임명(이원영·인 문대 81, 사임하여 후임자 물색중). 제23차 전국 평의원 회의에서는 별도 시간 을 할애하여 Acropolis conference 를 열어 젊은 동문들의 동창회를 위한 토론과 panel discussion을 계획중임. 많은 경우 여러 지역 동창회에서 관악 세대 동문들이 회장·부회장 등 임원으 로 일하고 있어서 매우 고무적임. online시대를 맞이하여 homepage활성 화를 위해 IT위원회 설치(위원장 차재 옥 차기 미주 동창회장)하고 User friendly homepage개발중.
사업 계획	5) 미주 총동창회는 물론 각 지역 동창회들이 각기 거주 지역의 Harvard 대학 등 미국 명문대학 동창회들과 친 선교류 장려. Harvard 대학 등 명문 대학 동창회와 교류하여 선의의 경쟁. Internship, mentoring, employment 알 선 사업 등을 배우고 동시에 그들에게 서울대학교를 알리는 기회.	6) 미국 대학, 연구소, 정부기관, 혹 은 대기업체에 근무하는 동문들과 전 공 분야가 같은 모교 재학생을 위한 Mentor-Mentee Program 장려. 미주 동문들에게 홍보하여 소장한 전 문 분야 학술지를 서울대 도서관에 기증하는 방법도 모색.	7) Brain Network 사업을 계승하고 강 화 하여 미주 서울대 총동창회의 최대 자산 (the greatest Asset)인 동문들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조직적으로 결집 하여 모교와 교류하면서 SNU 와 SNUAA-USA의 위상을 올릴 수 있는 기회. 뜻있는 동문들과 독지가 동문들의 도 움을 얻어서 기증 동문의 이름을 따 ‘홍길동 Lecture Series’ 같은 것을 구상.	8) 미주 총동창회가 지역 동창회는 물 론, 재미 서울대 재단, 모교, LA 사무 소, 그리고 서울의 총동창회 등과 연계 하여 Synergy(상승) 효과를 창출하는데 Brookings Institution, Rand Corpora-tion 같은 정책연구소를 미국 Boston 혹은 DC에 설치하고 권위있는 학술지를 발행하는 것을 건의. 서울대를 세계 대학으로 도약시킬 수 있는 기회.
진척 상황	Utah 동창회는 서울대 동문의 Harvard 출신 아들이 다리 역할을 자원하여 교 류를 시작하였음. 서울대 동창회와 미국 대학 동창회의 관심분야, 운영방법, 문화 등의 다른 점을 감안하여 교류 항목과 방법을 연 구하고 있음. 미주 동창회 Harvard 대학 동창회는 서울대와 같이 전국적인 조직체계가 아 니고 지역 동창회 별로 독립운영.	모교 재학생을 위한 Mentor-Mentee Program을 만들어 현재 5명의 mentor volunteer가 sign up 했으며 현재 2명의 재학생이 mentor와 연락을 취하고 있 음. 모교의 국제협력분부와 긴밀하게 연 락을 취하여 재학생들에게 도움이 되 게 노력하고 있음. 미주 동문들에게 홍보하여 소장한 전 문 분야 학술지를 서울대 도서관에 기증하고 있음.	Brain Network Symposium 담당 부회장 을 임명(이채진·정치 55)하고 제23차 평의원 회의 첫날 행사로 6월 27일(금) 제3회 Brain Network Symposium을 개최 함. 한국의 전통과 문화, 생명 과학 분야 에서 8명의 동문 연사가 초청되었음. 하용출 부회장 대리의 진행. Brain Network Database 구축을 위하여 전문 분야 회원 자료를 수집하고 있음(현재 600명 정도 접수).	연례 Brain Network Symposium을 발진 시켜서 Think Tank를 구상하는 방법을 추구할 수 있음. 모교, 서울의 총동창회, 그리고 미주 동창회가 합심하여 국립 서울대학으로 서의 역할을 정책연구소 같은 분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믿음.



미주 동창회 임원회의

제23차 평의원 회의 준비

미주 동창회 월례 임원회의가 지난 5월 18일 버지니아 비엔나 소재 미주 동창회 사무실에서 열렸다.

이날 특히 필라델피아에서 손재옥(가정대 77) 차기 미주 동창회장이 참석해 회의를 함께 했다.

월례 임원회의의 주요 안건은

←미주 동창회 월례 임원회의에서 토의 중인 임원진. 왼쪽부터 이우진 섭외국장, 김정식 사업국장, 한정민 총무국장, 오인환 회장, 손재옥 차기 회장, 정평희 사무총장.

6월 27일부터의 제23차 미주 평의원 회의 준비를 위한 안건으로 다루어졌다.

평의원 회의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는 평의원회, 관악후원회, 지역 동창회 또는 지부 등에 대한 용어 정립, 미주 재단 등과 협력관계, 지역 동창회의 평의원 배정 조정, 회원 자격요건 확립 등이다.

이밖에 평의원 회의 본 행사를 위한 장소와 시설 및 서비스 분야 확인, 임원의 역할 분담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차 례	배 리	14-19.미주 지역 동창회 소식	<동문 시 감상>추억
3.<주필칼럼>북한인권의 참된 모습/ 제23차 전국 평의원회의 일정/ 게시판/ <시 영역 감상>봄 편지	밸리의 IT벤처 신화/ <칼럼>한 대학원생의 죽음/ 나도 서울대 가고 싶어요	20-22.<관악세대>노아가 아라랏산으로 간 까닭/ 가수 최현과 식도암/ 아르헨티나에서 만난 맨발/ 가라앉는 것이 어찌 세월호 뿐일까/ 조국이 다시 일어나길 바라는 고연/ 챌린저호와 세월호 참사/ 유성호접 감/ 그 여름 피서지에선 무슨 일	26-27. 동창회비, 관악후원금 등 후원금
4-5.<모교소식>학부생 등록금 56% 장학금으로 돌려받는다/ 서울대만 15년 털어온 망치 마침내 잡혔다/ 모교 갈수록 콩나물 강 의실/ 도서관 신축 리모델링 캠페인/ 약 대 2014 하계 연구인턴 프로그램/ 실리곤	6-7.<6.25한국전쟁 64돌> 잊을 수 없는 그 여름	23.<My Journey to...>아메리칸 드림 50년<1>	28.동문 업소록
	8-9.<언어문화 칼럼>한국말, 미국말/ 영어 리, 영어 아닌 영어들/ Trauma<역사칼럼> 칠지도의 비밀	24.<여행기>내가 본 불교의 왕국들<2>	29.동문업소록/ 시간안내
	10.<인류학 칼럼>함께 살아남는 길/ <논설 위원 논문>Brain Network Workshop	25.<생활 수필>고국 북설악 2011년 6월/	30.각 지역 동창회 회장단/ 편집후기
	11-13. 미주 동문 동정		31-32. 광고

*본 회보에 게재된 모든 기고문은 회보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회보에 게재된 모든 것은 본 회보가 Copy Right를 갖습니다.

북한 인권의 참된 모습



백 순(법대 58)
미연방노동 선임경제학자
워싱턴 한미포럼 위원
미주 동창회보 주필

얼마 전 국제한국학회(International Council on Korean Study)와 한국경제연구소(Korean Economy Institute), 그리고 북한인권위원회(Human Right of North Korea Committee)의 공동주관으로 북한인권에 대한 학술대회가 워싱턴 DC.에서 열렸다.

북한인권 문제는 심각성이 도를 지나치고 있음은 온 세계가 주지하는 바와 같다. 금년 3월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권담문위원회(CIO,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13)’가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는 북한인권의 위반이 체계적이며, 광범위하며, 중대하다고 지적하면서, “나치형태의 극악(Nazi-Style Atrocities)”이라고 천명하였다.

북한인권 학술포럼에서 발표된 3편의 논문은 단순히 북한인권의 극악한 실상을 드러내는 논지를 넘어 북한인권을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 참된 모습을 표출하고 그에 대한 바른 해결책도 끄집어 낼 수 있는가의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북한인권에 대한 3가지 관망접근(3-Perspective Approaches)은 1.철학적·사상적 관망 2. 경제적 관망 3. 국제관계적 관망 등이다.

첫째 북한인권에 대한 철학적·사상적 관망은 북한이 인권을 어떻게 정의하고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북한의 근본적인 자세에서부터 따져보는 접근이다.

Robert Collins(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는 북한은 인권을 개인적 인권권리(Individual Human Rights)자체에서 보지 않고, 국가체제의 주권이나 집단 권리(National Sovereignty, Collective Rights)의 측면에서 취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체제, 노동당, 군대, 인민전체 등 공동체의 권리, 나아가 그 공동체를 대표하는 최고 지도자의 권리가 개인의 권리보다 앞서야 하고, 나아가 공동체의 권리가 신장될 때 개인의 권리도 보장된다고 제창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집단적 권리를 최대화하기 위해 사회주의, 주체 등 이념과 사상을 중대시하고 그러한 사상과 이념을 추진하기 위해 실행기구를 노동당, 국가기관, 군대, 지역단위 등의 조직을 통해 확립하고 있으며 강력하게 수행하고 있다. 사상과 이념을 실행하기 위한 노동당 당원만도 무려 340만에 이르고 있음은 실

행기관의 철저함과 방대함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북한인권에 대한 경제적 관망은 북한경제력이 주로 어디에 활용되고 있는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찾기에서 시작한다.

Bruce Bechtol(Angelo State University)은 현 북한경제력(GDP)의 40% 정도가 무기 수출, 마약 거래, 불법화폐 제조 등 군사적·불법적 경제증식(Proliferation)에 의해 확보된다고 주장하면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군사적·불법적 경제증식이 주로 군사력 증강과 소위 엘리트 확보(북한 엘리트 수는 5만 정도)에 사용된다는 사실이다. 북한인민에게는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북한인권의 경제적 관망을 뚜렷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셋째,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관계적 관망은 중국이 동북아시아의 국제관계에 있어서 북한을 얼마나 중요시하고 있느냐 하는 관점에서 살펴보자는 관망이다.

Roberta Cohen(The Brookings Institute)은 중국으로 쏟아지는 탈북자에 대한 중국 입장을 설명하면서, 탈북자 강제복송은 중국 국가안보와 사회질서 유지, 국경선 통제를 위해 불가피하며 동시에 중요한 정책이라고 중국은 언제나 제창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이 북한인권문제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를 천명해 주고 있는 논지다.

북한인권의 참혹한 실상을 사례를 들어 국제사회에 폭로하는 것도 필요하고, 최근 유엔 안보리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북한인권의 문제를 국제제판소에 제소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비록 시간이 요청된다 할지라도 북한인권의 참된 모습을 북한인권을 바라보는 관망이라는 측면에서 파헤치는 것이 중차대함을 간파할 수 없는 것이다.

인권을 개인적 권리가 아니라 체제나 집단 권리로 이념화하는 북한인권에 대한 철학적 및 사상적 관망은 북한인민에게 인권의 참된 철학이나 사상을 주지시키는 것이 북한인권 해결의 올바른 지름길임을 알려 준다.

GDP의 40%에 이르는 군사적 및 불법적 경제증식을 인민이 아니고 국가력 증강과 엘리트 보강에 사용되고 있다는 북한인권에 대한 경제적 관망은 군사적 및 불법적 경제증식을 국제사회가 어떠한 방법이라 할지라도 강력하게 단절시키는 것이 북한인권문제 해결을 돕는 길인 것이다.

그리고 국가안보라는 입장에서 탈북자 강제복송을 정당화하고 있는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관계적(중국의) 관망은 중국으로 하여금 탈북자 문제를 포함한 북한에 대한 정책과 입장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함을 증명하고 있다. 중국 입장의 변화를 결과하는 데는 국제사회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중국내 시민사회가 북한인권에 대한 올바른 정책을 주도해 나아가길 수 있도록 깨우쳐 주고 인식시키는 것이 요청된다.***

미주 서울대 총동창회 제23차 전국 평의원 회의 일정				
The Westin Hotel, Tysons Corner, VA 22043 (Red Color는 비평의원, 가족, 워싱턴 동문도 참가)				
Time	Thursday June 26	Friday June 27	Saturday June 28	Sunday June 29
07:00~08:00	Arrival and Registration	Breakfast	Breakfast, Registration	Breakfast
08:30~09:00		Brain Network Symposium AM Session (Korean Studies)	평의원 회의	Departure & Free Time
09:00~10:00				
10:00~11:00				
11:00~12:00				Move by Bus to GC
12:00~01:00	Lunch	Lunch	Lunch and Photo Session	Lunch and Photo
01:30~02:00	Arrival and Registration	Brain Network Symposium PM Session (Life Science)	평의원 회의 (Acropolis세대 Conference)	Golf Game (PB Dye GC) 워싱턴 동문도 환영 (1인당 \$100) 10:30 접수
02:00~03:00				
03:00~04:00			Registration & Social Mix	
04:00~05:00				
05:00~06:00				
06:00~07:00	Dinner	평의원 회의 전야제 (워싱턴 동문도 환영, 1인당 \$60) The Westin Hotel 7801 Leesburg Pike. Falls Church, VA 22043	Main Banquet(모교총장 축 사동영상;Keynote Speaker) 워싱턴 동문도 환영(1인당 \$100) The Westin Hotel 7801 Leesburg Pike. Falls Church, VA 22043	Dinner and Winners Presentation
07:00~08:00				
08:00~09:00				Move to Hotel by Bus
09:00~10:00				
10:00~11:00		Chapter Presidents Meeting		
문의: 한정민 총무국장(703-618-4180, snuausa12@gmail.com) 정평희 사무총장(301-661-9227) 개최호텔 예약(6월 20일까지) = The Westin Tysons Corner Hotel (7801 Leesburg Pike, Falls Church, VA 22043. Tel. 888-627-8970 or 703-893-1340. www.westintysonscornerhotel.com				

게시판

▶뉴잉글랜드 동창회(회장 장수인 음대 76) = 정기 총회가 6월 7일(토) 12시부터 Acton Clubhouse(111 Davis Road, Acton, MA 01720)에서 열린다. (등록은 12시 이전). 총회에서는 이번 회기 사업 보고와 차기 회장 인준이 있고, 동문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 한인들이 지원한 장학생 선발 결과 발표와 함께 장학금 수여식도 거행된다.

또한 그 동안 동창회를 위해 기여한 동문들을 위해 준비한 감사장 수여식도 함께 거행될 예정이다.

정이다. 식사 후, 고종성 박사의 흥미진진한 ‘그것이 알고 싶다: 제2탄’ 강연을 들을 예정이다.

야유회로 분위기를 전환하여 잔디밭에서 동문 가족을 포함한 여러 세대가 다함께 즐길 수 있는 유쾌한 게임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다양한 상품과 경품이 준비되어 있다.

참가비는 1인당 30달러(학생 및 포닥 10달러)이며, 참가 신청 및 카폴 신청, 문의, 그리고 장소 확인 등은 동창회 홈페이지(sites.google.com/site/snuane)에서 할 수 있다.

▶시카고 동창회(회장 김호범·상대69) = 동창회 야유회를 6월

21일 12시부터 Busse Forest Preserve Grove #4, Elk Grove Village에서 실시한다. 지난 해와 다른 새로운 장소로 Higgins Road에 입구가 있다.

이 동창회 야유회는 모든 음식과 음료수를 동창회에서 제공하는 행사로 시카고 지역 동문과 가족, 친구들은 물론 동문 유학생 가족들과 타주에서 오시는 동문들, 한국에서 방문 중인 동문들도 모두 환영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 동창회 웹사이트(www.snu-aachicago.org)를 참조하기 바란다. 연락처 김호범 회장 (312-497-3007)***

명시의 동문 영역 감상



供亮 김기형(상대 75)CA
남가주 동창회 전 재무국장

봄편지

이해인

하얀 민들레 꽃씨 속에
바람으로 숨어서 오렴
이름 없는 풀밭에서
잔기침하는 들꽃으로 오렴
눈 덮인 강 밑을
흐르는 물로 오렴

부리 고운 연둣빛
산새의 노래와 함께 오렴
해마다 내 가슴에

보이지 않게 살아오는 봄
진달래 꽃망울처럼

아프게 부어오른 그리움
말없이 터뜨리며
나에게 오렴

Springy Letter

by 供亮

Hiding In the white dandelion
seeds
Blowing the wind, can you come?
In the unnamed field
Like a coughing wildflower, can
you come?
Under the snowy river
Flowing into the water,
Can you come?

이해인은

▶1945년 출생 ▶부산 성 베네딕도 수녀회 입회 ▶1970년 ‘소년’에 시 ‘하늘, 아침’으로 등단. ▶시집으로 ‘민들레의 영토’ ‘사계절의 기도’ ‘여행길에서’ ‘고운 새는 어디에 숨었을까’ ‘꽃은 흩어지고 그리움은 모이고’ 등 ▶2007년 천상병 시문학상 수상 ▶부산 가톨릭대 겸임교수. ***



모교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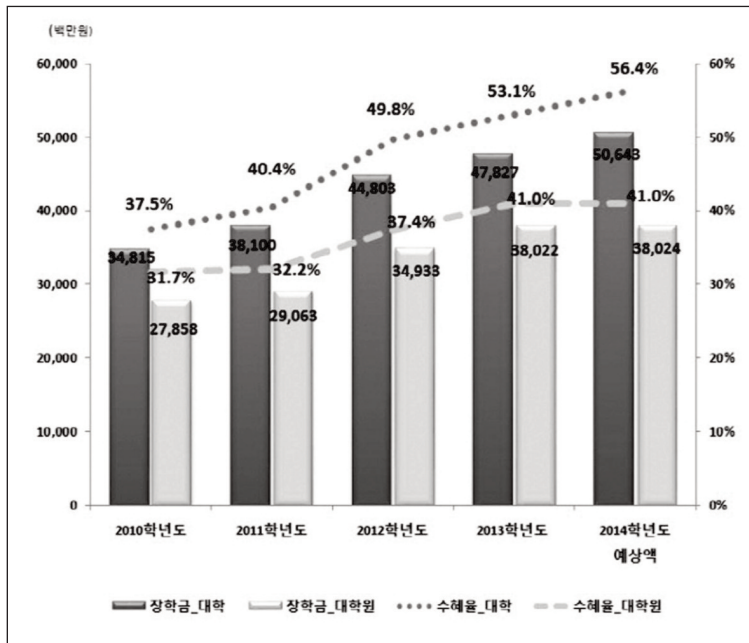
학부생 등록금의 56% “장학금으로 돌려받는다”

모교 서울대학교가 최근들어 맞춤형 수요기반 장학제도를 더욱 강화했다.

‘SNU 희망장학금’ 등 장학 재원

이 지속적으로 확충되면서 더 많은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학부생 장학금 수혜율(등록금



모교 갈수록 콩나물 강의실

대형강의실 3년새 최다... 20명 이하 소규모 강의 비중은 40% 아래로 주저앉아

(서울=연합뉴스) = 서울대학교에서 학생 수 100명을 초과하는 대형 강의 수가 이번 학기에 100개를 넘어섰다.

반면에 20명 이하의 소규모 강의 수는 전 학기보다 200개 이상 줄어 ‘콩나물 강의실’ 문제가 오히려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대와 대학정보 공시사이트인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올해 1학기 서울대가 개설한 강의 중 수강생이 100명을 넘긴 강의는 123개로 집계됐다. 수강생이 101~200명인 강의는 110개며 200명을 넘긴 강의도 13개나 됐다.

서울대에서 100명 초과 대형 강의는 2012년 1학기 94개, 2학기 76개, 작년 1학기 98개, 2학기 78개였는데 올해 100개를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특히 201명 이상 초대형 강의는 2012년 1·2학기 각 10개에서 작년 1학기 8개, 2학기 5개 등으로 점점 줄었지만 이번 학기에 13개로 세배 가까이 많아졌다.

반면에 20명 이하의 소규모 강의는 올해 1학기 1천212개로 지난 학기에 비해 200개 이상 줄었다. 소규모 강의는 2012년 1학기에는 1천361개, 2학기는 1천419개, 2013년 1학기는 1천375개, 2학기는 1천413개였다.

전체 강의에서 20명 이하 강의가 차지하는 비중도 이번 학기 38.3%로 최근 3년 이내 처음으로 40% 아래로 내려앉았다.

소규모 강의가 대폭 줄어든 반면 대형 강의는 늘어난 탓에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형 강의는 교수가 학생들을 일일이 관리할 수 없어 일방적인 수업이 되는데다 학생들도 콩나물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다 보면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서울대 교수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소규모 강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인력, 예산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학생들을 1대 1로 가르칠 수 있는 질 높은 강의를 늘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대비)은 지난 2010년 37.5%였으나 그동안 꾸준히 증가해 2013년 53.1%, 2014년 56.4%(예정)로 등록금의 60%에 가까운 금액을 장학금으로 돌려 받는 셈이다. <도표 참조>

대학원생 장학금 수혜율(등록금 대비)은 2010년 31.7%였으나, 꾸준히 증가해 올해 41.0%가 예상되어 40%대를 처음으로 넘어 설 전망이다.

장학금 총액도 늘었다. 지난 2010년 학부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총 348억 1천500만원이었으나, 올해인 2014년에는 총 506억 4천 3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대학원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지난 2010년 278억 5천 800만원이었으나, 2014년 380억 2천 400만 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같은 액수는 2012학년도 약 283억원, 2013학년도 133억원에 해당하는 BK 연구장학금을 제외하고 집계한 것이다. 이는 4년 전과 비교해 각각 158억 2천 800만 원, 101억 6천 600만 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서울대학교는 앞으로도 장학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장학제도를 정비해 어려운 환경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세심히 살필 계획을 세우고 있다. ***

<모교 홍보팀>

모교 도서관 신축 리모델링 기금모금 캠페인

“서울대 도서관의 친구들”

모교 서울대 도서관이 40년 이상된 노후 건물인 데다가 재학생 이용 수와 소장 장서의 포화상태로 현재 한계상태에 부닥쳐 있다. 그래서 도서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으로 네이밍(Naming) 캠페인과 리모델링 모금 캠페인을 다음과 같이 벌이고 있다.

▶Naming 모금 캠페인 = 재학생 등 후배들이 사용할 책상, 의자, 서가에 기부해준 선배들의 이름을 넣어 후진들이 영원히 기억하도록 해놓는다. <도표 참조>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모금 캠페인= 도서관은 학생들이 하루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다. 그러나 현재의 중앙도서관이 관정 도서관과 함께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낡은 시설의 리모델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난 해 5월 이같은 사정을 전해들은 조천식 동문이 ‘중앙도서관 시설환경 개선기금’으로 50억원을 후원한 외에도 300여 명의 동문들이 9억원 넘게 기부했

서울대만 15년 넘게 털어 온 ‘망치’ “마침내 잡혔다!”

무려 15년 동안이나 서울대 안에서 상습 절도 행각을 벌이던 일명 ‘서울대 망치’가 마침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 경찰서는 그동안 심야시간에 서울대 건물에 들어가 물건을 훔쳐 온 이모(42·무직)씨를 강도 상해,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지난 4월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 12일 새벽인 오전 2시쯤 서울대 음대 행정실 유리창을 망치로 깨고 침입했다.

이 때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 공부하고 있던 음대생 A(22)씨에게 발각되자 이씨는 손에 들고 있던 망치로 A씨의 머리를 때리고 도망쳤다.

이 바람에 A씨는 병원에서 10여 바늘을 꿰매는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 3개월을 추적한 끝에 지난 4월 16일 오전 서울대 교정 벤치에 앉아 있던 이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이씨는 같은 방법으로 2013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21회에 걸쳐 서울대 연구실, 사무실, 주차된 차량 등을 망치로 깨고 현금 211만원과 식권 95장(30여만원 상당)을 훔쳤다. 이씨는 이미 2000년 서울대에서 저지른 네 차례 절도 혐의로 실형을 받았고 이 때문에 1년 6개월간 징역형을 마치고 난 후에도 다시 범죄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서울대가 심야시간 경비가 허술한 틈을 노려 범행을 계획했고, 훔친 식권으로 교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교내 지리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서울대 학생들에게 이 정도는 아무런 피해도 아니지 않느냐”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4월 18일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서울대와 서울대 학생들에게 막대한 적개심을 갖고 동일한 범죄를 계속 저지른 전력으로 미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

<한국일보>

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기 바라고 있다.

▶캠페인 기간= 지난해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모금 목표액= 3년간 총 1천억원의 모금 운동을 벌인다.

이 캠페인의 자세한 내용은 <http://friends.snu.ac.kr>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도서관 홍보팀>

서울대학교 관정도서관 가구·공간 Naming 모금 종류			
종류	내역	모금액	선택□
열람석	열람석 의자	100만원(\$1,000)	☐
	4인 테이블	300만원(\$3,000)	☐
	8인 테이블	500만원(\$5,000)	☐
서가		500만원(\$5,000)	☐
멀티미디어실	멀티미디어세트	500만원(5,000)	☐
개인캐럴	개인실	1천만원(\$10,000)	☐
	4~6인실	3천만원(\$30,000)	☐
그룹스터디룸	8~10인실	5천만원(\$50,000)	☐
	30석 규모	2억원(\$200,000)	☐
세미나실	60석 규모	3억원(\$300,000)	☐
	100석 규모	10억원(\$1,000,000)	☐
컨퍼런스룸		10억원(\$1,000,000)	☐
패컬티 라운지		10억원(\$1,000,000)	☐

약대 2014 하계연구인턴 프로그램

모교 약대가 대학원 진학에 관심있는 학부생들에게 모교 약학대학 소속 연구실에서 연구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원 실험실 생활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대학원 전공 및 진학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하계연구인턴 프로그램을 매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다.

▶모집대상 = 4년제 대학(외국 대학 포함) 약학 관련학과 4학년 재학생 및 졸업생

▶모집인원 = 40명 내외(1명/연

구실 원칙)

▶기간 = 7월 첫째 일요일부터 4주(하루 8시간, 주 5일)

▶장소 = 서울대 약대 연구실

▶특전 = 장학금 30만원

▶제출서류 = 지원서 1부 서울대 약학대학 홈페이지 자료센터 서식자료실. 성적증명서 1부

▶제출방법 = e-mail 접수 (snupharm@snu.ac.kr)

▶지원방법 = 약학대학 교수 연구 분 야

[http://www.snupharm.ac.kr/ko-](http://www.snupharm.ac.kr/ko-rean/professor.pdf)

[rean/professor.pdf](http://www.snupharm.ac.kr/ko-rean/professor.pdf))

▶참고 = 지원 전후 개별 교수와 면담 및 지원 조정 가능

▶선정발표 = 6월 16일 약대 홈페이지에 공지

▶참가 의무 = 환경안전교육 이수, 4주간 성실한 연구 참여, 연구결과보고서 제출

▶기타문의 =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홈페이지 : <http://www.snupharm.ac.kr/ko-rean/>
e-mail = snupharm@snu.ac.kr
Tel. = (02)-880-7863 (담당자 김연옥) ***

<약대 홍보팀>



미 현지 화제의 동문에 대한 재학생들 인터뷰

실리콘 벨리의 IT벤처 신화

지난 2월 모교에서는 학교와 POSCO지원을 받아 총 6명의 재학생들이 '대기업의 신사업 성공 전략'에 대한 연구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한 바 있다(동창회보 2월호 참조). 이들은 뉴욕·보스턴·샌프란시스코·LA 등 4개 도시를 돌며 관련 프로젝트 연구를 위한 탐방을 실시했다. 그 가운데 현재 실리콘 벨리에서 벤처기업을 창업해 성공적으로 운영중인 김종수(공대 74) 동문을 만나 인터뷰했다.

애플·구글·페이스북·트위터 등 2010년을 달군 수많은 IT 벤처 신화가 잉태된 실리콘벨리. 얼마 전에는 50여 명 남짓한 직원을 두고 있는 모바일 메시지 기업 왓츠앱이 페이스북에 190억 달러에 매각되면서 세계의 이목이 다시 실리콘 벨리로 향하고 있다. 재학생 6명이 지난 2월 실리콘 벨리를 방문, 조용한 도시 속의 IT 기술 혁신을 체험하며 그곳에서 'Pinpresort'라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종수(공대 섬유공학 74) 동문을 만나보았다.

- 오상록(경영학과 09) = 현재 선배께서 실리콘벨리에서 하시는 사업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인 'pinpresort'는 MOCR(Multi Line Optical Character Recognition)라는 기술을 이용해 고객 우편물에 바코드를 부여하고 우편물을 지역별로 분류해 USPS(미연방 우체국)에 배달함으로써 발송비용은 줄이고 더

욱 신속 정확하게 배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핵심 기술인 MOCR은 우편물에 기재돼 있는 주소를 0.3초 내 인식하고 그 주소에 해당하는 우편배송 바코드를 초고속 프린트로 인쇄해 우편물에 부착시키는 기술입니다. 주소가 바뀌었을 경우도 변경된 주소를 자동 프린트해 정확한 배달을 하는 것입니다. 미연방 우체국 예산의 30%가 주소 오류로 인한 발송착오로 낭비되고 있는데, 이 기술을 통해 효율적으로 주소 오류를 수정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사업은 우편이라는 전통 서비스와 IT라는 최신 기술의 결합의 산물입니다. 저는 고객 데이터를 다양한 프리젠테이션으로 전환 출력한 후 자동으로 우편물을 생성, 당일 바로 발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고객 기업들은 우편비용을 절감하고 효과적 기업홍보를 할 수 있으며 연방 우체국에서는 정확한 우편물 분류를 통한 인건비를 줄이며 저희 회사는 수익을 창출하는 이른바 'Win-Win-Win'의 가치창조를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 양강민(경영학과 09) = 미국에서 한국인이 창업하는 데 대해 말리는 사람들이 없었나요. 선배께서 사업을 시작하던 당시의 비전과 확신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말렸어도 저는 제 비즈니스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미국 유학을 와 MBA 프로그램을 통해 공부하고 보고 느끼면서 여러 사

←실리콘벨리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종수 동문(가운데)과 '비즈니스 프론티어'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한 모교 재학생들이 인터뷰하고 있다. 이들은 경영학과 4명, 경제학부 1명, 전기공학부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업 아이디어를 구상하게 됐고 또 Ernst & Young에서 컨설턴트로 근무하며 가졌던 경험을 직접 실행해보고 싶었습니다. 모든 동문들에게 종교와 직업을 떠나 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비전을 가지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힘들 때마다 그 비전을 붙들고 나간다면 언젠가는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저도 그 과정에 있는 사람이지요.

- 오혜인(경영학과 11) = 미국, 혹은 실리콘벨리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느낀 어려움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누구나 그러하듯 현재에 오기까지는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선택하고 준비하는 데 2년을 보냈지만 초기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요. 수익 결손으로 인한 현금 부족,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의 업무 스트레스, 직원 이탈, USPS로부터의 업무 불량으로 인한 벌금 등, 앞이 캄캄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곧 불필요한 인원의 감축과 끝까지 남은 인원의 급여인상, 고객을 만나 서비스 질 향상 프리젠테이션, 프로세스를 더욱 자동화시켜 수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스템 신규 투자, 가족의 격려에 힘입어 100% 노력을 쏟았습니다. 그 결과 6개월 만에 흑자를 이루게 됐고 사업은 안정상태로 확장을 거듭해 2006년도에는 신규 건물 구입등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문화, 언어의 장벽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었지요. 그러나 역발상적으로 위기는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어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려움이 우리에겐 가장 큰 적입니다. 목표를 세우고 과정에 충실한다면 성공할 것을 믿습니다.

- 박현빈(전기공학 09) = 한국과 미국에서 기업을 운영할 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너무 많이 지면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우선 기업 풍토와 문화가 다르지요. 이 곳에서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보다는 '얼마나 창조적이나'를 중시합니다. 인종과 개인의 배경은 그리 중요한 제약이 아닙니다. 현재보다는 미래, 모방보다 창조, 형식보다 내용, 양보다 질을 중시하는 문화, 철저한 시장주의, 약자보호 원칙, 법의 준엄성과 공정성, 신화와 실패의 양면을 늘 체감하며 경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에선 사업의 시작이 한국보다 법적 구조적으로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 이재은(경영학과 11) = 한국에서도 세계적인 IT 서비스가 나올 수 있을까요. 한국이 감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한국에서도 당연히 세계적인 IT 서비스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hardware-minded에서 software-minded로 바뀌어야겠지요. 그리고 문화와 인종 장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글로벌 시대 적합한 교육정책과 기업 문화를 만들어 세계 어디서든 젊은 인재가 찾아오고 기업을 창

재학동문 칼럼

한 대학원생의 죽음

이우창(영문 05)
영어영문학과 박사과정



세상 어디에도 죽음이 넘쳐흐르지 않는 곳이 없는 지금, 특별히 기억되지도, 애도되지도 않는 하나의 죽음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열 달쯤 전, 서울대 박사과정생 중 한 명이 갑자기 죽었다. 오랜 기간 공들여 쓴 석사논문이 통과된 지 채 반년도 되지 않았다.

학교를 떠나 있던 나는 다른 이들을 거쳐서 이야기를 들었다. 무리하게 일했던 것이 원인이라고들 했다. 부유하지 않았기에 돈이 필요했고 수많은 프로젝트로 말았다. 건강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신호는 있었지만 병원비가 부담스러웠고 일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랐다.

생전에 술조차 별로 마시지 않았던 그는 갑자기 쓰러졌고 치료받기도 전에 숨졌다. 그렇게 지금까지 학교에서 마주친 사람들 중(전공은 다름지언정) 가장 온후하고 성실한 이를 조의조차 표하지 못하고 있었다. 서른을 살짝 넘긴 나이였다.

반년 쯤 뒤 나도 박사과정생이 되었다. 풍족하진 않으나 다행히 부양할 가족은 없다. 감사하게도 첫 학기 GSI를 받았다.

물론 GSI만으로는 생존이 안 된다. 조교를 하나 더 맡았고 생활규모를 최대한 줄였다. 많지 않던 취미도 거의 없었다. 기숙사도 제일 짠 곳이다. 책상은 방학 내내 빈 돈과 가끔 들어오는 내기 아르바이트로 해결한다. 식비와 통신비를 합하면 수입과 거의 맞아 떨어진다.

지금 삶에는 별 불만이 없으나 조교 계약이 끝나는 여름방학부터가 진짜 문제다. '고용 불안정'을 뉴스가 아닌 현실로 마주하면 기본이 좋지 않다.

한국에서 박사 과정을 하고 싶어 입학했지만 유학 간 선배들은 헛소리로 취급한다. 일자리와 생활비를 보장받고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이 부조리하지 않은가.

기초학문 분야에서, 가난한 자가 연구자가 되기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과 같다. 그때까지 비용은 거의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적지 않은 대학원생들이 우울증을 앓는다는 사실

이 이와 무관할까?).

기초학문이 사회를 위한 공적인 영역이라면 학문 후속세대를 위한 환경조성 또한 공적인 책무여야 할 것이다. 물론 '연구중심대학' 서울대는 연구자를 양성하지 않는다. 누군가 자조적으로 읊조리듯 연구자를 직접 기르는 대신 수입해 오는 쪽이 더 싸고 효율이 좋기 때문일까?

기초학문 지원 장학금은 생겼지만 교수들도 그게 오래 지속될 거라 믿지 않는다. 총장선거에 최초 입후보한 열 두 명의 옹모서류를 전부 읽었다. 대학원생의 생활환경, 교육환경을 말하는 이는 없다. 이런 취급엔 익숙해서 화가 나지도 않는다.

학교에서 친히 만들어준 대학원 총협의회는 단과대 간 소개팅 이상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진 않고, 인권센터에게 대학원생 문제란 존재하지 않는다. 학과 및 교수들이 제아무리 노력해도 애초에 학교에서 연구자양성에 무관심한 이상 사태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건 당연하다. 누군가 조국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태평양 너머를 보라.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고인의 학위논문들을 찾았다. '개인 저자' 항목에는 출생연도만 적혀 있다. 아직도 그의 죽음을 모르는 서울대는 그를 살아있는 자로 표기해 놓았다.

죽음에도 무감각한데 삶 따위에 무슨 관심이 있을까? 5월에는 늦게나마 고인의 묘에 다녀오려 한다.

그때에도 누군가 죽어가고 있을지 모른다는 것, 여전히 학교는 무심히 지나치리라는 것, 우리 대학원생 모두는 그렇게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겁다.***

<대학신문 snupress@snu.kr>



“나도 서울대 가고 싶어요”

지난 5월 2일 서울대학교 입학설명회가 캘리포니아 LA의 들루스 중앙문화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한인 뿐만 아니라 백인 학생들도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이중 로건 라이사트(왼쪽·윌튼

고교 11학년)군은 “한국문화에 심취해 있다. 외국인 전형으로 한국 대학에 입학해 진짜 한국 문화를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로건 군은 아버지 마틴씨와 나란히 앉아서 언론과 인터뷰를 했다. *** <미주 중앙일보>

출해 로컬 경제를 일으켜야 합니다. 한국의 IT 기술 인프라는 세계적 수준으로 이를 여러 사업/서비스에 적용하고 어떻게 가치를 창조해 내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배들을 위해 다음과 같이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의 비전과 열정을 조기에 발견하고 세워라 ▶타월함을 위해 노력하라 ▶평생 배우는 사람이 돼라 ▶신실한 사람이 돼라 ▶넌리 보는 시각과 집중하여 보는 시각을 동시에 길러라.

해외에 모교출신 숨은 인재들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인적자원의 활용차원에서라도 모교 혹은 기업에서 실리콘벨리에서 종사하는 다양한 인재들을 초청해 선배들이 겪었던 산 경험과 조언을 나눌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선 경험자의 조언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저는 젊었을 때 이런 멘토링의 부재가 아쉬웠습니다. 좋은 선배의 조언과 자신의 비전에 대한 신념을 갖고 성실한 자세로 임한다면 창조 위에 새로운 창조를 더해 갈 것을 확신합니다.***

<홍보팀 학생기자 오상록(경영대학 4년)>

<특집> 6.25 한국전쟁 64돌

잊을 수 없는 그 여름



서윤석(의대 62) VA
미주 동창회보 편집위원

이 글은 집안 어른인 김상필 선생님의 6.25 한국전쟁 경험담을 정리한 것이다. 당시 아홉살이었던 필자는 지금도 생생한 기억과 느낌을 합했으며 김상필 저서 ‘오늘을 사는 생명’, ‘살과 사색’과 John Toland의 ‘In Mortal Combat Korea, 1950~1953’에서도 내용을 인용했다.

▶**가족을 두고 38선을 넘다** = 1945년 해방 한 달만인 9월 15일 김 선생님은 북한 보안대원에게 체포됐다가 45일만에 풀려났다. 풀려난 다음날인 11월 1일 새벽 가족을 남겨놓고 함흥 조흥은행 지점장이던 한재겸씨와 함께 함흥을 떠났다.

기차 짐차칸을 타고 복계에 도착해서는 도보로 한탄강에 이르렀는데 유일한 통로인 외나무 다리에 소련군이 지키고 있었다. 할 수 없이 수 많은 난민들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경비병이 잠시 철수한 틈을 타 모두 우수수 38선을 넘어 이남땅에 도착했다. 남한 점령지대에서 미군들이 뿌리는 DDT 가루 세례를 받고 걸어서 서울에 도착한 것이다.

북쪽에 가족 모두 남겨두고 온 그는 서울에서 전택보씨와 같이 방응모씨가 경영하는 조선일보사에 매일 드나들었다. 어느 날 과도정부 유역검씨의 권고로 1946년 2월부터는 문교부 초대 장학관직을 맡아 일하게 됐다.

▶**아내가 9명의 가족과 월남** = 모든 것이 차츰 안정되자 친구인 고 현원국 목사의 부인 신애군 여사에게 부탁해 처자의 월남을 중용했다. 살던 집도 압수당하고 공산치하에서 고생하던 그의 아내가 함흥을 떠난지 열흘 만인 1946년 3월 18일 천신만고 끝에 9명의 가족을 이끌고 무사히 서울에 도착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직전 그는 과도정부의 문교행정직을 떠나 조선일보 사옥에 위치한 천우사를 전택보씨와 같이 창립했다. 그렇게 해서 재단 이사도 있었던 이화여자 대학 재건에 더 시간을 할애할 수도 있었다. 이 회사에는 김활란씨도 관여키로 했다.

천우사는 무역회사로 사업이 날로 번창해 배당금을 받게 된 그는 영등포 대방동 산 32번지에 농지 1만 6천평을 마련할 수 있었다. 후일 학교를 세워 ‘빛은 동방으로부터’라는 꿈을 가지고 ‘교육자로서 민족과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를 길러내리라’ 하면서 그는 맨 땅에 엎드려 하나

개 기도 드렸다.

이때까지 문교부 재직시의 효자동 정부관사 6호에 살고 있었는데 그 후에도 만아들 최용이 경무대 경감으로 근무해 계속 그 관사를 쓰고 있었다. 이때부터 전차로 효자동에서 대방동 농장으로 출퇴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감사역으로도 있었던 조선일보에 들렀다가 총무부장 최용진씨를 비롯한 간부 여러명이 시국에 대한 정보교환이 한창인 것을 처음 알게 됐다.

▶**6.25 한국전쟁** = 1950년 6월 25일이었다. 38선 근처의 남북 무력충돌이 이번에는 좀 심해진 듯 하다고 하면서 모두가 걱정하다가 헤어졌다. 그는 다음 날인 26일 아침 다시 신문에 들렀더니 경기도 북쪽 의정부에 있는 방 사장의 별장 관리인이 간신히 빠져 나왔다면서 불길한 상황을 설명한다.

“북한 탱크가 들이닥치고 있어요. 그들이 파발총을 들고 국군을 쏘면서 밀려오고 있어요” 하며 정황을 설명한다.

그는 그곳을 떠나 힘없는 걸음으로 효자동 집에 도착했다. 아무래도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 것 같았다. 그날 밤 경무대(현 청와대)쪽에서 많은 차량이 움직

“서울 사정을 물어보니 ‘말도 마오. 소위 저명인사들은 붙잡히는 대로 인민재판에 부쳤다 하오. 거 뉘기더라. 아, 김윤근은 잡아서 톱으로 죽였다고’ 했다”

이던 생각이 난다. 27일 새벽에 대통령과 정부 고위층이 벌써 대피한 것이었다.

이날 오후였다. 소련제 야크비행기 한 대가 남쪽으로 날아간다. 더구나 미아리 쪽에서 포성이 울려오는 것이었다. 사태가 매우 급해졌다. 한강 다리라도 우선 건너 대방동 농장으로 가기로 결정했다. 차려놓은 저녁밥도 못 먹고 평소 입던 옷차림으로 그는 가족을 이끌고 영등포행 전차에 올랐다. 전차는 삼각지 이태원에 도착했는데 어디선가 총소리가 들린다. 전차 운전사가 더는 못 간다고 내리라고 한다.

걸어서 한강 다리를 횡단하고 대방동에 도착했다. 진명여고 교사였던 작은 처제는 학교에 폭불 일이 있고 잠시 인사라도 하고 와야겠다면서 도로 서울로 돌아갔다. 국도에는 이상한 기계소리를 내며 자동차들이 어디에서 쏟아 나왔다. 수도 없이 인파의 물결 사이로 계속 내려오고 있었다. 여자들은 머리에 보파리를 이고 남자들은 등에 짐을 지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정처없이 남쪽으로 가고 있었다.

▶**한강철교 폭파** = 28일 새벽 세시 쯤 한강쪽에서 폭발음이 들린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한강 다리가 끊긴 것이었다. 폭우가 폭포 쏟아지던 밤 어둠이 걷히고 동이 틀 무렵 비가 멈췄다.

다리가 끊어지니 끝없이 밀려오던 피난민과 자동차 행렬도 멈췄다. 그러나 라디오 방송에는 아

직도 “경애하는 시민 여러분, 일주일이면 시국이 안정될 것입니다” 하며 여자 아나운서가 방송한다. 그러나 그는 이곳 한강변도 위험할 것 같아 농장식구와 합치면 30여명에 가까운 인원을 이끌고 관악산쪽으로 피해 갔다.

우선 농장에 있던 닭들을 모두 풀어주고 돼지도 살아갈 수 있도록 방목했다. 그날 석양부터 한강쪽에서 국군이 대열도 짓지 못한채 산발적으로 밀려 내려오기 시작한다. 총은 고사하고 대부분 군모도 못 쓰고 흙투성이로 쫓겨오는 서글픈 광경이다.

“전세가 어떻게 되어가요?” 하니 “말도 말아요” 하면서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수원쪽으로 뛰어간다. 농장 담구지에 짐을 싣고 남아 있는 한 마리의 소가 끌게 하면서 일행은 관악산 어느 인심 좋은 농부의 집에 도착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참 좋은 분이였다. 그 집 절반을 차지한 일행은 모기불을 피고 그날 밤을 새웠다. 그후 며칠이 지났다. 경감으로 있던 큰 아들은 여순반란 진압작전에 파로한 탓인지 설상가상으로 건강이 좋지 않았다. 준비된 식량도 떨어지고 할 수 없이 그들은 식구들을 위해 짐을 끌고 온 소를 도축했다.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안된 일이었다.

▶**소름끼치는 이야기** = 이날 채규형씨가 식구를 데리고 찾아 왔다. 채규형씨는 강 다리가 끊겨 마포에서 나룻배를 타고 왔는데 서울 사정을 물어보니 함경도 사

하겠는가.

▶**위험을 강요하고 다시 서울로** = 이 엄연한 사실에 그는 결정을 내렸는데 모두 수긍하는 눈치다. 그래서 30명의 인원은 삼삼오오로 흩어졌다. 직계 가족 9명은 할 수 없이 서울로 올라가기로 했다. 7월 13일이니까 꼭 16일 만에 되돌아 가는 것이다.

출발한 날은 유별나게 무더운 여름 날이었다. 홍수가 진 한강의 물살은 사나웠다. 강가 풀숲에는 여기 저기 많은 시체들이 덩굴고 있다. 남쪽 물가에 작은 쪽배 한 척이 있는데 사공과 4~5명 밖에 탈 수 없었지만 9명 모두가 같이 탔다. 가족 중 누구도 따로 떨어질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배는 그냥 물살에 끌려 이쪽 강변에서 저쪽 강변으로 떠내려가면서 건넜다.

무사히 건넌 후 나중에 한 노인이 이 말을 듣더니 “당신들 정신이 있소. 저번에도 배가 뒤집혀 온 가족이 몰살했다고” 하면서 운이 아주 좋았다고 핀잔한다.

강을 건넌 그는 청파동 동생집에 들렀다. 도착하자 마자 그는 저녁밥도 들지 않고 하도 피곤해서 쓰러져 잠이 들었다.

그런데 관악산을 떠나 걸어오는 동안 그는 이상한 심리현상을 경험했다. 그것은 평소에 잘 알던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몹시도 무서운 것이었다. 만나서 반가운 것이 아니라 등골을 서늘하게 하는 것이었다. 거리에서 수차례 평소에 알던 사람과 마주쳤으나

그럴 때마다 그는 외면했다. 그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타일렀다.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지 모른다. 무서운 것이 사람이었다.

▶**보안대원에 체포** = 수염도 한번 깎지 못하고 농림모까지 썼다. 엉터리 공산당원들이 쏘아져 나와 진짜보다 한 술 더 날뛰는 판국인 것이다. 서로 믿을 수 없는 험한 세상이 됐다. 전쟁은 무서운 것이다. 인간을 인간이 아닌 것으로 만들고 피를 흘리는 데도 서로 냉담했다.

어제는 화해공장, 오늘은 아현동 철도 터널이 폭격당했다. 그러나 이는 연합군의 반격이 시작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숨길을 열어주고, 희망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일인 것이다.

다음 날 청파동을 떠나 거처를 아현동 가까운 친척집으로 옮겼다. 도착해 허기를 메꾸고 하루 이를 보내고 있는데 보안대원이 파발총을 메고 대문을 박차고 들이닥쳤다. 수상하다는 눈초리로 그를 보면서 “당신 함경도 아바이 양이요?” 한다.

“네, 함경도에서 살다 3년 전 서울에 와서 살았소” 했다. 그러자 “보안대로 가시오” 한다.

그는 보안대원을 따라가면서 마음 속으로 ‘이제는 끝장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현동 파출소 자리에 위치한 보안대에 도달하니 국수집 배달부같이 생긴 촌뜨기 책임자에게 그를 넘기면서 “여기 함경도 영감 하나 잡아

왔소. 죄값 수상해서” 하며 바쁜 지 나가버린다.

책임자가 이름을 묻는다. 김상필이라는 본명을 대면 쉽게 탈로가 날 것같아 그는 김명봉이라고 어릴 때 이름을 댔다. 다음에는 함경도에서 언제 왔는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글은 얼마 배웠는지를 묻는다. 중학생이면 어느 정도의 수학 방정식도 주섬주섬 물어본다. 억양이 아주 토박이 삼수갑산 산골 함경도 사투리다. 이 때 그는 정신을 가다듬고 이상하게도 차근차근하게 꾸며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다.

“함경도에서 3년 전 원효로에와 구멍가게를 하며 살다가 집이 폭격으로 불타버렸다. 이리저리 식구를 데리고 다니다 일면식도 없는 집이 비었길래 그 집에 잠시 있었을 뿐...” 이라고 하면서. 그러는 설명을 들으면서 보안대원은 졸음 반 듣는 등 마는 등 하고 있는데 나갔던 보안대원들이 젊은이 다섯 명을 더 잡아 데리고 들어왔다.

▶**구사일생** = 책임자는 졸다가 눈을 크게 뜨고 그를 정신차려 쳐다보더니 “여기 자리가 좁으니 아바이는 집에 가 있다가 다시 부르면 오오. 어디메로 달아나면 양이되오” 하면서 턱으로 가라고 신호를 준다. 그는 웬 떡이냐는 듯 어슬렁거리며 호랑이 굴 같은 보안대 건물을 빠져나왔다.

가벼운 걸음으로 집에 와보니 대방동에서 강북으로 떠났던 작은 처제가 와 있었다. 그녀는 학교 이야기며 오기 전 효자동 집에도 들렀다면서 자초지종을 설명한다. 일하던 가정부가 여성 간부가 되어 응접실을 여성 집회실로 쓰고 있었다고 한다.

처제는 효자동 구멍가게 아줌마의 주선으로 손수레를 얻어 간단한 옷가지와 아내가 월남시 함흥에서 가지고 온 미싱과 그가 평소 애지중지하던 바둑판을 싣고 아현동 고개를 넘어온 것이다. 참 함경도 토순이 같은 장한 여성이다. 처제가 가지고 온 그 바둑판은 해방 9년 전 쯤 일본의 명인 기타니 미노루(木谷實)와 그의 문하생 소년 조남철이 사용했다는 바둑판이다. 바둑을 두는 사람에게는 귀한 물건이었다.

형부를 생각하는 마음씨가 참 곱다. 그런데 이 재희의 기쁨도 잠시였다. 보안대에서 잠시 풀려나왔다는 그의 이야기를 듣더니 그의 아내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진다. 그것은 이들이 다시 잡으러 올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이 근방이라도 다른 곳으로 옮겨야겠어요.” 하는 바람에 다시 보파리를 들고 모두 무작정 떠났다. 오라는 곳도 갈 곳도 없었다. 불이 나게 서둘러 건다 보니 어느새 종로 4가에 도착했다.

그녀가 “여기서 북으로 올라가면 창경원가는 길이 아니요?” 한다. “얼마 안 가면 명륜동인데...”

명륜동에는 그녀의 죽마고우 고향친구 이인덕이 살고 있었다. 남편 P씨는 해방 전 일본에 경제학을 공부한 모 전문학교 교수였는데 해방 후 가끔 요시찰 인물로 주의받던 사람이었다. 먼지와 땀으로 뒤범벅이 된 일행은 그 집 문 앞에 도착해 아내가 혼자서 집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이인덕과 함께 나타났다.

<7면에 계속>

<6면에서 계속>

그녀의 표정으로 보아 좀 거북한 것 같았으나 그래도 반가워하면서 막내아이의 손을 잡고 근처 어떤 커다란 기와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더니 그녀의 남편 P교수의 고향친구 집인데 모두들 충청도 고향으로 내려가 당분간 맡아 돌보고 있는 곳이니 걱정 말고 이 사랑채에 편안히 있으라고 한다.

그는 참으로 고마왔다. “역시 옛날 친구가 좋구나” 하면서 여장을 풀었으나 정세는 소문에도 절망적이다.

▶**북한군 치하의 서울** = 7월 25일 아내가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들어왔다. 윌리엄 딘 소장이 대전 전선에서 포로가 됐다는 때문 짝 같은 벽보가 붙었다며 전세가 불리한 기막힌 소식을 전한다. 이때 벌써 그들은 서울 시장에 이승업을 임명해놓고 인민신문을 발행하기 시작했다. 신문에는 적색 선전이 한창으로 이제 낙동강까지 내려갔으면서 한쪽 구석에 남은 이승만 정권이 몰락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한다.

누가 보더라도 이제 생명을 부지하려면 인민군에게 잘 보여야 된다는 것을 은근히 강요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즈음 서울 상공에 무스탕 전투기, B29, F80기들이 300~400대씩 매일 날아와 폭격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무척 초조하고 답답했다.

소문으로 들린 8월 15일 연합군의 서울 진주설을 확인하고 싶었다. 수업을 짊고 오랫동안 시청 앞 조선일보사를 찾았다. 총무부장 최용진씨가 몇명 뿐인 직원으로 신문을 지키고 있었는데 주필로 있었던 이갑섭씨가 폭격으로 전 가족이 몰살됐다고 해 문상을 갔더니 이상하게도 문상객을 보고도 감사는 커녕 냉담한 표정들이다. 평소에는 숨어 있던 사람들이 행정조직이나 학교에 등장하고 심지어 문인사회에도 작가동맹이 형성됐다고 한다.

그러나 기대했던 연합군이 8월 15일 서울에 진주할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최 부장은 저들이 장기전으로 겨울 준비를 서두른다면서 걱정한다. 크게 낙심한 후 신문을 떠나 명륜동 집으로 어떻게 돌아왔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리고 며칠을 드러누워 앓고 있었다.

▶**그들만의 세계** = 그래도 서울 상공에 매일 비행기가 더 자주 뿔었다. 이런 날이면 그의 마음은 오히려 명랑해진다. 하루는 가회동 친구 오봉빈을 찾았다. 오봉빈씨는 그와 일본 동양대학 동문으로 서예에도 관심이 많고 천도교의 중진이라 오세창과도 또 도산 안창호와도 가까이 지낸 사람이다. 그는 오씨와 삼청동 골짜기에 올라가 흐르는 물에 물장구를 쳤다. 서로 등을 밀어주며 시국이야기를 했다. 난리통에도 두 사람은 동심의 세계로 돌아간 셈이다. 여름인데도 너무 차가워 10분도 못돼 물에서 나왔다. 그리고 그늘에 앉아 시국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부통령 이시영씨가 안재홍씨를 포함한 국회의원들을 모아놓고 공산당원들이 무슨 일을 꾸미는 것 같다고 그는 설명한다. 그러나 오봉빈씨의 이야기는 차츰 빗나가는 것을 알았다. 아직 공산당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 같았

다. 그는 “배가 고파오니 집에 가서 미음이나 마셔야겠소. 다시 만납시다” 하면서 헤어졌다. 그 뒤 며칠이 안돼 오씨는 보안대에 체포돼 북으로 끌려갔다.

▶**인민재판보다 무서운 것** = 서울 상공에 뜨는 비행기는 더 늘어났다. 부산이 곧 떨어진다고 장담하던 이야기도 없어졌다. 안재홍씨를 비롯, 국회의원들을 모두 평양으로 끌고 갔다는 소문도 들린다. 인민재판도 없어지고 이제부터는 잡히면 즉시 밧줄로 묶어 어디로 끌고 간다고 한다.

국립도서관의 도서관 문화재들도 트럭에 실려 북으로 간다고 한다. 항복하자 힘없이 물러가던 일본인들이 생각났다. 그러나 이 상황이 바뀌면 공산당원들과 그동안 그들에게 아첨하던 무리들이 어떻게 나올까 걱정도 된다.

주자유 군이 그를 찾아왔다. 진술서 하나만 쓰면 검찰총장 증명서를 얻게 돼 안심하고 살 수 있다고 그를 설득한다. 캡을 쓴 것으로 보아 주군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 모양이다. 그러나 그는 공산당의 수법을 벌써 함흥 감옥소에서 알고 월남한 사람이다. 정색을 하며 꾸짖는다.

“주군 자네 돌았나. 안재홍씨나 이춘호씨가 잘못이 있어 끌려간 줄 아는가” 하며 호통쳤다. 주군이 무릎 꿇더니 사과한다. “선생님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냥 선생님이 걱정돼서...”

그날 그는 말동무라도 할 수 있다면 동네 정준목이라는 사람

에서 수근거리다 가곤 했다. 그 후 차츰 그들을 멀리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들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9월 중순에 접어들었다. 그를 찾아 다닌다는 제자들이 있다는 소문도 들렸다. 한편 “이제 가을이 닥쳐오는데 처자들은 어떻게 겨울을 넘길 수 있을까?” 하면서 혼자 깊은 걱정에 빠져 있었다.

그런데 하루는 아내가 겁에 질린 얼굴로 들어와 “여보, 이제부터 어디든 가지 말고 집에 꼭 숨어 계세요” 한다. 아내는 이날 옛 친구 유복동 동창을 만났는데 그녀 집에 인민군 복장을 한 장교 3명이 나타나 김 선생이 계신 곳을 아느냐고 하더라. 그래서 모른다고 잡아땀다며 조심하라고 귀띔해주었다고 한다.

“제자들이 선생을 찾아 다닌다고 하는데 잘못된 일지요?” 하니 “당신 정신이 있소. 무슨 인사차 찾은 줄로 아는 거요? 잡아갈려고 그러는 것이지” 하며 펄쩍 뛴다. 그는 꼭 숨어 있었다.

박 반장이 찾아왔다. 모래주머니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한 집에 한 사람씩 나오라며 사정한다.

“나라고 언제 공산당을 해 보았습니까? 그냥 배급이라도 받아보려고 하는 것이니 협조를 부탁합니다” 하면서 평소보다 무척 공손해 하는 것을 보면 무언가 나중을 위해 부탁하는 눈치다.

어쩌면 회색적인 행동이다. 이런 사람들을 나무랄 수만은 없다. 우리 민족의 운명이 하루 하

렸소? 어느 때라고 집회에 나가신다는 말지요?” 하며 저지한다. 이틀날 아침 알아본 결과는 그날 50~60명이 모였는데 인민군이 30여 명을 추려 성균관 서쪽으로 데려 갔다고 한다. 그런데 그때 떠난 사람은 한 사람도 살아서 돌아온 사람이 없다.

▶**무자비한 처형** = 25일 석양에 다시 동회에서 통보가 왔다.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연필 한 자루씩 들고 모이라는 전갈이다. 그는 10분 쯤 늦게 도착해 보니 아이들만 놓고 있고 어른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아 “애들이 사람들 어디들 갔느냐?” 하고 물어보니 “몰라요. 조금 전 인민군과 같이 모두 저쪽으로 갔어요” 한다. 그는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

26일 정오 명륜동 일대, 성균관 뒷산에서 수백명의, 소위 그들이 말하는 반동분자들을 총살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24~25일 모인 사람들도 포함됐다. 수 백명이 파리 목숨처럼 사라진 것이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종교란 무엇인가. 하나님이나 신은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 천당이나 지옥 그런 관념론적 유희는 목숨이 붙어 있는 한가로운 사람들의 고민에 불과하다. 언제 죽음이 올지 모르는 우리들을 생각하면 그저 기가 막힐 뿐이다. 오늘의 한 생명이 아직 붙어 있음에 그저 감사할 뿐이다. 귀한 생명이 전쟁통에 수 없이 사라지고 있다.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이 끔찍한 살생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귀

▶**마침내 서울 수복** = 오후 3시 쯤 그가 목침을 베고 잠 들었는데 외출했던 아내가 대문을 박차고 막수를 치면서 소리를 친다. “여보, 저기 국군 탱크가 왔소” 하면서, 식구들은 만세를 부르면서 거리로 뛰쳐 나갔다. 어디서 찾았는지 사람들은 태극기를 들고 있었다. 남자들은 수염도 깎지 못해 젊은이가 늙은이처럼 보였다. 피골이 상접한 시민들이 기쁨에 넘쳐 뛰어가면서도 힘이 없어서인지 뒤로 넘어가면서도 일어나 서로 부둥켜 안고 기쁨의 합성을 질렀다.

가족을 이끌고 명륜동을 떠나 종로를 거쳐 광화문 앞을 지나면서 전쟁터로 변한 거리를 보았다. 모든 것이 다 파괴됐고 살아 남은 사람들은 수척했지만 그래도 웃음을 짓고 있었다. YMCA건물도 화신백화점도 다 불타버렸다. 여기 저기 아직도 시체가 타는 역겨운 냄새가 진동한다. 중앙청에는 박정호 소위가 올랐다는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다.

통인동 전차길을 따라 효자동으로 가는 길에 국군들이 지키고 있었다. 아직 관당이 있으니 조심하라고 한다. 이렇게 그들은 95일 만에 효자동 집으로 기적같이 살아 돌아온 셈이다. 경무대 쪽 길가 은행나무 잎은 가을이라고 벌써 노랗게 물들어 가고 있었다. 뜰에 잡초가 무릎이 문힐 듯 무성하고 집안은 난장판이었다. 쓸만한 가구는 다 없어지고 보지도 못하던 자재가 한 현관에 놓여 있다. 그래도 다행히 그가 제일 소중히 여기는 책장 서적들은 그대로 있었다. 이 집을 며칠간 영국 군인들이 사용하다 오늘 아침 떠났다고 한다. 아내는 살림을 정돈하고 아이들을 챙긴다.

오랫만에 가족이 저녁식사를 하는데 조중훈씨가 찾아왔다. “중학 시절 은사님인데 어떻게 찾아오신 것일까?” 하면서 맞았다. 그러나 이날 조 선생 모습이 무척 초췌했다. 그가 찾아온 이유는 지난 몇 달 동안 아들 두 명이 북측 선전에 현혹돼 활동하다가 이제 세상이 바뀌었으니 앞으로 자신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를 논하러 온 것이었다. 평소 학자라 그를 잘 위로해드리고 주무시고 가라고 했느냐 조 선생은 사양하고 밤길을 떠났다.

그가 떠난 후 30분도 안돼 또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그가 다시 돌아왔는가 생각했는데 뜻밖에 그동안 그가 정준목씨집에서 만났던 이창수씨다. 그는 놀란 가슴을 진정하고 응접실로 이씨를 안내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날 이창수씨가 그에게 부탁한 것은 세상이 바뀌어 있을 곳이 마땅치 않으니 그의 대방동 농장에서 머물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는 농장 관리인에게 그가 피난 중 신세를 진 분이니 잘 대접하라는 편지를 써 주었다. 이창수씨는 차를 마시고 나서 밤길을 마다하고 떠났다.

이 두 사람, 조중훈 선생님이나 이창수씨는 그 후 어찌 됐는지 아무도 알 길이 없다.

인민군은 계속 북으로 밀려가고 맥아더 장군이 인솔하는 유엔군과 국군은 38선을 돌파해 빠른 속도로 북진하고 있었다. 곧 통일이 이루어지리라는 사람들의 꿈은 부풀어가고 있었다.***

<끝>

“그날 50~60명이 모였는데 인민군이 30여 명을 추려 데려가 한 사람도 살아 온 사람이 없다. 성균관 뒷산에서는 반동분자라는 이름으로 수백명을 처형했다고 한다”

의 집으로 그를 안내한다. “선생님의 좋은 상대가 될 것입니다” 하면서. 그는 주군이 소개하는 사람이니 시국도 알아볼겸 같이 갔다. 그는 정준목씨는 잘 모르지만 그의 형을 더 잘 안다. 형은 을지로에서 경성 서비스라는 자동차 수리공장을 하고 있었다. 사랑채에 안내를 받고 들어섰더니 잠시 후 주군이 이 선생이라든 손님을 소개한다.

결론을 권한다. 오랫동안 폐위에 말아 피우다 오랫동안 폐워버린 담배 연기가 유별나게 향기롭게 느껴졌다. 이름이 이창수라고 한다. 그보다 서너 살 위인데 머리는 반 백이고 혈색이 피난민 같지 않다. 주인 정씨가 합석하니 앞에 저녁상이 차려진다.

상에는 굴비며 고추장, 풋고추, 상추, 알곡이 든 죽으로 유랑민에게는 과분한 음식이다. 나중에 주군 말이 주인 정씨가 “김 선생님은 영양상태가 말이 아닌 것 같다” 면서 걱정했단다. 그들에게 몸서 쇠약해 보였던 것이다.

점심을 나누면서 그는 이창수씨의 시국담을 들었으나 내심 실망했다. 그들은 대구·부산이 공산군 수중에 떨어지는 것이 시간문제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이 창수씨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

대화 중 여러 번 여운형씨 이름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사회주의 운동의 인물인 것 같았다. 그러나 서울시장에 이승업이 임명됐다는 데 대해 분개하고 있었다. 때로는 낯선 청년 수십명이 별실

루 느닷없이 바뀌는 이런 상태에서 아마 박 반장도 그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일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는 그의 행동의 변화를 보고 수 일내 곧 좋은 소식이 올 것이라는 기대를 비로소 하게 됐다. 그것은 매일 더 잦은 폭격이 증명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정부는 이토록 답답해 하는 서울시민들에게 빼라라고 던져주지를 못하는 것인가” 하며 그는 안타까워한다.

▶**인친 상륙작전** = 마지막으로 그가 만난 날 이창수씨는 이상하게도 김 선생의 효자동 관사와 대방동 농장 주소를 묻는다. 그리고 그는 이날 무척 우울한 표정이었다. 비밀리에 주군이 인친 상륙작전을 그에게 알려준다.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이창수씨도 인천 상륙작전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말인가 하는 생각도 해본다.

그가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초조하게 기다린다. 박 반장 외에도 여러 명이 와서 사람들을 모이라고 했단다. 바리케이트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아 시가전을 준비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인민군이 밀리는 상황이 온 것이라고 그는 직감했다.

9월 20일 남자들은 모두 오후 일곱시 반까지 동회 옆에 모이라는 전갈이 왔다. 그는 오랫동안 박 반장 체면을 세워 줄 생각으로 나갈 차비를 하는데 아내가 어디로 가느냐고 해서 설명했더니 펄쩍 뛰면서 “무슨 망령이 들

한 목숨들이 서로 죽이며 피를 흘리고 있다. 왜 저렇게 피에 굶주린 이리떼처럼 변해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들이 아프게 했다.

27일 부터 은은히 울리는 포성 속에 그날 저녁 인민군 패잔병들이 줄행랑을 치고 시민들은 모두 집안에 틀어박혀 있었다. 가족이 모두 뒷뜰 방공호에 숨어 있었는데 감기에 걸린 막내가 숨을 쉬기 힘들어 해 할 수 없이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이때 갑자기 캡을 쓴 키다리 한 명이 대문을 박차고 들어선다. 권총을 차고 있었는데 이리저리 훑어보더니 찾을 것을 못 찾았는지 한 손으로 권총을 만지작거리며 그를 노려보면서 “당신은 누구요?” 한다.

▶**아내 기지로 또 살아나** = 멍하니 그를 쳐다만 보고 있는데 아내가 뒷마루로 들어서면서 “그 분은 내 아버지요. 원효로에서 폭격맞아 집을 잃고 한달 전 이곳으로 이사왔소” 했다.

당시 그의 나이 50이었지만 원래 머릿털이 30대부터 하얗고 수염도 깎지 못해 70도 넘어 보였던 것이다. 침입자는 다시 온다는 한 마디 남기고 사라졌다. 그는 사복의 북쪽 유격대원이었고 불을 지르면서 퇴각하는 마지막 붉은 세력이 되었다. 아내의 기지로 이렇게 그는 또 살아난 것이다.

9월 28일 명륜동 일대가 술렁거렸다. 박 반장은 집을 비우고 가족들과 함께 행방불명됐다. 한 때 권력을 휘두르던 사람들이 자취를 감췄다.

언어문화 칼럼

한국 말, 미국 말



오세경(약대 61)NE

미국생활이 조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기간의 2배가 넘고 보니 요즘은 한국어가 모국어인지 영어가 모국어인지 헷갈릴 때가 많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50년 가까이 미국에서 살다 보니 21세기의 한국말은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고, 또 최근의 한국어를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는 것이 당연하기도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내 경우와 달리 뉴욕이나 LA의 한인 기업체들이 간판을 아예 한국어로 쓰는가 하면 서울의 상가들은 영어 간판을 쓰거나, 아니면 영어를 한글 발음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 왜 우리 한인들은 장소를 구분하지 못하고 이런 일을 벌이고 있을까.

교육수준이 비교적 높고 영어 사용이 빈번한 최근의 한국에서는 영어간판 사용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이렇게 한국어를 미국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상당한 문제를 일으킨다. 예로 만일 밤중에 도둑이 들거나 화재가 났을 경우 미국인 경찰관이나 소방관들이 그 지점을 쉽게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미국의 어느 도시에서는 영업소 간판이 꼭 영어로 쓰여져야 된다는 법을 시행한다고 한다.

영어간판을 쓰는 한국의 경우 또 알파한 영어실력을 보여 웃음거리가 되는 수도 많다고 생각한다. 예로 'xx 리서치 센터'라 쓰인 것을 본 일이 있는데 이것은 'xx 연구단지'라고 하든가 아니면 차라리 'xx Research Center'라고 썼어야 했다.

아무도 lesearch를 하는 사람은 없다. 이같이 R과 L을 구별하지 않고 발음해 쓰는 것은 상당한 오해를 가져온다. Rock and Roll이 Lock and Loll, Race가 Lace, right가 light, fried rice가 flied lice가 돼 버린다. 후자의 경우는 볶은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날아다니는(?) 이(기생충)를 먹는 게 되니까.

한국인이 더 흔히 오용하고 있는 발음은 F와 P의 구별이다. 한인은 영어의 원래 단어가 F나 P를 막론하고 무조건 p로 쓴다. 그래서 fan이 pan, fashion show가 passion show, face가 pace, fast food가 past pood, voice fishing이 boy's pissing이 된다.

우리가 보여주고자 하는 '의상 전시회'가(남성이 여성을 향하여 품는) '열정의 전시회'가 되고 '목소리 잡아내기'가 '남자 아이의 오줌누기'가 된다면 얼마나 해괴한 일이겠는가.

그런데 R과 L은 한글로 구별해서 쓰기가 좀 어렵다 해도(사

실 한글로도 구별해 쓸 수도 있다) F와 P는 우리 글로 분명히 구별해서 쓸 수가 있다. F는 ㅎ을 쓰고 P는 ㅍ으로 쓰면 된다.

그러면 왜 한국의 학자들(국문학자나 영문학자를 막론하고)은 이러한 체계조차 잡아주지 못하고 있는가. 요즘은 한국에서도 영어가 하도 흥행하니깐, 우리의 한글은 아무렇게나 써도 괜찮다고 생각해서인가. 아니면 영어 만행에 짓눌려 한글학자들은 그저 잠자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영문학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

영어를 중요시한 나머지 한국의 역사까지 무시해 가르치지 않은 결과가 과연 무엇인가. 요즘 교육방송에 장하석 교수의 과학철학 강의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 이 강의의 제목을 처음에 'Philosophy Scientific'라 했는데 누군가 이것이 '부러진 영어'라고 지적했는지 요즘은 'Philosophy and Science'로 바뀌어 부르고 있다. 그러나 강의 내용을 보면, 그는 과학의 철학적 고찰을 의미하고 있으므로 강의의 제목은 'Philosophy of Science'라고 해야 마땅하다. 이것은 작은 잘못인 것 같지만, 세계에 우리의 무식이 노출되는 부끄러운 일이다. 그럼에도 과감히 시정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 하다.

반면 '인기가요'는 영어로 'Popular Folk Song'이라 할 수 있는데도 그냥 'Ingi Gayo'라고 한다. 한국 TV를 시청하는 세계의 관중을 위한다면 당연히 영어로 번역해야 할 것이다. 그런가 하면 그것도 국영방송사에서 일본제품 광고를, 영어도 한국어도 아닌 일본말로 하고 있다. 이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강제로 일본말을 배워야 했던 뼈아픈 과거를 모르는 것인가.

그렇다면 언제 우리가 희랍 역사를 그렇게 잘 알아서 드라마 이름을 희랍신화에 나오는 바다의 신 이름을 따 'Poseidon'이라 붙여 상영하고 있는가. 내 기억에 이 영화는 바다와는 전혀 상관없는 영화였다. 5천만의 인구가 살고 있는 남한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바로잡아 줄 사람은 왜 없는가. 도대체 방송통신 위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이러한 언어의 오용과 남용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개탄하는 사람은 지난 10년 동안 꼭 한사람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 분은 언어학자가 아닌, 미국교육을 받은 천문학 물리학자였다.

어느 학자는 "언어란 대중이 사용하면, 그것을 그 시대의 언어라고 용납해 따라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쓰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올바른 언어라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중전에는 '알루미늄'을 '알미니움'이라 발음했다. 영어가 흥행함에 따라 누군가 이것의 부정확한 발음을 시정해 지금은 아무도 '알미니움'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다.

잘못된 줄도 모르고 그냥 대중이 사용하는 경우는 아직도 시정

할 것들이 있다. 받침을 쓸 줄 모르는 일본인들은 '김치'를 '기무치', '컵'을 '고뿌', 식물이나 동물의 '엑스트랙'은 '에끼스'라고 불렀다. 한국인으로 '김치'를 '기무치'라 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엑스트랙' 또는 '엑스'를 '에끼스'라 발음한다. 왜 우리의 월등한 발음을 두고 열등한 일본식 발음을 해야 하는지 참으로 수치스런 일이다.

어느 언론인이 '김연아 열풍'을 '김연아 신드롬'으로 잘못된 영어를 쓰고 있다고 지적받은 일이 있다. '김연아 fever'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비교적 단순한 농경생활을 해온 우리 전통문화는 서구에 비해 부족한 단어, 특히 명사의 부족이 절실해서 우리 말에 없는 단어가 많이 부득이 영어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문명이 급속 발달하는 오늘에서는 영어 단어로도 부족해 영어와 한국말이 합친 복합어도 등장하고 있다. '제테크·몰카·셀카·콜택' 등 많다. 이것도 부족해 PD라든가 MOU등 대개 영어단어를 아예 그대로 쓴다. 이 경우 해당 한글 단어가 엄연히 존재하는 데도 구태어 영어단어를 쓰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우리 말도 제대로 모르면서 영어를 써야 하는가. 왜 이렇게 미국문화의 꼭두각시 노릇을 해야 하는가.

한국은 이제 세계 20대 경제강국 중 하나라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긍심은 어디로 갔는가. 자유무역 협정 후 자존심마저 미국에게 거저 주어 버렸는가.

물론 우리는 미국에게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제2차 대전후 일제 치하에서 해방시켜주었고 북한 남침 때도 연합군과 싸워서 우리를 오늘 날의 국가로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우리가 경제 강국이 된 것은 그들에게서 구호물

자를 받아서가 아니었다. 미국의 월남 전쟁을 돕기 위해 우리 청년들이 월남의 밀림 속에서 흘린 피와 땀, 중동의 사막에서 고생한 젊은이들, 독일의 탄광에서 흘린 우리 광부들의 굵은 땀방울이 기초가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더구나 우리의 긍지를 지키고 미국인들에게서 배워야 할 일, 본받아서는 안 되는 일을 구분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과거에는 서양문명을 따라잡기에 급급해 무턱대고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이제 세계 20대 강국이 됐으면 설자리를 다시 점검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아름다운 대자연을 남용하고 깨끗이 청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쓰레기통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언어도 마찬가지로 생각한다. 누군가가 지도력을 발휘하고 올바른 언어구사에 기강을 잡아야 하면 우리의 한글문화는 모두가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자랑스러운 언어가 될 수 있다.

우리 한글에는 11개의 모음이 있어 미국인들이, 또는 다른 유럽인들이 잘할 수 없는 모음도 잘 발음해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글의 간편성이 영어나 희랍문자 혹은 아랍이나 유대인들이 쓰는 문자보다 훨씬 뛰어나다. 적어도 1천자는 알아야 대화가 가능하다는 중국의 한자를 26개의 key board에 어떻게 기입할 수 있을까를 상상해 보라!

물론 미국풍을 부러워 하는 것은 우리 한국인만은 아니다. 지난 70~80년대에는 러시아에서 미국의 청바지 값이 일반 노동자들 월급의 5배 이상이나 된 적도 있었다. 미국 의류문화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청바지는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물론 영국의 황태자까지 애용하고 있으니 한국인들이 애용하고 싶어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본다.

그렇다 해도 청바지는 어디까지

나 작업복에 불과하다. 유행이라 하여 살결이 부드러운 어린애에게 입힐 것이 아니며 공식 석상에서도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장을 요구하는 만찬에 입어서는 안되며 더구나 교회에서도 이런 복장을 해서는 안된다. 한국에서 갓 온 어느 여자 전도사가 다 떨어진 청바지를 입고 교회에 왔었다고 한다. 이 모습을 보다 못해 어느 권사님이 이 여자가 돈이 없어 그런가 하여 20달러를 쥐어주며 "가서 새 옷을 사 입으라"고 했다고 한다. 때와 장소를 구별하지 않고 무조건 미국식을 따라가려는 분별없는 행동이었다.

이러한 행동은 미국인들에게도 웃음거리 밖에 안된다. 미국인들이 그렇게 한다 하여 복잡한 서울길 한 거리에서 kiss하여 교통혼잡을 이룬다거나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이혼을 신청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할 생각은 하지 않고 쓸데 없이 우울증이나 앓고 있다는 것은 과히 칭송할 일이 아니다.

지난 4월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조국은 국제사회에 안전에 대해 부끄러운 점을 역력히 드러내게 되었다. 경제강국은 됐다 해도 국민의 안전을 위하는 인본주의의 기본도 확립되지 않았다는 것이 외국 언론들의 비판이었다. 300여 명의 어린 학생을 수장하게 된 세월호의 비극은 평화시 일어난 당일 사고치고는 가장 큰 사망자를 낸 참사였다고 한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참변이 없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를 찾지 않으면 안될 일이다. 교육수준이 높고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한국인은 마음만 먹으면 능히 이를 극복할 수 있다. 이 참사를 계기로 다시금 점검하고 갈 길을 찾아 경제 뿐 아니라 도덕과 미덕이 높은 자랑스러운 조국이 되기를 빌어본다.***

Trauma

강신용(사대 73) CA
CPA · 수필가

인터넷과 SNS 혁명의 물결로 세상이 정신없이 돌고 돈다. 지구촌 소식이 옆집 소문보다 빠르다. 인터넷이 눈앞에 펼쳐지면 요술 방망이처럼 정신이 멍해진다.

사색이나 산책은 박물관의 장식품 같다. 도시 생활이 몸에 밴 사람들은 한 시가 바쁘게 살고 지낸다. 뉴욕에서 사업을 하다가 남가주로 이사 온 분들은 LA가 너무 느리다고 불평한다. 천천히 걷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느리다고 불평이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옛 말처럼 사색과 산책이 더욱 절실한 시절이다.

지구의 둘레는 약 2만 5천 마일이라고 한다. 하지만 한 시간이

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회로애락의 소식을 보고, 듣고, 즐기고, 슬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르겠다.

자식 자랑은 팔불출이란다. 친구들이랑 이런 저런 말을 하다 보면 아이들 이야기가 자연스레 나오게 마련이다. 눈치코치로 얼버무리는 수도 있지만 3분 3금에 해당되는 경우다.

한국에서는 묻지 말아야 하는 3가지가 있다고 한다. 아이들이 어떤 학교에 합격했는지, 과년한 자녀의 혼사와 부부 사이의 안부를 묻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한다. 오늘은 착한 아이가 내일은 어쩔까 모르는 험한 시대에 모두가 노출돼 있으니 말이다.

법 중에 웃기는 법이 '폐법'이란 다. 아프리카 밀림지대는 말 그대로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동물의 세계를 보게 된다.

하이에나 떼는 특히 잔인하고 무서운 폐거리다. 혼자서는 외롭고 힘을 쓸 수도 없다. 그러니 떼를 지어 물러다니고 떼를 지어 공격하고 죽이고 더 먹으려고 또 싸운다.

만물의 영장도 그들의 세상과 원초적 본능을 가지고 사는 것은 별로 다르지 않다. 떼로 물러가서 데모하고 농성하고 자신의 주장을 소리 소리 지르며 해결하려고 떼를 쓴다. 이것이 웃지 못할

떼법의 기본이다.

외로운 사자도 하이에나의 도시락이 될 수 있다. 떼거리에서 빠져 나온다는 것은 무서운 현실이다. 세상에는 순한 양과 착한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나 무섭다. 떼지 마을에 늑대가 오면 늑대한테 동료의 생명을 상납해야 되는 것이 떼지존의 슬픈 운명이다.

양은 양대로 떼지는 떼지대로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다. 잠시도 경계를 늦추거나 방심하면 주검이 옆에서 기다린다.

줄에서 낙오하면 사자도 별 볼 일 없는 판에 늑대가 우글대는 숲 속에서 길 잃은 양은 공포에 휩싸인다.

한국을 사랑하는 만큼이나 조국의 아픔에 충격도 크다. trauma가 이제는 일상 용어로 한국말 속에 자리잡았다고 한다. 말 뜻이 섬뜩하니 그냥 trauma라고 하거나 보라. 학생들은 물론이고 부모들도 모두 쓰리고 아픈 상처에 기진 맥진 힘이 빠져 있다. 주변을 맴돌던 하이에나 떼에 모두 물어 뜯긴 기분이다.

돌고 도는 지구촌 돈 소리에 머리가 돈다. 사슴처럼 조심스레 살고 싶다. 한 발 물러나 그루터기에 걸터 앉아 먼 곳을 바라본다. 주변을 둘러 본다. 아무 일도 없는 양 그냥 돌아간다. 아픔을 간직한 채로...***

언어문화 칼럼

‘엉터리’, 영어 아닌 영어들

조화유(문리대 61) VA
저술가

‘김연아 키즈’ 라니,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아이?

한국의 어느 스포츠 신문을 보다가 ‘김연아 키즈’ 라고 붙여놓은 기사 제목을 보고 놀랐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김연아에게 무슨 아이?’ 라고 생각하며 기사를 읽어보니 엉뚱한 얘기였다. 김연아 같은 피겨 스케이팅 스타가 되려고 노력하는 신인들을 가리키는 모양인데, 외국인들이 들으면 김연아가 낳은 자녀들로 오해할 것이다.

이 말은 ‘Kim Yuna wannabes(김연아 워나비즈)’ 라고 해야 ‘김연아처럼 되고 싶어하는 아이들’ 이란 뜻으로 영어 원어민들이 알아듣는다. ‘wannabe’ 는 ‘want to be’ 를 한 데 붙이고 ‘워나비’ 라고 발음하는데, ‘무엇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 이란 뜻이다. ‘presidential wannabes’ 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을 가리킨다.

영어 원어민도 모르는 영어 아닌 영어 ‘스펙’ ‘스킨십’ ‘셀카’ 등도 있다. 지난 4월 8일 연세대에서 열린 이른바 ‘인문학 토크 콘서트’ 에서 정용진 신세계 그룹 부회장은 “인문학이 ‘스펙’ 보다 중요하다” 고 말한 바 있다. ‘스펙(spec)’ 은 ‘투기(speculation)’ 의 줄인 말로 원어민들은 알아듣는다.

필자가 한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스펙’ 과 ‘스킨십’ 같은 말을 자주 듣는다. 이런 말이 한국에서 무슨 뜻으로 통하는지 대충 알고 있지만 그게 무슨 뜻이냐고 일부러 물어보면 “영어 중 한다는 당신이 그것도 모르냐” 는 표정을 짓는다.

한국 어느 신문에 ‘돈으로 스펙 사는 부끄러운 세상’ 이란 제목의 사실이 있어 읽어보니 스펙은 사회봉사활동 같은 것을 가리키는 용어 같았다. 또 다른 신문이나 잡지들은 학력, 토익 점수 같은 외국어 능력증서, 각종 자격증, 해외연수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지칭하는 것 같기도 했다.

‘스펙’ 이 분명 우리 말은 아니므로 ‘spec’ 이나 ‘speck’ 일 것이다. ‘spec’ 은 speculation을 줄인 것으로 ‘투기’ 또는 ‘억측’, ‘막연한 기대’ 란 뜻일 뿐이다. 예로 I bought this house on spec.이라 하면 ‘나는 이 집을 투기목적으로 샀다’ 는 뜻이 된다. ‘speck’ 은 아주 작은 점이나 작은 얼룩 같은 것을 뜻하는 단어다. 그러므로 spec이나 speck은 한국에서 쓰는 ‘스펙’ 은 분명 아니다.

그렇다면 한국서 쓰는 ‘스펙’ 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 ‘specs’ 에서 s를 잘라내고 쓴 것일까? 그러나 specs는 specifications(기계의 제원 또는 상세 건축설계도)를 줄인 것으로 한국의 ‘스펙’ 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어떤 신문기자는 ‘월드 스펙’ 이란 말을 만들어 쓰고는 ‘월드 스펙: 해당분야의 실력 뿐만 아니라 영어·매너·패션 감각 등 세계무대에서 경쟁할 모든 요소를 다 갖춘 사람’ 이라는 주석까지 친절하게 달아놓은 걸 보고 웃은 일이 있다.

‘스킨십’ 도 마찬가지다. 한국서 쓰는 그것을 ‘악수·포옹·키스’ 같은 ‘신체적 접촉’ 이란 뜻으로 쓰는 모양이지만 영어에는 ‘skinship’ 이란 단어 자체가 없다. 박 대통령이 야당 당수 시절 한국 어느 신문은 ‘박근혜가 모처럼 밖에 나와 일반 시민들과 ‘스킨십’ 을 했다’ 고 제목을 달았다. 기사를 읽어보니 그 분이 시민들과 악수했다는 얘기였다. 스킨십이란 발음 자체가 느끼한데도 한국서는 남녀 가리지 않고 마구 써댄다.

또 어느 한국 기사는 ‘한국 국가대표 축구팀이 브라질 월드컵에서 김연아 세리머니를 하려다 말았다’ 고 썼다. 김연아가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놓친 데 항의하는 뜻으로 축구대표팀이 어떤 행동을 취했다는 뜻인듯 한데, ‘ceremony’ 는 어떤 예식이나 기념식 같은 것을 주로 뜻할 뿐이다. 축구선수가 골을 넣고 좋아 장난스런 행동을 잠깐 하는 것을 ‘celebration(축하, 자축)’ 이라 하는 것은 들어보았지만 ‘ceremony’ 라고 하는 건 들어본 적이 없다.

한국에서는 또 스마트폰 같은 것으로 자신의 사진 찍는 것을 ‘셀카’ 라고 하지만, 미국에서는 ‘selfie’ 라 한다.

‘리베이트’ 는 이제 ‘뒷돈’ 으로 바뀌고 있어 다행으로 ‘rebate’ 는 필자가 10여년 동안 잔소리(?)한 보람이 있어 한국 언론도 이제는 거의 쓰지 않는 것 같다. 조선일보가 가장 먼저 ‘리베이트(합법적이고 좋은 환불)’ 대신 우리 말 ‘뒷돈’ 을 쓰기 시작했고 다른 언론도 따라가는 추세다.

언론이 리베이트를 잘못 쓰니까 법무부까지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 같은 명칭을 썼다. 합법적이고 좋은 환불 리베이트를 수사하더니, 영어 하는 외국인들이 보면 얼마나 우습겠는가. 더욱 웃기는 것은 국립국어원이 만들었다는 국어대사전도 ‘리베이트’ 를 ‘뇌물성 환불’ 로 정의하고 있다.

‘원샷’ 과 ‘블랙 컨슈머’ 도 원어민과 다른 뜻으로 한국서 쓰고 있다. ‘원샷’ 은 영어로 ‘one shot’ 일 텐데 미국에서는 위스키 같은 비교적 독한 술 ‘한 잔’ 이란 뜻일 뿐이다. 그러나 한국서는 이것이 ‘단순에 술을 들이키는 것’ 을 뜻한다. 그런 뜻의 영어는 ‘chug’ 또는



역사 칼럼

칠지도(七支刀)의 비밀

장수영(공대 57)MD
포항공대 전 총장

일본의 석상신궁(石上神宮)에는 칠지도(七支刀)라는 특이한 칼이 보존돼 있다. 길이 74.9cm인 칠지도는 날이 좌우 3개씩 대칭으로 엇갈려 있어 중심 칼날까지 모두 일곱갈래로 돼 있다. 이 칼을 발견한 사람은 1873년 석상신궁의 궁사(宮司)菅政友(스가마사토모)였다.

“매우 녹슨 칼에 금빛이 약간 보여 녹을 살피시 때어 보니 문자가 나타났다” 고 했다.

칼에는 60여 자의 금상감으로 음각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다.

(앞면)泰()四年五月十六日丙午正陽造百練鍊七支刀世群百兵宜供侯王() () () 作. 대화 4년 5월 16일 병오날 대낮에 무수히 거듭 담금질한 강철로 칠지도를 만들었노라. 모든 군사를 물리칠 수 있도록 후왕에게 보내주노라. () () () () 만듭.

(뒷면)先世以來未有此刀百滋王世子奇生聖音故爲倭王旨造傳() 後世. 선대 이래로 아직 볼 수 없었던 이 칼을 백제왕 및 귀수세자는 성스러운 말씀으로 왜왕을 위해 만들어 주는 것이므로 후세까지 잘 전해서 보존토록 하라.

일본서기(日本書紀) 신공(神功) 52년 9월조에는 “칠지도一口, 七子鏡一面 및 각종 중보를(백제가) 바쳤다” 라는 기사가 있다. 그런데 신공이라는 지배자가 과연 실제 인물이었는지

차 의문이다. 일본서기에 의하면 그는제14대 중애천황(仲哀天皇)의 황후로 중애가 죽은 후 201년부터 269년까지 섭정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중애천황은 구마소를 치려고 하였으나 황후는 금·은·보화가 많이 나는 신라를 쳐야 된다고 주장하였고 중애가 신(神)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아서 갑자기 몸이 아프더니 200년 2월 6일에 봉하였다.

같은 해 10월 신공황후는 신라를 정벌하였는데 “풍신이 바람을 일으키고 해신이 파도를 일으켜 바닷속의 큰 고기들이 다 떠올라 배를 도왔다. 노를 쓸 필요없이 곧 신라에 이르렀다. 신라왕은 흰줄을 목에 감고 스스로를 포박하였다. 지도와 호적을 바치고 왕선 앞에서 항복하였다. 이에 고구려·백제 두 나라의 왕은 신라가 일본국에 항복하였다는 것을 듣고 “금후는 길이 西蕃이 되어 조공을 그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신라에서 돌아온 후 같은 해 12월에 응신천황(應神天皇)을 낳았다. 응신은 270년에 천황이 되어 313년까지 살았으므로 113년을 산 셈이다.

지금은 일본인들도 이와 같이 황당한 이야기를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일본서기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神功 55년(255) 백제의 肖古王이 薨하였다. 신공 56년(256) 백제왕자 貴須가 왕이 되었다. 신공 64년(264) 백제국 귀수왕 熊, 왕자 枕流王 立爲王. 신공 65년

있다.

한국 언론 매체들은 또 영어를 부정확하게 번역해서 쓰기도 한다. 그 한 예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다. 나는 이게 ‘외상’ 을 먹고 나서 빛 값을 걱정 때문에 생기는 스트레스’ 라는 뜻의 농담인 줄 알았더니 ‘post trauma stress disorder(PTSD)’ 를 그렇게 번역한 것이었다. 문제는 ‘trauma’ 를 ‘외상(外傷)’ 으로 번역한 것이다.

trauma는 두 가지 뜻이 있다. 하나는 어떤 끔찍한 일을 당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는 것, 또 하나는 심한 신체적 부상이다. 그런데 PTSD의 trauma는 큰 정신적 충격만 가리킬 때도 있고, 큰 부상과 그로 인한 심한 정신적 충격까지 합친 뜻으로 쓰

(265) 백제 침류왕 熊, 왕자 阿花年少 肅부 辰斯奪立爲王.’

이와 같이 자국의 사건을 기록하지 않고 타국의 왕력을 기록한 경우는 그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여기서 초고왕은 近肖古王(재위 346~375)이며 귀수는 近仇首王(재위375~384)이다.

결국 일본서기의 간지 사망년을 2주갑(120년) 하향 조정하면 양자는 완전히 일치한다. 따라서 응신천황의 즉위 연도는 270년이 아닌 390년이 되며 신공이 죽은 269년부터 390년까지 아무 기록도 없는 것이 되어 일본사는 공백의 4세기가 된다.

명문의 글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는 것임을 누구나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은 백제가 왜왕에게 바친 것이라고 주장한다. 백제왕이 왜왕에게 ‘侯王’ 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왜국에 대한 백제왕의 자존의식의 발로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宜復供侯王” 은 “마땅히 또 후왕에게 줄 만하다” 라는 의미가 될 것이다. 그러나 ‘寄生聖音’ 에 대해서는 기생을 貴須로 비정하는 사람도 있고 聖音에 대해서는 태자에 대한 존칭일 가능성이 있다.

칠지도 명문에 있는 泰()四年은 지금까지 東晉의 太和四年(369)으로 이해해 근초고왕이 왜왕에게 준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渡邊光敏(와타나베미츠토시)·홍윤기·임길채도 369년을 주장한다. 그러나 泰자는 奉자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奉()四年은 무령왕 4년(504)으로 봐야 된다는 연민수의 주장이 있다.

무령왕 4년에 왕자 斯我君을 왜국에 파견한 것으로 일본서기 무열 7년조에 나오고 사아군은 淳陀太子로도 기록되어 있다. 泰()四年이 백제의 연호일 가능성은 북한의 김석형도 주장한 바 있다.

신공이 실존인물이었는지도 의심스럽고 그녀가 신라를 정벌하였다는 것은 전혀 믿을 수 없고 응신천황이 신공의 아들이라는 것도 믿을 수 없다.

개로왕의 아들 곤지왕(昆支王)이 460년 왜국에 도착했을 때 섬에서 태어난 무령왕이 동성왕의 뒤를 이어 501년에 백제 25대 왕이 되었고 무령왕대는 안정적 왕권을 유지하여 문화적 황금기였으므로 백제국의 강력한 왕권을 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칠지도를 왜왕에게 하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일 때도 있다. 한국 언론에 이렇게 영어가 범람하는 것으로 미루어 한국 언론인들이 영어에 능통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불행히도 그렇지 못한 것 같다.

2010년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서 기자회견할 때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 좀 해달라고 애타게 권고했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아 중국 기자가 대신 질문한 치욕적인 장면이 YouTube에 떠돌고 있다.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FPD B9xQ57S0)

꼭 필요한 것 외에는 가급적 우리 말을 쓰라고 권하고 싶다. 우리 말만 쓴다고 무식하다는 소리 듣지 않는다. 그러나 엉터리 영어를 쓰면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게 된다.***

인류학 칼럼

함께 살아남는 길

김병동(농대 62)
서울대 식물생산과학부
명예교수

뉴스위크 1995년 3월 20일자에는 7년간의 국제 미작 연구소장직을 3월 말 은퇴한 Klaus Lampe씨 대담내용을 소개했다. 아시아는 21세기 중반, 즉 약 50년 후에는 현재 세계인구 만큼의 인구를 갖게 돼 이 거대한 인구를 더 적은 땅과 물과 에너지와 농약을 사용해 먹여 살려야 한다는 점이다.

오는 25년간 약 70%의 식량증산을 이뤄야 한다. 지구 인구를 먹여 살리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달과 화성 비행이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과 방글라데시는 식량자급이 되고 있으나 그 상태를 유지하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 21세기 중반에는 그것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량 수출능력을 가진 나라는 미얀마 밖에 없다. 싱가포르·한국·일본 같은 나라는 언제나 쌀을 구입할 수 있으나 매시간 1천200명의 아이들이 굶주림과 이에 관련된 병으로 죽어가는 세계적 현실에서는 식량의 수요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누가 보장할 수 있겠는가.

‘쌀 생산에 가장 중요한 압박요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그는 ‘줄어드는 농경지와 물, 그리고 줄어드는 농민의 복합적 문제’라고.

현대화는 도시화·산업화를 의미했고 우수한 인력을 농촌에서 도시로 유출시켰는데 이것이 농업 발달에 가장 부정적 요소로 작용했다. 농촌에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없으면 어떻게 첨단과학에 근거한 농업기술이 실현될 수 있겠는가. 세계에서 쌀을 주식으로 하는 지역의 거대한 인구에 알맞은 가격으로 쌀을 공급해야 한다는 엄청난 과제를 우리는 안고 있다고 그는 호소한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1989년 출판 이래 장기 베스트 셀러를 유지하고 있는 저자 Stephen R. Covey는 서문에서 다음과 같은 일화를 소개한다.

‘여러 분이 이 책을 읽기 전 내가 세계 각처에서 많은 청중들을 상대로 강의하면서 체험한 것을 한가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청중들에게 눈을 감은 채 옆 사람을 보지 말고 손을 들어 정북향을 지적해 보라고 한 후, 눈을 뜨라고 하면 강당은 예의 없이 웃음바다가 됩니다. 청중들의 팔과 손가락이 사방의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누가 맞는 겁니까 라고 물으면서, 우리들의 차이점을 투표에 의해 결정하되 다수가 맞는 것으로 하자고 제안하면, 청중들은 무슨 이유인지 다시 웃음을 터뜨립니다. 나는 나침반을 꺼내 정북향을 가리켜 보여줍니다. 여러 분들은 정북향을 다수의 의견이나 투표로 결정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와 아무 관계없이 존재하는 사실적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자연법칙이나 원칙들도 마찬가지며, 우리의 이름, 의견, 문화, 노력,

국적, 성별, 인종에 관계없이 우리 속에 존재하며 우리의 삶을 다스립니다. 이 책은 개인이나 조직을 성공적으로 만드는 습관 배양에 관한 내용입니다.’

M. Scott Peck 박사(MD)의 두번째 명저 ‘The Different Drum’은 공동사회 만들기과 세계평화에 관한 책이다. 훌륭한 공동사회를 만들고자 염원하는 구성원들이 모두 읽고 공감대를 형성해 힘을 합치는 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돼 그 책의 서언에 나오는 인상적인 일화를 소개하고자 한다.

옛날 이야기가 있다. 아마도 신화라고 해야 할 것이다. 제목은 ‘람비의 선물’이다. 그 이야기는 아주 어려운 지경에 빠진 한 수도원에 관한 이야기다. 한 때는 위대한 종단이었으나 17세기와 18세기의 반종단주의적 배척과 19세기의 은둔주의의 성행으로 말미암아 모든 지파가 없어지고 쓰러져 가는 본부에는 다섯 승려만 남은 정도로 쇠퇴하였다. 수도원장 한 사람과 네 수도승은 모두 70세를 넘었다. 분명히 죽어가는 종단이었다.

그 수도원을 둘러 싸고 있는 깊은 숲에는 작은 암자가 있었는데, 멀리 않은 도시에서 람비가 이따금씩 찾아와 은둔처로 사용하곤 했다. 오랜 세월동안의 기도과 참선으로 인해 늙은 수도승들은 어느 정도 도가 통해서, 람비가 그 은둔처에 와 있는 것을 언제나 감지할 수 있었다. ‘람비가 숲에 있다’ ‘람비가 숲에 다시 들어 왔다.’ 그들은 서로에게 속삭이곤 했다. 수도원장은 종말이 목전에 임박한 그의 수도원에 관해 고심하던 끝에, 은둔처에 와 있는 람비를 방문하여 혹시나 그 수도원을 살릴 수 있는 충고를 받을 수 없을까 생각하게 되었다.

람비는 오두막에서 그 수도원장을 반가이 맞았다. 그러나 수도원장이 찾아온 이유를 설명하자 람비는 그와 함께 한탄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나도 그게 어떤지 압니다.”

“열성이 들로부터 떠났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유대교 성전에도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늙은 수도원장과 늙은 람비는 함께 울었다. 그리고 그들은 토라 경전의 일부를 읽고 조용히 깊은 얘기들을 나누었다. 수도원장이 떠나야 할 시간이 왔다. 그들은 서로 껴안았다.

“이 긴 세월을 지내고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은 정말 좋았습니다.” 수도원장은 말했다.

“그러나 아직 내가 여기 찾아온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말해 줄 것이 아무 것도 없단 말입니까? 내가 나의 죽어 가는 종단을 살리는데 도움이 될 만한 충고를 한 조각이라도 줄 수 없단 말입니까?”

“미안하지만 없습니다.” 람비는 대답했다. “내가 충고로 드릴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내가 단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구세주는 당신들 중의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논설위원 논단

Brain Network Workshop

윤상래(수의대 62)NE
뉴잉글랜드 동창회 전 회장
미주 동창회 논설위원

지난 1999년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뉴잉글랜드 동창회는 큰 손님들을 치렀다. 한국에서 총동창회 회장단(회장 김재순), 뉴욕에서 당시 오인석 미주 동창회장단(회장 김재순)이 방문해 20여 명의 손님들을 모시고 세미나와 동문들간 간담회를 열었다.

2박 3일간 직접 모시고 다니면서 여러 의견을 교환했는데 김재순 회장께서, “뉴잉글랜드에는 이처럼 훌륭한 동문들이 많은데 왜 Think Tank를 만들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본인이 지역 동창회 회장이 된 후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봉사하면서 Think Tank를 위해 여러 번 시도했으나 지역 동창회로서는 많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실현을 보지 못했다. 그뒤 2007년 뉴욕에서 있었던 평의원회의를 마치고 일요일 임광수 총동창회장 및 송순영 당시 차기 회장과 함께 한 초찬 자리에서 Think Tank에 대해 간단한 토론을 했는데 ‘미국에서 활동하는 우리 동문들의 견해와 지식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좋은

일’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송순영 회장이 2년 후 취임하시고 이듬해인 2010년 9월 LA에서 ‘한반도 에 관련된 문제를 주제로’로 Brain Network을 위한 첫번째 workshop을 갖게 되었다. 그후 김은중 회장도 2012년 9월 22일 역시 LA에서 한반도 전문가를 초청, workshop을 가졌다.

미주 동창회의 Brain Network 활동은 동창회 사업 중 가장 목적이 뚜렷하고 명분있는 활동일 수 있다. 그래서 본인은 작년 6월 22일 평의원 회의시 미주 동창회의 Brain Network 활동 강화를 역설한 바 있으며, 정치적인 문제를 다루는 한반도 통일의 주제를 세계 안목의 중심인 워싱턴 DC에서 전문가들을 초대해 open forum conference를 갖고 이를 동포사회와 한국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금년들어 박근혜 대통령을 위시해 통일 대박론이 많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통일의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을 정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는 ‘통일로 가는 길’이 그만큼 어려움을 명시하는 것이다. 통일은 하루 아침에 이뤄지는 일이 아니며 또 반드시 남북한 국민이 함께 원해야만 가능하다. 우리 미주 동창회

가 이러한 때 역사적인 사명감을 갖고 재미 동포와 남북한 국민들에게 ‘통일 의식’을 주지시키는 당연한 일이며 대한민국의 장래로 자타가 공인하는 서울대 졸업생으로 좋은 일일 것이다.

워싱턴 DC에는 전 세계 외국 공관들이 있고 외교관들이 주재하고 있는 곳이다. 또 많은 Think Tank가 있어 전문가 물색이 쉽다. 이러한 conference를 통해 우리 국민의 ‘통일 의지’가 남북 7천500만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면 통일은 그만큼 더 가까워질 수 있으며 ‘통일 대박’의 현실화가 가능할 것이다.

우리의 Brain Network 활동은 생명공학·전자공학·의학 등을 망라한 과학기술과 경제문제를 포함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는 범위가 매우 광범하므로 반드시 서울대와 함께 해야 될 줄로 믿는다. 이러한 과학·경제 등의 conference는 미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계 정상급의 우리 동문들을 대거 참여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미주 동창회는 모교의 글로벌화를 도울 수 있고, 나아가 지식 정보의 교환으로 조국 대한민국의 경제·기술 발전을 더 촉진시킬 수 있으리라 본다.

미주 동창회의 Brain Network 활동이 시작됐으니 우리는 이런 활동의 민발침을 더 넓고 단단하게 굳혀 동문들이 자부심을 갖는 동창회로 발전시켜야 하며 우리에게 이를 위한 여건과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고 믿는다.***

수도원장이 수도원에 돌아 오자 동료 승려들이 그의 둘레에 모여 물어 보았다.

“그래서, 그 람비가 무슨 말을 하던가요?”

“그도 도와 줄 수가 없었소.” 수도원장이 대답했다.

“우리는 그냥 울었고, 토라 경전을 함께 읽었소. 단지 그가 내가 떠날 때 말한 것은 -그것은 좀 암시적인 것이었소 - 구세주는 우리들 중의 한 사람이라는 것이었소. 나는 그가 무엇을 뜻했는지 모르겠소.”

날이 가고 주일이 가고, 달이 지나면서 늙은 승려들은 이것을 숙고했고, 람비의 말에 어찌면 깊은 뜻이 있는지 생각했다.

구세주가 우리들 중의 한 사람이라고? 그는 과연 여기 이 수도원의 우리 승려들 중의 한 사람을 의미했을까? 만일 그렇다면, 누구일까? 그는 우리 수도원장을 두고 한 말일까? 그래, 만일 그가 어떤 사람을 지목한 것이라면 분명 수도원장 신부이었을 것이다. 그는 30년 이상 우리의 지도자였다.

다른 한 편, 그는 토마스 형제를 뜻했을까도 모른다. 분명 토마스 형제는 성스러운 사람이야. 누구든지 토마스는 광명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분명 그는 엘레드 형제를 의미했을 것이야! 엘레드는 가끔 고집불통이야. 그러나 생각해 보면, 그가 사람 눈에 가시같지만 잘 돌이켜 보면 알레드는 사실 언제나 옳았어. 많은 경우 너무나 옳았어. 아마 람비는 엘레드 형제를 의미했을 수 있어. 그러나 분명 필립을 지칭하는 것이야. 필립은 너무나 수동적이고 정말 아무도 아니야. 그러나 한편, 정말 신비스럽게도 그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용

케도 항상 그 자리에 있어 주는 천부적 재능이 있지. 그는 정말 마술처럼 곁에 나타나지. 아마도 필립이 그 구세주일 거야. 물론 그 람비는 나를 의미한 것은 아니야. 그가 나를 의미했을 리 없어.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그러나 만일 그가 그랬다면? 내가 바로 그 구세주라면? 오 하느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당신에게 그런 자격이 못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명상을 하면서, 늙은 승려들은 그들 중 한 사람이 구세주일 지도 모른다는 실낱같은 가능성 때문에 서로를 각별한 존경심으로 대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만에, 만에 하나라도 승려 각자는 자기가 구세주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자기 자신들을 각별한 존경심으로 대하기 시작하였다.

그 수도원이 위치한 숲은 아름다웠으므로 아직도 가끔씩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작은 잔디밭에서 소풍을 하고, 주변 산책로를 따라 걷기도 하였으며, 아주 드물게는 황폐해진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명상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는 동안 부지불식간에, 그들은 다섯 승려들을 이제 감싸기 시작하고 그들로부터 발산되어 그곳 대기에 스며드는 듯한 각별한 존경심의 성스러운 기운을 감지하기 시작하였다. 거기에는 이상하게도 매력적이고 제압적이기까지 한 그 무엇이 있었다. 무엇 때문인지도 모르는 채 그들은 소풍하고, 놀고, 기도하기 위하여 더욱 자주 그 수도원에 찾아오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친구들에게 이 특별한 장소를 보여주려고 데려 왔다. 그리고 친구들은 그들의 친구들을 데려 왔다. 그렇게 되자, 그

수도원에 찾아온 젊은 사람들 중 몇몇은 늙은 승려들과 점점 더 많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자 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가 하고 물었다. 그러자 다른 사람도.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 그래서 여러 해가 지나서 그 수도원은 다시 한번 번화모니 교향악단이 되었고, 그 람비의 선물 덕분에, 그 지역에서 광명과 정신의 활기찬 중심지가 되었다.

바로 며칠 전, 나는 어느 독자의 호의로 신이 내려 준 목소리의 주인공이라는 조수미와 런던 필하모닉 교향악단의 음악회를 세종회관에서 관람할 수 있었다. 정말 그녀의 노래가 끝날 때마다 사람들은 열광적으로 박수갈채를 했고, 여러 차례 그녀는 감동적으로 앙코르에 응해 주었다. 누가 시키는 것도 물론 아닌데,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쉬지 않고 박수쳤다.

나도 손바닥이 아프도록 열심히 박수쳤다. 교향악단원 94명이 서로 다른 각자의 악기로 서로 다른 음률을 열심히 연주했고, 지휘자 피스트의 춤추는 지휘봉에 따라 때로는 박진감 넘치게, 때로는 우아하게, 때로는 흥겹게, 조화로운 음악이 만들어 지고 있었다. 청중은 도취해서 열심히 박수로 응답했다.

음악을 들으면서, 나는 문득 생각했다. 우리의 농업생명과학대학이 100여 명 교수들로 이루어진 교향악단이라면 어떤 음악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청중은 얼마나 큰 열광과 환호로 화답해 줄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분명 최고의 단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훌륭한 지휘에 맞춰 불후의 명곡을 유감없이 연주해 낼 능력이 있지 않은가.***

미주 동문단체 및 동문동정(일부 중앙·한국일보 인용)

안호영(외교 75) 주미 대사

뉴저지서 한·미 양국 현안 토론회

한·미 동맹 강화 위해 한국인 전용비자 신설 적극 지지" 외교 수뇌부 한 자리에 모여 '동반자 법안' 통과 협력 다짐

“이제는 한·미 양국 인제 교류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지난 5월 12일 뉴저지주 잉글우드(KCC(한인동포회관)에서 안호영 주미 한국대사, 성 김 주한 미국대사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연방상원 외교위원장은 한·미 양국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손을 맞잡았다.

한·미 양국의 대사들과 미 상원 외교위원장이 한 자리에 모이는 기회는 흔치 않은 일로 이날 토론회는 평일 낮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150여 명의 한인·타민족들이 찾는 등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메넨데즈 의원의 제안으로 지난 4월 한국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서 안 대사와 김 대사 메넨데즈 의원 등은 한·미 양국 동맹 강화와 교류 확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 신설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혀 주목을 받았다.

안호영 대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양국간 교역 확대를 이끌어냈다”며 “FTA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인적 교류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 한국



인 전문직 종사자에게 연간 1만5천개의 취업비자를 발급하자는 ‘한국과 동반자 법안(H.R. 1812)’ 시행은 이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김 대사로 “양국 발전을 위해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신설을 적극 지지한다”고 같은 목소리를 냈다.

메넨데즈 의원은 한국말로 “이

제 함께 갑시다”라고 말한 뒤 “한국은 미국과 아시아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존재”라며 “양국 동맹 강화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뉴저지주의 발전에 핵심적인 요소”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법안이 연방하원에서 통과돼 상원으로 오게 되면 지지할 것”이라면서 “이와 함께 현재 연방

←안호영 주미 한국대사(오른쪽)와 성 김 주한 미국대사(왼쪽)가 로버트 메넨데즈 연방상원 외교위원장(민주·뉴저지·가운데)과 함께 12일 뉴저지주 잉글우드의 KCC(한인동포회관)에서 한·미 동맹 강화와 경제·안보 등 주요 현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행사에 앞서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양국의 우호 증진을 다짐하고 있다.

의회에서 추진 중인 포괄적 이민 개혁안의 통과를 한인사회를 한층 발전시킬 것이다. 한인들의 관심과 지지가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1992년부터 시작된 한미경제연구소(KEI) 주최 ‘한·미 대사와의 대화(Ambassadors' Dialogue)’의 일환으로 열린 것이다.

안 대사와 김 대사는 13일 오전 11시 30분 맨해튼 코리아소사이어티에서 또 한 차례 대담을 가졌다. ***

최금락(무역 76) 청와대 전 홍보수석

스탠포드 아태연구소서 강연회

스탠포드대 쇼렌스타인 아태연구소(APARC) 주최로 최금락(무역 76)청와대 전 홍보수석 강연회가 지난 5월 2일(금) 열렸다.

현재 스탠포드대 초청으로 2013-2014 APARC 펠로우(Fellow) 자격으로 스탠포드대에 와 있는 최 전 수석은 이날 엔시나홀 필리핀스 컨퍼런스 룸에서 ‘저널리즘과 한국의 민주주의: 대통령 임기 첫째 징크스(Journalism and Democracy in Korea: The First Year Presidential Jinx)’를 타이틀로 강연했다.

그는 강연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 임기 1년이 막 지난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맞이해야 할 상황, 한미 저널리즘 비교,



한국의 저널리즘 개혁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최금락 전 홍보수석은 모교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SBS 보도본부 본부장, SBS 방송지원본부 본부장,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등을 역임한 언론인이다.***

강도호(외교 81) 워싱턴 DC 총영사

위기관리 및 서비스강화 다짐

“동포위한 위기관리 시스템 개정” 평상시 민원서비스도 강화

“세월호 참사로 정부와 온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이같은 위기가 동포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위기관리 시스템과 메뉴얼을 재점검하겠습니다.”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제 총영사 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온 강도호(외교 81) 워싱턴 DC 총영사는 5월 5일 언론 간담회에서 안전과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를 교훈으로 외교부 차원에서 재외동포를 위한 위기관리 시스템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계획이며 문제가 생길 경우 신속 초동대처를 위해 시뮬레이션 훈련도 진행한다”고 말했다.

또한 평상시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5월부터 민원 업무시간을 오전 9시 30분에서 9시로 앞당겼다. 이미 실행하고 있는 점심당직 근무와 로비에 배치된 도우미를 통한 민원업무 돕기도 더 공을 들이기로 했다.

강 총영사는 오는 9월 열리는



제1회 주미 대사배 코리아 태권도 대회와 관련, “대한 태권도협회 등 관계자들을 만나 협조를 요청했다. 태권도를 통해 한국문화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적극 후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대회를 주최하는 재미 대한태권도협회 측이 대회장으로 DC에 있는 조지워싱턴대 체육관을 1만 달러에 예약했다”며 “태권도인들의 요청으로 성사된 이번 대회에 더욱 많은 사범님들과 수련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 문호를 활짝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



김현명(사대 75) LA 신임 총영사

LA 로즈데일 공원묘지 참배

“한인사회의 화합과 행복을 전하는 총영사가 되겠습니다.”

김현명(사대 75) 신임 LA총영사가 지난 5월 18일 오전 로즈데일 공원묘지를 방문, 애국선열을 참배하는 것을 시작으로 공식업무를 시작했다.

김 총영사는 하루 전(17일) LA에 도착, 영사 보고를 받았다. 김 총영사는 공원묘지 방문 후 LA한인회관에 마련된 분향소에 둘러 진도 여객선 침몰 희생자들

을 추모했다. 이후 총영사관에서 첫 기자회견에서 김 총영사는 “해외에서 가장 많은 한인들이 살고 있는, 영향력이 큰 지역에 부임해 기쁘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느낀다”며 “앞으로 한 두 달 정도 지켜보면서 개선할 점을 파악하고 연구해 해결책을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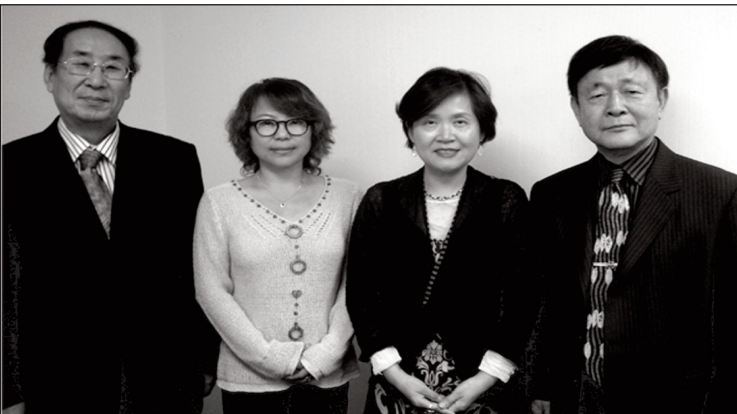
그동안 제기됐던 공관 민원 서비스 부진에 대해서는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 행정 요원을

←김현명 LA 신임 총영사(가운데)가 지난 5월 18일 오전 로즈데일 묘지를 찾아 도산 안창호 선생의 큰 아들 필립 안(왼쪽), 서정일 대한인 국민회 기념재단 이사장과 함께 애국 선열을 추모하고 있다.

늘리기는 당장은 어렵다.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글렌데일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싼 한·일 커뮤니티간 논쟁에 대해서는 “총영사관이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또 한미동포재단 등 문제가 되고 있는 한인단체에 대해서는 담당영사와 협의,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LA총영사가 3번째 해외 공관장이라고 밝힌 김 총영사는 “57만 한인 모두를 만날 순 없지만 임기 동안 많은 사람과 만나 한인사회 현안을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영사는 모교 사대 불어 교육과를 졸업하고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교관이 된 후 뉴욕 총영사관 부총영사, 일본 후쿠오카 총영사, 주이라크 대사를 거쳐 지난 3월 12일 LA총영사로 임명됐다.***



CA에서 활동 중인 김승엽(음대 68) 동문

‘원 코리아 하모니 합창단’ 지휘자로

캘리포니아에서 활동 중인 김승엽(음대 68·사진 맨 왼쪽) 동문이 지난 5월 캘리포니아에서 창단된 ‘원 코리아 하모니

합창단(단장 김광수)’ 상임 지휘자로 선정됐다.

‘원 코리아 하모니 합창단’은 노래를 사랑하고 조국의 평화통

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알려져 있다.

김광수 단장은 “음악으로 한반도 평화에 기여함과 함께 미주 한인사회의 문화 발전과 사회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이며 유명 음악인들을 초청해 통일을 염원하는 음악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액션 포 원 코리아’ 홍보위원으로 합창단 창단준비를 이끈 마리아 문 후원회장은 “아름다운 화음을 통해 한국의 자랑스러운 문화를 선양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것이 합창단의 취지로 체제와 이념의 장벽을 뛰어넘어 합창으로써 남과 북이 하나 되는 하모니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원 코리아 하모니 합창단은 30여명의 단원들이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북음원합감리교회에서 정기모임을 갖고 있다.***



‘신이 내린 목소리’ 소프라노 조수미(음대 81) 동문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서 자선공연

공연 출연료를 한국의 불우 어린
이들 위해 donation

‘신이 내린 목소리’의 주인공 소프라노 조수미 동문이 지난 4월 1일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에서 무료 공연을 가졌다.

‘조수미, 희망을 노래하다’를 타이틀로 열린 이날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는 2000여 석의 본당 좌

석이 꽉 들어차 음향과 동영상 시설을 갖춘 제2 예배실과 은혜 채플 등도 공개, 공연을 볼 수 있게 했다. 이날 공연에는 한인들 외에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과 소방관 등 커뮤니티 봉사자들도 대거 초대됐다.

교회 관계자는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과 소방관 등 커뮤니티 봉사자들과 한인 등이 모두 2000

↑조수미(오른쪽) 동문이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공연장에서 열창하고 있다.

여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뉴욕 클래식 플레이어스(NYCP) 챔버 오케스트라가 주최한 이번 공연에서 조수미는 요한 스트라우스의 ‘봄의 소리’와 ‘가고파’ ‘꽃 구름 속에’ 등 유명 오페라와 한국 가곡, 뮤지컬, 성가곡 등을 들려주었다.

조수미 동문은 거액의 공연 출연료를 한국의 불우한 어린이들을 위해 모두 기부하기로 해 주위를 더욱 훈훈하게 했다.***

←원 미랑(왼쪽) 동문이 ‘de Saisset Museum’ 큐레이터 Lindsey Kouvaris씨와 자리를 함께 하고 있다.

해, 완성 작품은 그것과 완전 다른, 비단같이 곱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게되는 승화랄까, 터프하고 날카로운 망을 예술 작업을 통해 아름답게 변신해가는 과정은 마치 인생을 닮은 것 같다고 한다.

“주어진 여러 조건을 극복하고 변화시켜서 나름대로 조화(harmony)랄까, 숨겨진 아름다움을 창조해가는 과정은 마치 불꽃을 따라 하나 하나 자유롭게 선을 붓으로 화선지에 글을 써내려 가는 것 같다. 밑 바닥 그림도 없이, 손이 가는 대로, 불꽃이 가는 대로, 마음을 비우고 태워 가면, 나름대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는 데 이는 ‘자유와 해방’ 그 자체”라고 작가는 말하고 있다.

‘fire Script(불로 쓴 글)’이라 명명한 원 동문의 이번 전시회 준비 기간은 5~6개월. 그동안 디 셰이셋 미술관 공간에 맞게 새로운 작품들을 다수 첨가하였다.

14점의 철망 작품이 하나의 설치 작품으로 구성되는 등 작품수는 적으나 넓은 미술관의 공간을 활용, 8자 높이 8자 넓이의 대작들을 여러점 보이게 된다.

원 동문은 1973년 파리의 뱅생 꽃공원에서 첫 초대전을 연 이후 파리 현대 미술관, 그랑 팔레 등에서 그룹전을 열었고, 뉴욕을 비롯, San Francisco의 여러 artfair, Triton Museum, San Francisco Asian Art Museum, Pacific Heritage Museum등등에서 전시회를 연 바 있다.

▶기간 : 4월10일 ~ 6월15일(화일, 11am ~ 4pm)

▶장소 : de Saisset Museum Santa Clara University(500 El Camino Real, Santa Clara, CA)

▶전화 (650)464-4829, (408)554-4528 www.scu.edu/desaissset. ***



중견 화가 원미랑(미대 65) 동문

Santa Clara Univ.에서 전시회

‘de Saisset Museum’서 펼쳐지는 중견작가의 ‘fire Script’ 4월 10 ~ 6월 15일까지

중견작가 원미랑(미대 65) 동문은 공격적이고 실험적인 예술을 추구한다. 1983년, 베이지역에 동지를 둔 뒤 추구해 온 작품세계는 변화의 연속이며 나비로 부화하려는 노력이었다.

모교 미대를 나와 프랑스 솔본느를 졸업하고 귀국, 모교 서울대에서 잠시 교편을 잡았지만 운명은 넓은 신대륙에서의 삶..., 새로운 예술적 도전이었다.

뉴욕을 거쳐 베이 지역에 도착, 캘리포니아의 강렬한 태양이 맘에 들어 정착을 결심했지만 예술가로서의 그녀의 삶은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니었다. 인생 속에서..., 자연 속에서..., 시간 속에서, 빛 속에서 자신과 예술과의 싸움을 계속해 왔지만 예술은 어떤 절대자와의 만남처럼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비상의 날개..., 나비의 꿈이었다.

그녀가 강철망의 재료로 선택하여 불로 태우는 작업을 시작한

것은 다소 승화의 요소를 담고 있다. 강하면서 잘 굽혀지지 않는 터프한 재료를 써서 열을 가하는 작업은 마치 다듬어지지 않는 야생의 돌을 다듬듯 불확실한 삶과 미래를 개척해보려는 도전 정신이기도 했다. 이렇게 완성된 그녀의 작품은 언뜻 비단폭 처럼 부드럽지만 그 속에 꿈틀거리는 강렬함과 불꽃의 환영은 예술가의 삶이 얼마나 치열해야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베이 지역에서 여러 차례 전시회를 열어온 바 있는 그녀였지만 이번 전시회가 주는 의미는 남다르다. 작년 가을 산타클라라 대학의 ‘디 셰이셋 미술관’에 들렀을 때 분위기와 넓은 공간이 무척 맘에 들었다.

CD에 작품들의 이미지를 담아 보냈는데 반응이 의외로 빨라, 그동안 꿈꾸어 왔던 작품세계를 마음껏 펼쳐 보일 수 있는 행운을 잡게 되었다.

그녀는 이번 전시회에 대해 장자의 ‘호접몽’을 얘기한다. 강철망이란 재료를 사용하여 그것을 용접 토치로태우는 과정을 통

이혜민(미대 88) 동문 ‘텐리화랑’ 전시회



“소외된 것들의 재탄생”

일상에서 쉽게 버려지는 재료를 베개로 만들어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조각가 이혜민 동문.

지난 4월 11일 맨하탄 텐리 화랑(43A W. 13th St.)에서 전시 오프닝 리셉션을 연 이 동문은 “무시되고 소외되는 재료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재탄생시켜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는 작업”이라

며 작품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옷가게에서 버려진 천과 헌 이불, 한지, 과

자 봉지, 플라스틱 비닐백 등을 모아 만든 베개 10여점이 전시됐다. 특히 7미터 천장에 베개를 쌓아 올린 작품은 하나하나의 하찮은 존재지만 이들을 합치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는 ‘희망’을 나타내고 있다.

이 동문은 “우리가 매일 베개자는 베개는 우리를 위로해주기도 하고 사랑을 주기도 하며 매일 꿈꾸게 해준다. 손바닥 반만한 베개지만 이들이 모이면 매일 매일의 꿈이 이어가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울 초 청담동 ‘EM’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성공적으로 마친데 힘입어 이번 뉴욕 전시회를 열게 됐다는 이 작가는 “10년 전 문득 할머니와 함께 살면서 덮었던 이불과 시집갈 때 덮으라고 주신 이불 등을 어머니 마음을 간직하고 싶은 마음에 버리지 않고 한 땀 한 땀 바느질로 베개를 만들기 시작했다.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또 지금은 자식 낳아 기르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동문은 모교 미대 조소과를 졸업, 뉴욕대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모교 서울대에

알 재단 비주얼 아트 공모 수상작가

임장순(미대 96) 동문 NY 알재단에 등지



주했던 지역으로 특히 노만 락크웰(Norman Rockwell)이 17세였던 1913년부터 25년간 살았던 곳으로 유명하다. 최근 들어 뉴로셸시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연중 다양한 아트 페스티벌을 개최하며, 다운타운 빌딩에 아티스트를 유치하는데 힘을 쓰고 있다.

임장순 동문의 스튜디오가 위치한 2 Division St.의 3층짜리 빌딩은 한인 L씨 소유로, 20여 개의 스튜디오가 있다. 이 빌딩은 한 때 노만 락크웰의 작업실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다. L씨는 현재 약 1천달러 정도의 임대료 가치가 있는 스튜디오 스페이스를 알 재단에 도네이션, 한인 예술가들을 후원하고 있다.

모교 미대에서 동양화를 전공한 임 동문은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에서 드로잉과 페인팅으로 석사 학위 후, 휴스턴 미술관에서 2년간의 코어 프로그램, 뉴욕 CUNY 수학, 네브라스카 레지던시 등 다수의 수상 경력을 가진 석학 아티스트다. ***

뉴로셸(New Rochelle) 다운타운 한 가운데의 상가 건물에, 알재단(회장 이숙녀)에서 제공하고 있는 아트 스튜디오가 마련되어 있다. 현재 이곳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는 임장순 동문으로 알재단의 2013년 ‘컨템포러리 비주얼 아트’ 공모 수상 작가다.

맨하탄에서 기차로 30분 정도 떨어져 있는 뉴로셸은 역사적으로 일러스트레이터들이 많이 거

유수자(미대 63) 동문 서양화작품전

LA 한국문화원에서 3월14~22일

서양화가이며 조각가인 유수자(MD 베데스다 거주) 동문이 LA 한국문화원에서 열리는 ‘소나무작가협회’ 그룹전에 참가했다.

지난 3월 13일 개막돼 22일까지 계속된 작품전은 프랑스 파리, 워싱턴, 뉴욕, LA에서 활동 중인 소나무회 회원 20인 전으로 마련됐다.

유수자 동문은 휴양지 켄쿤의 햇살을 만끽하는 은퇴 부부의 모

습을 담은 ‘비 개인 오후’, 다정한 모녀의 모습을 담은 ‘케이트 & 조’ 등 4점의 근작 오일페인팅을 선보였다.

모교 미대 조소과를 나온 유 동문은 70년 도미, 타우슨대 미술대학원 졸업 후 조각과 서양화를 아우르는 폭넓은 작품세계를 구축하며 다수의 개인전과 그룹전에 참가했다.

4월 뉴욕 켈시 그룹전에 이어 올 가을 파리 개인전도 예정돼 있다.***



재미 한인 과학기술자협회(회장 이명중·공대 72)

국제 수학 · 과학 경시대회 개최

지난 4월 12일 미국·캐나다·싱가폴·오스트리아 등에서 동시 개최

재미 한인과학기술자 협회(KSEA, 회장 이명중·공대 72)가 주최하는 제13회 수학·과학 경시대회가 지난 4월 12일 일제히 실시됐다.

올해는 참가자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캐나다·싱가폴·오스트리아 협회와 공동으로 ‘국제수학과과학경시대회(International Math & Science Competition)’를 개최했다.

4~1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경시대회는 KSEA지부

소재 37개 미주 지역을 비롯해 캐나다·싱가폴·오스트리아 등에서 동시 실시된 경시대회 문제 및 실험과제는 KSEA경시대회 위원회에서 출제해 각 국에 동일하게 배포됐다.

시험과목은 수학·과학, 그리고 고등학생 대상 물리이며 수학 경시대회의 경우 응용 영역에서 25문제가 출제(4~8학년 50분, 9~11학년 75분), 고교생 대상의 물리 경시대회는 12문항에 75분이 주어졌다.

수학경시대회의 기출문제 샘플은 www.ksea.org/nmsc에서 학년별로 확인할 수 있다.

과학 경시대회는 개인 또는 2~3명이 팀을 구성해 현장에서 주어진 실험과제를 제작해야 한다. 과학의 경우 경시대회라는 기존 개념에서 탈피해 과학의 유용성과 재미를 참가 학생들로 하여금 심어주기 위해 경쟁위주의 대회가 아닌 팀워크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과학의 세계에 매료될 수 있는 흥미로운 주제들로 설정됐다.

특히 일상생활 관련 문제를 통해 학생들의 과학적 사고능력 및 창의력, 그리고 개척적인 문제 해결능력을 평가했다.

재미과학기술 경시대회 위원회는 대회후 각 학년별로 지부별 수상자 및 전국 수상자, 그리고 4개국 전체 응시자 가운데 선발된 국제경시대회 수상자를 일제히 발표해 시상할 예정이다.***



워싱턴 가정 상담소 창립 40년

미주 동창회 한정민(농대 87·사진 왼쪽에서 두번째) 총무국장이 전문 상담사로 재직 중인 워싱턴 가정상담소(이사장 정인숙)가 지난 5월 3일 버지니아 Tyson's Corner에서 창립 40주년 기념모금 만찬을 개최했다.

정인숙 이사장과 이연옥 부이사장은 이날 “상담소의 특성상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원이 한정돼 있어 경기 불황과 함께 정부 등 지원금이 줄어드는 타격을 입었다”며 “이중언어와 문화 차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부부, 가정을 돕는 일에 애정 어린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정민 상담사와 송은희 상담사도 “사회가 발달할수록 정신 건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

만, 이민자들은 이 부분에서 소외되기 십상”이라며 “가정상담소가 한인사회에서 꼭 필요한 ‘치유의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안호영(외교 75) 주미 한국대사 부인인 이선희 여사는 명예 이사장에 추대됐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행사를 앞두고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강옥형, 안인옥 이사과 ‘어플라이드 데이터 시스템’의 이경희 사장이 각각 1만 달러의 후원금을 가정상담소에 전달했다.

플로이드 파운데이션은 매년 1천달러, 주리 파운데이션은 5천달러씩 10년여째 후원하고 있다. 문의: 703-761-2225 ***

윤태자(미대 62)동문 LA에서 전시회

캘리포니아서 만난 미술 동지들, 이 미정·Meredith Gossland씨 등과 “교차로”를 타이틀로 3인전

윤태자(미대 62) 동문이 이미정씨, Meredith Gossland씨와 3인전을 가졌다. 지난 5월 6일부터 24일까지 LA 놀워의 킬주얼 아트센터 매리 팩슨 아트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가진 윤태자 동문은 두 화가와 Cerritos College에서 함께 그림을 공부하는 미술 동지들로 이같은 전시회를 열었다.

전시활동을 해오며 예적 감각을 놓치지 않고 젊음의 에너지 충격을 위해 서로 격려하고 아이디어를 나누는 친구 사이이다.

전시회 제목은 ‘교차로(Intersections)’. 서로 문화와 철학, 삶의 방향은 다르지만 교차로에서 만나듯 공통의 감각과 느낌, 사고와 가치로 만나 미술이라는 장을 함께 펼치겠다는 의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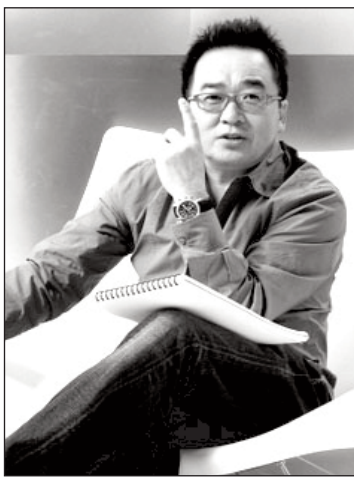
“모교 미대를 졸업하고 미국에



와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단 한순간도 미술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는 윤태자 동문은 “예술에서 나이가 든다는 것은 힘”이라고 설명한다. 또 “그동안의 모든 염원을 화폭에 표현해 보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고 있다”며 “삶의 연륜이 쌓일수록 창조적이 된다”고 풀이한다. ***

김영세(미대 70) 이노디자인 대표

‘서울포럼 2014’서 창조분야강연



“디자인이 새 부가가치 창출 역설... 발상 전환 히트상품 국제상 석권

“창조경제의 핵심 원동력은 디자인입니다.”

김영세(미대 70·사진) 이노 디

자인 대표가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서울포럼 2014’의 세션1 창조 분야에서 ‘디자인 우선주의에서 디자인 중심주의로’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산업화 시대 디자인은 제품의 외양을 꾸미는 마무리 수준으로 여겨졌으나 지금은 새로운 제품이나 기획의 시작점으로 모든 과정에 관여한다. 김 대표가 주창한 ‘디자인 우선주의(Design First)’다. 제품이 디자인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이 수요를 창출하고 유도하며 없던 제품까지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그가 “디자인을 알면 창조경제가 보인다. 창조하려면 불편한 것을 참지 말라”고 강조하는 이유다.

김 대표가 말하는 디자인은 ‘상술(商術)’이 아닌 ‘인술(人術)’이다. 팔기 위해 현혹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사랑과 나눔 정신을 담아 감동과 행복을 전하는 게 디자인의 근본 정신이라는 것. 그래서 “나의 디자인의 세 가지 키워드는 생활, 문화, 공간으로 중심에는 사람이 있으며 그들 모두를 연결하는 고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달고 다닌다.

‘디자이너’를 재정의해 예쁘고 보기 좋은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상상력으로 미래의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사람’이며 디자이너를 포함한 창의적 인재를 “무(無)에서 유(有)를 만들고 이를 통해 부(富)를 창출하는 ‘창조경제’ 종사자”라며 상상을 실현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에서 ‘Imagineer’로 명명했다.

특히 그는 애플의 스티브 잡스, 구글의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 유튜브의 스티브 첸,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 같이 미래를 창조한 혁신가들의 공통점이 정해진 성공의 틀에서 벗어난 괴짜, 이단아, 아웃사이더였음을 주목했다. 이들처럼 미래가 원하는 창의적인 신인류를 “생산직 블루칼라와 사무직 화이트칼라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즐기며 창조하는 퍼플칼라 노동자”라고 규정해 ‘Purple People’론을 폈다.

모교 산업디자인학과 졸업 후 일리노이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30대 초반에 일리노이 대학 산업디자인학 교수를 역임한 김 대표는 1986년 한국인 최초로 미국 실리컨밸리에 이노디자인을 설립하고 창조경제의 신화를 이뤘다. 삼성전자 애니콜의 가로본능 휴대폰을 비롯해 아이리버의 목걸이형 MP3플레이어, 라네즈의 슬라이딩 콤팩트 등이 그의 ‘발상의 전환’에서 탄생한 작품이자 히트상품들이다.

‘디자인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IDEA(국제디자인우수상)에서 금·은·동 모두를 석권하는 진기록을 세우며 ‘디자인계의 구루’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지난 1999년 이노디자인 한국지사 설립했고, 최근에는 사세를 중국과 일본으로까지 확장했다.

이노디자인은 2009년 6월 일본 ‘닛케이BP’가 뽑은 ‘세계 10대 디자인회사’에 선정될 만큼 전 세계에서 그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김 대표는 올해 독일 IF디자인어워드에서 이노웨이브의 헤드폰으로 디자인상을 받은 것을 비롯해 홈플러스의 PB상품, 국립중앙박물관 나들길, 고양시 공공임대주택거 ‘피프틴’ 등 산업디자인과 공공디자인 부문을 두루 넘나들며 세계적인 디자인상을 휩쓸고 있다.***



장예진(사대 94)동문 장타상

‘제25회 중앙일보 동창회 골프대회’에서 322야드 날려

장예진(사대 94·왼쪽) 동문이 지난 5월 21일 캘리포니아의 인

더스트리시 퍼시픽 팜스 리조트 골프장(아이젠하워 코스, 파 72)에서 열린 ‘2014년 제25회 중앙일보 동창회 골프 챔피언십’에서 장타상을 받았다. 장예진 동문은 이날 18번 홀에서 322야드를 날려 이같은 상을 받았다.

동문의 우애와 단합을 다지고 모교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해마다 열리는 이 골프대회에는 남가주 서울대 동창회를 비롯해 총 36개 동창회 팀이 출전했는데 올해는 경기고 동창회 팀이 처음 우승했다.

남가주 서울대 동창회 팀은 과거 1998년 우승, 2011년엔 준우승, 2012년 3등을 차지한 저력 있어 있다.***



샌디에고 동창회

강동원 위원장 자택에서 ‘동창회 활성화추진위원회’ 개최

샌디에고 동창회(회장 최홍수·자연대 87)가 동문회 활성화 추진위원회(동활위)의 5월 행사로 60~70년대 학번 모임 + 동문 친목 모임을 지난 5월 3일(토) 강동원(수의대 75) 동활위 위원장택에서 실시했다.

이날 비교적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총 50명의 많은 동문 및 동문의 가족들이 참석해주었다.

이번에 오랫동안 동문회 행사에 나와 주신 이동해(의대 55)·이은경(음대 57) 원로동문, 손창욱 동문과 함께 동문회 행사에 처음 나와 주신 이상우 동문(공대 65·Gerry Lee), 성혜승 동문(사회대 99) 대신 어렵게 참석해주신 위인숙(자연대 71·성혜승 동문 모친) 동문께 감사드린다.

강동원 위원장께서 마스터 플랜으로 오랫동안 준비하신 Backyard로 이동했는데 우선 눈에 띄는 것이 탁 트인 전경이었다. 왼쪽으로 San Marcos와 오른쪽으로 Carlsbad가 보이고 중간에 Vista가 한 눈에 들어오며 멀리 Pacific Ocean이 보일 만큼 전망이 최고로 좋은 위치였다. 50명 이상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과 의

자, 멋진 야외 오디오 시스템, 뒤쪽으로 Campfire 장소, 안쪽으로 테니스 코트(안에 골프 스윙 연습장 및 사격 연습장), 위쪽에 수영장까지 큰 파티에 손색없을 만큼 좋은 시설을 갖추어 참석한 많은 동문들이 부러워했다.

그리고, 상추·고추·오이 등 각종 야채밭과 포도·복숭아 나무 등 과실수까지 있어 정말 부지런하게 큰 집을 관리하고 계셨다.

스테이크, 돼지고기 바비큐에 강 위원장께서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파전, 각종 반찬 등 50여 명이 충분히 먹고도 남은 음식으로 동문과 가족들이 여유있게 토요일 오후를 보낼 수 있었다.

이날 일찍 오셔서 과일, 부침개 등 많은 pre-dinner happy hour 준비를 해주신 전현직 임원진 가족(김지연·진승희·서은정·주지민 동문 등), 비지땀을 흘리며 맛있게 바비큐를 구워주신 서정용 전 회장(공대 81) 및 김종우 총무(공대 94)에게 감사를 드린다.

맛있는 음식에 동문회에서 준비해간 와인·과일·음료수를 즐기면서 동문들끼리 동창회를 위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이번



↑(윗 사진)샌디에고 동창회 동문들이 ‘동창회 활성화 추진위원회’ 강동원(수의대 75) 위원장 자택에서 모여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강 위원장 자택은 왼쪽으로 San Marcos, 오른쪽으로 Carlsbad, 중간에 Vista가 한 눈에 들어오며, 멀리서는 Pacific Ocean이 보일 만큼 전망이 최고로 좋은 위치였다.

행사를 위해 서정용 전 회장(공대 81)과 김주성 부회장(농대 83)이 와인 테스팅을 하고 구입해온 양질의 와인이 여러 음식들의 맛을 더욱 돋구었다. 식사가 끝나고, 필자가 그동안의 동문회 행사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고 6월 7일 Castle Creek에서 실시할 골프대회 및 2014년 남은 행사에 대한 홍보 및 소개가 있었다.

이어 UCSD정치학 교수인 유종성(사회대 75)동문의 저서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출판 기념회 안내가 있었다. 유종성 동문은 5월 5일 오후 2시 UCSD Faculty Club에서 자신의 저서 ‘민주주의, 부패와 불평등: 한국·대만·필리핀 비교연구 (Democracy, Inequality and Corruption: Korea, Taiwan and the Philippines Compared)’에 대해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다음에 강동원 위원장이 제안한 다음과 같은 내용들에 대해 참석한 동문들이 한 명씩 이야기하는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자신 소개(입학 및 졸업연도, 전공, 가족, 직업, 앞으로 희망, 소원 등 ▶노래나 joke 하나 ▶자신의 묘비명에 남기고 싶은 말 ▶후배나 선배에게 하고 싶은 말 등. 이것은 예전에 강동원 위원장이

동문회 회장 재직시 박성민 동문(의대 58)이 제안한 내용으로 강 위원장이 먼저 자신을 소개하고, 이어 참석한 동문들이 이 순서로 자신을 소개, 분위기를 한결 고조시키면서도 동문끼리 더 잘 알 수 있었던 아주 좋은 기회였다.

여성 동문위원회 김향자 위원장(약대 61)은 노래나 joke 대신 특별히 준비한 북 공연으로 모임의 흥을 더 돋구었다.

1부가 끝나고 대부분의 동문들이 떠난 후 9시 경부터 강동원 위원장, 서정용 전 회장(공대 81), 김주성 부회장(농대 83), 최홍수 회장, 임용갑 동문(공대 84) 및 이재현 동문(수의대 76) 등이 남은 와인과 옥수수·고구마 등을 먹으면서 뮤지컬 영화를 보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또 테니스 코트에서 사격 연습도 하면서 깊어가는 토요일 밤을 즐겼고, 11시반 경 이날의 파티를 마무리했다. 동문들을 위해 너무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강동원 동활위 위원장께 이 지면을 빌어 동문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모임 도중 좋은 사진들을 촬영해준 심상철 전 회장(공대 81) 및 김주성 부회장께도 감사드린다. 바

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이번 모임에 참석해주신 동문들 및 가족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샌디에고 동창회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이날 참석해주신 동문들은 다음과 같다.

김병목(의대 49)·정현식(공대 54·정유미)·이동해(의대 55)·이은경(음대 57)·박우선(공대 57·정해주)·박성민(의대 58·박효정)·손명세(공대 60·김미리(음대 64)·민영기(치대 61·Connie Min)·김향자(약대 61)·이문상(공대 62·김순귀)·손창욱(공대 65·손정혜)·이상우(공대 65·Gerry Lee)·백우현(공대 67·이광희·백혜미)·위인숙(자연대 71·성혜승(사회대 99) 동문 모친)·강동원(수의대 75·강교완)·유종성(사회대 75)·이재현(수의대 76·이은희)·서정용(공대 81·김지연)·심상철(공대 81·심미리·심준영)·김주성(농대 83·진승희·김기현)·임용갑(공대 84)·윤종태(공대 84·강선미·윤주원)·최홍수(자연대 87·서은정·최혜나)·김종우(공대 94·주지민·김나윤)·김도겸(공대 01·김근분·김재중)***

<글 = 동문회 임원진 최홍수(회장)·김주성(부회장)·김종우(총무)>





뉴욕 동창회

2014 장학기금 모금 골프대회

뉴욕 동창회(회장 박상원·음대 69)가 지난 5월 14일 Wallkill Golf Club에서 장학기금 모금 골프대회를 가졌다.

동창회내 장학기금 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동창회 골프대회에는 46명의 동문이 참석하여, 오전 11시부터 Shotgun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골프대회에 참가한 동문들은 이날 아주 맑은 날씨와 더불어 즐거운 하루를 함께 보내었으며, The Fountains에서 저녁식사와 더불어 진행된 시상식에는 많은 골든클럽 회원이 수상자가 되었다.

이날 골프대회에서 입상한 동문

은 다음과 같다.

▶Medalist = 손영철 ▶남자 1등 = 서정웅 ▶3등 = 정인식 ▶여자 1등 = 홍예경 ▶2등 = 조승자 ▶3등 = 손정자 ▶근접상 = 김창수, 방석운, 이세영, 임도혁

다음은 이번 장학기금 모금 춘계 골프대회에 참가한 단과대별 동문들이다.
<공대>김광수·김영덕·김정필·손영철(2)·이준행(2)·임도혁·임호순·정도현·진봉일·천병수·홍종만(2) <농대> 손경택·이전구 <문리대(인문)·자연대·사회대> 이대영·장동만 <법대> 송학린 <사대> 고애자·김종율(2)·조달훈(2) <상대(경영대)>김영만·정인식·최수



↑(윗사진)장학기금 모금 골프대회에 참가한 동문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기념사진을 촬영했다.아랫사진은 골든클럽 이준행 회장(공대 48)이 골프대회 시상식 후 인사말을 하는 장면이다.

용 <약대> 고은숙·김문경·김창수·배상규·서정웅·선우치민(2)·

성기로(2)·이용대·최구진(2) <의대> 노용면·방석운·한태진 <대학

원> 송웅길·황현조 동문.***
<글·사진 = 김원영(미대 81)>



뉴욕 골든클럽

Blue Hill G.C. 서 춘계 골프대회

뉴욕 골든클럽(회장 이준행·공대48)이 2014년 첫 춘계 골프대회를 지난 4월 10일, Blue Hill Golf Course에서 개최했다.

이날 골프대회는 회원과 가족

등 모두 32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거행되었다.

유난히도 춥고 지루했던 겨울이 지나 갔건만 이 날은 아직 쌀쌀한 찬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

였고 오후가 되어서야 따듯한 봄 날씨를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다소 이른 듯한 골프대회였지만, 32명의 회원이 참가하여 각자 나름대로 연마한 기량을 겨루었다.

부드러운 스윙은 막대기로 자치기 하듯이 굳어져 가고, 세월의

흐름은 어쩔 수 없듯 현실에 순응해 가면서도, 많은 선수가 좋은 성적을 발휘하여 토너먼트의 면목을 유지하였다.

경기가 끝난 후, 참석한 동문들은 고바우 식당에서 시상식과 더불어 저녁식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는 이준행 회장이



↑ 동문 부인들이 필드에서 찰칵

인사말을 전한 뒤 이날 생일을 맞은 진봉일·최철용 회원을 위한 축하 순서가 있었다.

이어 작년도 우수 골퍼였던 김영덕·김광현·박대규·손정자 동문 회원에 대한 상금 수여식이 있었다.

다음은 이날 골프대회 입상 동문들이다.

▶Medalist = 손경택·조달훈 ▶1등 = 한태진 ▶2등 = 최철용 ▶3등 = 한경수 ▶4등 = 손경택·조달훈 ▶근접상 = 김광현·홍종만.***

<글·사진 = 김원영(미대 81)>



남가주 동창회

↑남가주 동창회 임원들이 지난 5월 10일부터 팔라 리조트 호텔에서 1박 2일간 임원 수련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했다. 임원들은 앞으로 남가주 동창회 주최로 열릴 행사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라나는 꿈나무 후원행사 참여

동창회 차원에서 과학/수학 경시대회 적극 지원 활동 펴

지난 4월 12일 Claremont에 위치한 Harvey Mudd College에서는 재미 과학기술자협회(KSEA·회장 이명중 교수·공대 72) 주최로 'Math·Science·Physics 경시대회'가 열려 남가주 동창회(회장 이서희·법대 70)는 동창회 차원에서 이 행사를 적극 지원했다. 이 경시대회는 재미 과학기술자협회가 매년 주최하는 경시대회

로 남가주에서 열리는 이같은 대회에서는 남가주 동창회가 동창회 차원에서 후원해오고 있다.

이날 남가주에서 열린 이 경시대회에는 27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했고, 학부모들까지 합하면 500여 명이 몰린 큰 행사였다.

재미 과학기술자 협회에는 동문들이 임원진과 회원으로 많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대회 행사장에는 필자(이서희 동창회장)와 김창신(사회과학대 75) 총무국장, 그리고 안혜정 동문(생활과

학대 78·재미 여성과학기술자협회 회장)이 참여했다. 특히 안혜정 동문은 이날 사회를 맡아 열심히 봉사하였다.

4학년에서 11학년까지 학생들이 열심히 참여해 실력을 겨루는 것을 보면서 남가주 동창회에서 이 대회를 후원하는 데 대해 큰 보람을 느꼈다. 따라서 동창회의 사회봉사적 측면과도 부합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도 많은 동문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는 바다.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가 매년 차세대 과학기술자 양성을 위해 개최하는 올해의 수학·과학 경시

대회는 지난 4월 12일 뉴욕주 버팔로 사이언스 홀과 뉴저지주 러거스대 과학엔지니어링 리소스센터(SERC) 펜실베이니아주 영생장 로교회에서 각각 열렸다.

협회는 제13회 경시대회를 캐나다·오스트리아·싱가폴 과학기술자협회와 공동 개최해 '국제 수학·과학 경시대회'로 하고 실시 지역을 국제적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올 경시대회는 KSEA 지부 소재 미주 37개 지역을 비롯해 캐나다·오스트리아·싱가폴 주요 지역에서 같은 날 동시에 진행됐다.

4~1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수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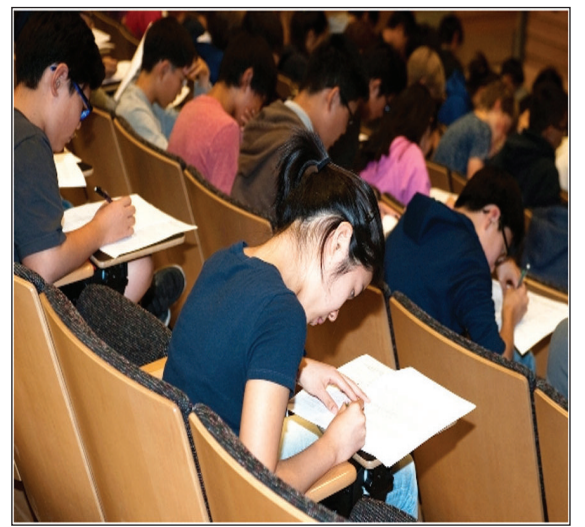
경시대회는 응용 영역에서 25문제, 시간은 4~8학년 50분 9~11학년에게는 75분이 주어진다. 과학 경시대회는 4~11학년 학생들이 개인 또는 2~3명이 팀을 구성해 실험 과제를 제작해 제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남가주 동창회는 지난 5월 10일부터 1박 2일간 팔라 리조트 호텔에서 회장단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 수련회를 가졌다. 이날 수련회는 남가주 동창회 주최로 개최할 골프대회, 할리우드 보물 행사, 지역 클럽 행사에 대해서 토의했다.***

<이서희(법대 70)동창회장>



↑남가주 동창회 이서희 회장(왼쪽)이 입상자들에게 시상하고 있다. →(위 왼쪽사진)이서희 회장(왼쪽 2번째)과 안혜정 동문(맨 오른쪽)이 과학기술자협회 인사들과 자리를 함께 했다. 위 오른쪽 사진은 열심히 문제를 풀고 있는 수학·과학 경시대회 참가 학생들 모습. 아래 사진은 이날 경시대회가 열린 Harvey Mudd College 강당이 응시생들로 가득찬 장면.





북가주 동창회

Alemara Falls 지역 봄 산행

북가주 동창회(회장 이장우·문리대 72)가 올해들어 첫 봄 산행을 지난 4월 26일 다녀 왔다.

Point Reyes National Seashore Monument 남쪽에 위치한 바다로 떨어지는 (Tidefall) Alemara Falls의 코스인데 왕복 8.6마일로 60여 명의 회원과 가족이 무사히 다녀 온 것이다.

대부분의 회원들은 현지로부터 비교적 거리가 멀어서 산호세에서 출발하여 오클랜드·샌프란시스코에서 동문들을 태운 대절 버스로 현지에 도착했고 일부는 Car pool로 모였다.

이날 동문들 모두는 지난 4월 16일부터 시작된 너무나도 참담한 고국 남해에서의 세월호 침몰 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을 실시했다. 그리고 동창회가 제공한 김밥·빵·음료수로 이른 점심을 해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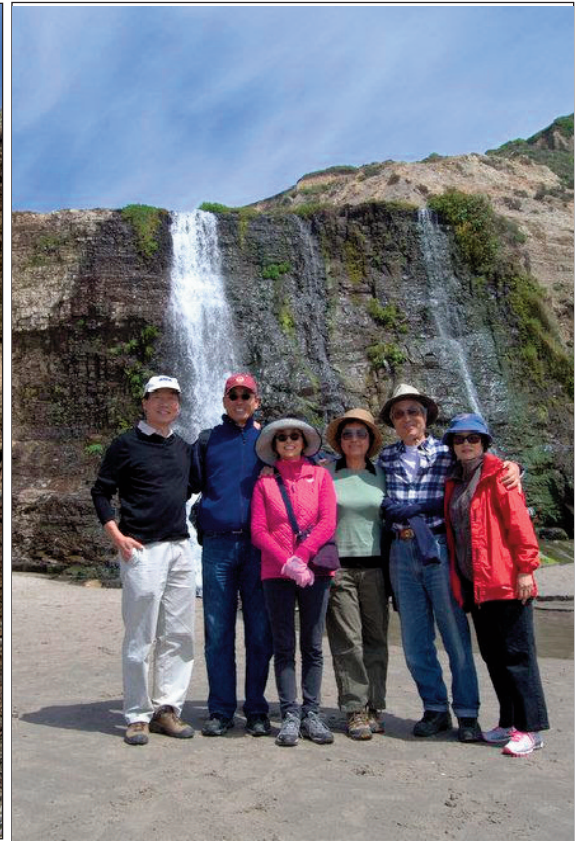
이어 이장우 회장의 인솔하에 시원한 태평양 해안선을 따라 삼

삼오오 짝을 지어 환담 등으로 우의를 다지고 봄 기운을 만끽하며 본격적인 산행을 시작했다. 도중 아름다운 삼단폭포를 배경으로 동문들과 가족들은 추억에 길이 남을 기념사진들을 촬영했다. 행사를 시작하기 전 날 비가 온 것과는 사뭇 다른 청명한 날씨가 산행의 가는 길을 한 층 더 가볍게 했다.

정국희 총무는 “비가 온 후 선선한 날씨 속에 진행된 이번 산행에서 동문들이 건강도 챙기고 걸속을 다졌다”며 “오는 8월 열리는 하계 야유회에도 동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산행 후엔 와인의 고장 나파에 사는 정대현(공대 53) 동문이 가져온 포도주를 곁들여 중국 음식으로 포식하며 동문 모두는 우리 동창회가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글·사진 = 홍경삼(문리대 61) 북가주 동창회 이사장>



↑ 마지막 코스가 험난하다. 손과 발을 다 동원해서 오르 내린다. 금년 가뭄이기도 하지만 4월 말 경이라 폭포의 떨어지는 물의 양이 그다지 많지가 않다. 높이는 40 ft에 이르며 바다로 직접 떨어지는 폭포를 ‘Tidefall’ 이라고 하는데 이곳과 Big sur 아래 Julia Pfeiffer state park에는 정말 아름다운 ‘McWay Falls’ 가 있다.



‘폐쟁이 4인방’의 휴식

이 날 ‘폐쟁이 4인방(?)’ 이 산행을 하다가 너무 힘이 들자 한 사람이, “여기서 앉아서 좀 쉬자.” “이 사람이 쉬자고 하면 쉬어야 돼.”

“난 좀 쉬자고 하는 사람이 제일 좋더라.” “허기사 서울대 출신 남편들하고 사시니 모두들 폐쟁이가 되지.”

<홍경삼(문리대 61) 이사장>



정대현 동문 행사 때마다 포도주 두 상자

동문회 행사 때마다 포도주 Two Boxes(24병)를 기증하시는 정대현(공대 53) 동문 부부. 세월호 침몰 희생자를 추모하는 노란 리본을 달고 오셨다. “동문들이 산행할 때 난 집에

서 감명 깊은 영화를 보았는데 시간 내서 꼭들 보세요” “무슨 영화인데요?” “Rhapsody” 순간적으로 나는 중학 시절 ‘녹원의 천사’를 보고 당시

내 마음을 사로잡은 엘리자베스가 떠오르고...

바이올린을 신들린 듯 연주하던 빅토리오 카스만, 그리고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콘서트 #2가 내 귀에 환청으로 들리고 있었다.

피니스트로 나온 배우 이름은 지금 당장은 생각이 나지 않지만 멀때 같은 녀석 얼굴은 한 장면으로 떠오른다.

귀가 도중에 생각이 났는데 바이올린 곡은 차이코프스키 곡이 아니고 멘델스존의 콘서트 2번이었다.

‘Rhapsody’는 1958년 고1 때 본 것인데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지만 요즘 한 두달 전 것은 기억이 가물거린다.

생전에 작곡가보다도 피아노 연주가로 더 이름을 날렸던 Sergei Rachmaninoff가 자신이 작곡한 piano concerto # 2를 1929년 (당시 57세)연주한다.***

<홍경삼(문리대 61) 이사장>



워싱턴주 동창회 Senior Club

‘독일인 마을 축제’에서 1박2일

워싱턴주 동창회 Senior Club(회장 김재훈·공대 72)이 5월 봄맞이 행사로 독일 마을 Leavenworth City의 5월 축제 (May Festival)에 참가하는 1박 2일 일정의 Trip을 실시했다.

지난 5월 10일 토요일 오전 8시 30분 경 24명의 참가자들이 4명씩 Carpool로 각 팀별 Carpool 장소에서 출발했다.

우리 일행은 오전 11시 경 Leavenworth Bavarian Lodge에 도착하여 Leavenworth Bavarian Lodge 앞에서 단체 촬영을 했다.

이후 모든 일행이 도착하고 10여분 쯤 후 독일 소시지 Hot Dog과 맥주로 점심을 대신했다.

식사를 마친 후 팀별로 May Festival Parade 구경을 하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길 양쪽으로

즐비한 다양한 선물가게들을 둘러보는 등 쇼핑을 즐기면서 맑게 개인 5월의 낮시간을 만끽했다.

오후 5시 30분 경 모든 팀들이 단체 저녁식사를 위해 예약해놓은 장소인 Visconti's Restaurant에 모여 Italian 음식으로 즐겁게 저녁식사를 하였다.

저녁 식사 후는 호텔 Conference room에 모여 김인배(수의대 59) 전 회장의 Talk Show에 이어 필자(김재훈)의 아내가 마련한 Blind Wine Tasting을 하면서 자유토론과 대화의 시간을 rkwtmssep 밤 9시 30분 경까지 계속됐다.

이튿날인 5월 11일 일요일 오전



↑ 지난 5월 10일 독일인 마을로 유명한 Leavenworth City에 도착한 동문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10시 전 호텔에서 제공한 아침식사를 마친 후 11시경 출발하여 워싱턴주 사과 산지로 유명한 Cashmere의 Liberty Orchards

Aplets & Cotlets 캔디 공장을 방문하고, Apple Annie Antique Gallery 구경을 한 다음 시애틀

로 돌아오는 1박 2일의 여정을 모두 마쳤다.***

<글·사진=김재훈(공대 72)회장>



Senior Club은

↑ 독일인 마을에서 독일인 축제에 대한 세미나가 진행 중이다.

워싱턴주 동창회 Senior Club은 40년대 학번에서 90년대 학번까지 동문 회원간 끈끈한 결속력을 바탕으로 친목은 물론 Local Community를 위해 자원 봉사에 앞장서는 모범적인 모임으로 잘 알려져 있다.

꾸준히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Senior Club은 동창회 산하 친목 모임 중 하나로 매월 정기적으로 주어진 주제(Topical subject)에 대해 세미나 형식으로 의견을 나누고, 편안하게 대화를 하는 월례 모임을 가지고 있다. 이 세미나는 지난 2009년 2월 첫 모임을 가진 이래 5년이 지나고 이제 6년째 접

어들고 있다. 이 모임은 장석주(의대 47), 이회백(의대 55), 김인배(수의대 59) 선배님들의 지도하에 필자(김재훈 공대 72), 임현민(공대 84) 동문이 실무를 맡아서 진행하고 있다.

이 모임에서는 매월 20여 명의 동문 부부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주제(문학, 역사, 경제, 첨단과 학기술, 음악, 여행, 생활정보 등)에 대하여 초청연사의 강의에 이어 질의 응답을 통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어서 가벼운 점심 식사와 더불어 동문들의 소식이나 노변 정담을 나누며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글 = 김재훈(공대 72)회장>



휴스턴 동창회

김태훈 동문 Crawfish Boil 제공

휴스턴 동창회(회장 이호성·공대 72)가 김태훈(공대 57) 동문이 초대해 제공하는 Crawfish Boil 행사를 지난 4월 19일 토요일 Orange TX에 위치한 Claiborne West Park에서 가졌다.

이날의 행사에 참가한 동문들은 직접 공원으로 가기도 하고, 한편으로 자택과 거리가 먼 지역의 동문들은 휴스턴에서 미니밴을 카풀로 주선해 함께 타고 공원으로 향하기도 했다.

휴스턴에서 미니밴 카풀로 떠나기로 약속한 동문들은 오전 9시 반 경 휴스턴에서 모여, 10시 10분 경 휴스턴을 출발해 12시 경 공원에 도착하였다.

이날 동창회 부회장 최인섭(공대 75) 동문께서 직접 운전을 담당해 수고해주어 이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성공적으로 치러진 작년 행사에 이어 두번째로 치러진 올해 행사에는 모두 54명의 휴스턴 지역 동문들과 가족들이 참여하여, 12시부터 오후 4시반까지는 공원에

서 푸짐하고 맛있는 Crawfish로 점심 식사를 하였다.

점심 식사 후 동문 각자 소개에 이어 여흥시간으로 공나르기, 줄넘기 등의 즐거운 게임의 시간을 가졌다. 동문들의 각자 자기 소개와 그동안의 삶을 나누는 시간은 재미는 물론 모처럼 선후배간의 우의를 더욱 돈독하게 하는 값진 시간이 되었다.

오후 4시반 경 Orange에 위치한 Robert Restaurant으로 자리를 이동하여, 저녁으로 맛있는 Steak를 즐겼다.

Robert's Steak House는 이 지역의 명소 중 한 곳인데 역시 김태훈 동문의 대접으로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며, 동문회의 계획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값진 자리가 되었다.

저녁식사 후에는 김태훈 동문께서 본인이 13년 동안 공을 들이고 있는 새 한인 교회 건축 현장에 초대해 주시어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을 둘러 보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김태훈 동문이 지난 해 3월에 이어 마련한 Crawfish Boil 행사에 참가한 휴스턴 동창회 동문들이 '휴스턴 동창회!'를 열호하고 있다. →동문들이 Crawfish 식사에 한창이다.

김태훈 동문은 지난 해에도 Crawfish Boil 행사를 주선해주셨다. 지난 해에는 화창한 봄을 맞아 3월 30일 김태훈 동문이 자택으로 동문들을 초대해 'Open House & SNU Crawfish Boil' 모임을 가진 것이다.

김태훈 동문은 지난 해에도 300 파운드나 되는 Crawfish를 정성껏 준비해 대접하였다.

그 날은 점심식사 후 부활절을 맞아 준비한 Easter Egg Hunt, Crawfish 빨리먹기, 네트에 공넣기, 공차며 릴레이, 공으로 제기차기 등을 함께하며 유쾌한 시간을 가진 바 있다.***

<사진 = 김철성(공대 67)
글 = 김건호(공대 91)>

→ 동문들이 식사 후 여흥 시간에 공나르기 게임을 즐기고 있다.

↓김태훈 동문이 지난 13년간 신축을 위해 힘써 온 한인 침례교회 건물 앞에서 참가 동문들 중 일부가 기념 촬영을 했다.



Crawfish

Crawfish는 주로 민물에서 서식하는 갑각류로 한국의 '가재'에 가장 가깝다. 일반적으로 체장 8~10cm까지 자라는데 시냇물이나 호수에 살며, 바위 밑이나 통나무 밑 등에 숨어 있다가 야간에 많이 활동한다.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Crawfish의 인기가 대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시시피 주의 모 대학에서는 전교생이 크로피시를 먹는 축제가 연중 행사로 열리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Crawfish의 본 고향은 역시 루이지애나 주라고 한다. 특히 루이지애나 주립대학이 있는 Baton Rouge 근처의 개울과 호수 지대는 북미주에서 가장



유명한 Crawfish 산지로 유명한 곳으로 생산량이 연간 5천톤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루이지애나주는 1983년 7월 Crawfish를 주의 '공식 갑각류(state crustacean)'로 지정하는 법안을 승인했다고 한다.

Crawfish는 특히 부활절 휴일 기간 동안 많이 섭취해 이 기간 가장 많은 판매고를 올리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

<글과 사진 인터넷에서 발췌>



관악세대/Acro광장

노아가 아라랏산으로 간 까닭

민경훈(법대 78) CA
미주 한국일보 논설위원
미주 동창회보 논설위원

인류가 낳은 최초의 문학 작품은 무엇일까.

지금부터 약 4천500년 전 쓰여진 ‘길가메시’ 일 것이다. 메소포타미아의 도시 국가 우투의 전설적인 왕 길가메시의 일생을 그린 이 이야기는 그의 절친 엔키두와의 만남, 두 사람이 겪는 모험담 등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담고 있다.

그 중 눈길을 끄는 것은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현자 우트나피시탐과의 만남이다.

길가메시는 우트나피시탐에게 영생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조르지만 그는 영생은 오직 신에게만 가능하다며 꿈을 포기하라고 달랜다. 그러면서 강 밀바닥에 있는 약초를 먹으면 다시 젊어질 수 있다고 알려준다.

길가메시는 강 밀까지 내려가 이 약초를 캐는 데는 성공하지만 그가 잠든 새 뱀에게 빼앗기고 만다. 결국 그는 영생을 포기하고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간다. 에덴 동산에서 살던 아담과 이브가 뱀 때문에 영생을 잃은 것을 연상시킨다.

그러나 이보다 더 성경과 닮은 것은 우트나피시탐의 홍수 이야기이다. 의인인 그가 신으로부터 홍수 경보를 미리 받고 배를 만들어 가족과 동물들을 싣고 살아나며 물이 빠졌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비둘기를 날려 보낸다는 대목까지 똑같다. 다수 전문가들은 성경의 노아 이야기가 길가메시 이야기가 토대로 한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노아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노아는 모든 인류의 조상인 셈이다. 지금도 노아의 방주와 대홍수의 증거를 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처음 고고학자들이 주목한 곳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이었다. 창세기 첫 마디에 나오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곳이고 주기적으로 홍수가 일어난 곳이 때문이다. 과연 우르를 비롯한 고대 유적지를 파헤쳐 본 결과 대규모 홍수의 흔적이 발견됐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세계가 물에 잠겼다고 믿기는 힘든 정도였다.

그래서 나온 것이 흑해 가설이다. 2만 년 전 빙하시대가 절정에 이른 후 지구의 기온은 계속 상승했다. 당연히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녹았고 이에 따라 해수면은 더 올라왔다.

전문가들은 2만년 전 해수면은 지금보다 140m나 더 낮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해수면이 점진적으로 상승할 경우에는 인간에게 큰 위협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내륙으로 조금씩 이동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원 전 5600년 재난이 일어났다. 바닷물이 늘어나면서 지중해를 막고 있던 보스포러스 해협이 넘친 것이다.

그 때문에 그 전까지 호수이던 흑해는 바다가 됐고 이 해협을



통해 300일 동안 나이가가라 폭포의 2배에 달하는 물이 흘러들었다.

흑해 주변에서 농사를 짓고 살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세상의 종말처럼 보였을지 모른다. 성경이 노아의 방주가 정착한 곳을 중동 지역이 아니라 흑해 인근 터키의 아라랏 산으로 명시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성경은 또 노아를 첫 포도주 제조자로 묘사하고 있는데 포도주가 처음 만들어진 곳도 흑해 연안이다.

그건 그렇다 치고 과연 노아와 대홍수는 어느 정도 사실이었을까.

전문가들은 목재로 성경이 묘사한 크기의 배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목재의 강도가 배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당시에 남극에 사는 펭귄과 아프리카 열대 우림에 사는 침팬지를 비롯한 수백만 종에 달하는 동물들을 모두 데려와서 한 배에 모아 태운다는 것도 믿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아주 오랜 옛날 지구 온난화로 바닷물이 불어나며 일어났던 대홍수의 기억이 세월이 흘러 각색돼 노아 이야기로 발전했다고 보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최근 나온 영화 ‘노아’가 종교단체들의 심한 반발을 받고 있다. 성경에 나온 노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다.

회교권에서는 선지자 노아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줬다는 이유로 아예 상영을 금지한 곳도 있다.

물론 영화에는 성경에 없는 괴물도 나오고 노아의 모습도 의롭기보다는 다소 난폭하게 나오지만 영화는 어디까지나 영화일 뿐이다.

감독 대런 아로노프스키는 이 영화를 통해 인간이 계속 환경을 파괴하면 노아의 대홍수 때처럼 종말이 올 것이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다.

천지창조부터 노아 때까지 우주 역사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보여주는 장면도 볼만 하다.

영화 ‘노아’를 보며 노아가 현대인에 주는 메시지를 한 번 짚은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건강의학 칼럼

가수 최현과 ‘식도암’

차민영(의대 76) CA
미주 동창회보 논설위원

몇 년 전 한국의 유명가수 최현이 불과 64세에 식도암으로 유명을 달리 했다. ‘오동일’, ‘가을비 우산 속’ 등 많은 히트곡으로 감명을 남겼는데, 일찍 유명을 달리해 안타깝다. 그에 관한 기사는 식도암을 늦게 발견해 힘들게 투병하다 사망했다.

원래 한국인들은 위암이 많기 때문에 40세가 되면 별 증세가 없더라도 1년에 한 번씩 꼭 위내시경을 해야 한다. 위내시경을 정기적으로 하다 보면 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식도와 십이지장도 같이 보게 되는데 이때 식도염과 식도암도 발견하게 된다. 필자는 최현이 정기적으로 위내시경을 했는지, 마지막으로 위내시경을 한 것은 언제인지 궁금했으나 그 기사는 없었다.

식도(Esophagus)는 입에서 시작해 위까지 이어지는 관(Tube)처럼 생긴 기관이다. 여기에 암이 생기면 음식을 삼키기 힘들거나 삼킨 음식이 식도 중간에 걸려 가슴이 답답해지는 등 어려움을 겪는다. 처음에는 딱딱한 고형음식이 걸리지만 시간이 갈수록 식도가 좁아지면 유동식을 넘기기도 어렵고 마지막에는 물을 삼켜 위로 보낼 수도 없다. 그렇게 되면 음식을 먹으면 구토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얼핏 생각해보면 식도

가 가는 관 같은 구조이므로 암 초기부터 증세가 있을 것 같지만, 식도는 탄력있는 고무관 같은 구조라 초기에는 아무런 증세를 못 느끼는 수가 허다하다. 그러므로 최현의 경우와 같이 증세가 있어 위내시경을 해보면 벌써 3~4기인 수가 대부분이다.

식도암은 한국에서 해마다 9천여 명 정도가 걸린다. 위암의 10분의 1에 불과하지만 일단 걸리면 사망률은 높은 편이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미 늦게 발견되기 때문이다. 식도암은 생기면 쉽게 바깥쪽으로 자라는데 위 조직과는 다르게 바깥을 싸고 있는 장막(serosa)이 없으므로 쉽게 기관지와 폐로 암이 퍼져 나간다. 그러므로 발견했을 때, 이미 수술로 완치하기가 힘든 법이다. 또 식도벽과 그주위에는 림프관과 혈관이 풍부하므로, 암이 진행된 상태에서는 암세포가 림프액이나 혈액의 흐름을 타고 림프절이나 폐, 간, 뼈, 뇌 등의 장기로 빨리 퍼지게 된다.

그러면 식도암의 증세는 어떤가. 음식물이 막히는 느낌, 구역질, 식도가 파ضم거림, 위산역류, 흉통과 등의 통증, 목이 썸, 등이 있는데 앞에서 말한 대로 아주 초기는 거의 증세가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란다.

식도암의 정확한 진단은 꼭 위내시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Barium swallow라고 부르는 식도조영술(X-ray의 일종)은 진행된

식도암을 찾을 수 있으나, 초기 발견은 어렵다. 또 진행된 식도암을 찾았다 해도 다시 위내시경을 해 조직검사로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인 초음파로는 식도암을 알 수 없다. Endoscopic ultrasound라 부르는 초음파 내시경은 식도암의 깊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다. CT나 MRI는 진행된 암과 주변 장기의 관계를 보기 위해 중요한 검사법이다.

식도암의 병기는 0기에서부터 4기(말기)까지 5단계로 나뉜다. 치료는 외과요법, 방사선요법, 화학요법(항암제 치료)이 있다. 외과요법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가장 근치술이나 진행이 심한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또 식도를 잘라내면 모자라는 부위를 인조 플라스틱 관으로 이을 수 없는 노릇이므로 소장이나 대장을 10~20cm정도 잘라 이어준다. 즉 대수술이 되는 것이다. 다행히 만약, 위에 가까운 부위에 식도암이 생겼다면, 위를 끌어올려서 식도를 자른 부위에 이어주기도 한다. 그리고 항암요법과 방사선 요법을 병행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식도암은 조기암을 빼고 5년 이상 사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무서운 식도암은 흡연, 과음, 위 식도 역류병이 3대 원인이다. 또, 뜨거운 음식이나 음료를 오랫동안 많이 먹게 되면 반복된 화상을 일으켜 변형된 세포에서 암을 발생시킬 수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40세가 지나서는 증세가 없더라도 1년에 한번씩 위내시경을 해서 위암과 식도암을 초기에 발견해 완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

아르헨티나에서 만난 맨발

노재원(인문대 82) CH
시카고 중앙일보 편집국장

1994년 초 아르헨티나의 ‘마르 델 플라타’라는 곳에 갔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남쪽으로 400km 가량 떨어진 대서양 해변 유명 관광지다.

당시 한국의 한 프로 축구팀이 그 곳에서 전지훈련을 하고 있었다. 이 소식을 들은 스무살 안팎의 지역 청년 10여 명이 입단 테스트를 받기 위해 먼 길을 달려왔다.

행색은 초라했다. 제대로 된 유니폼은 커녕 대부분 슬리퍼와 헤진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한 두 명은 맨발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내심 축구 강국 아르헨티나의 숨은 진주를 기대했던 감독은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다. 탐탁지 않은 표정을 짓던 그는 “테스트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돌려보내라”고 했다.

“프로선수가 되고 싶어 10시간 이상 버스를 타고 온 젊은이들이다. 기회라도 한 번 갖게 해달라.”

입단 테스트를 주선한 현지 동포의 부탁에 감독은 “그럼 우리 선수들 연습경기에나 뛰게 해보라”고 선심 쓰듯 지시했다.

청년들은 그제서야 안도하며 조그만 손가방에서 낡은 축구화를 꺼내 신었다. 하지만 감독은

5분도 지나지 않아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합격 여부를 가려줄 판정관이 없는 무의미한 경기를 마친 청년들은 한 명도,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갔다. 이따금 ‘은빛 바다’라는 뜻을 지닌 마르 델 플라타의 반짝이는 파도와 아름다운 해변을 추억할 때면 축 처진 어깨로 돌아가던 청년들의 뒷모습도 함께 생각나곤 했다.

최근 마르 델 플라타와 아르헨티나를 다시 떠올리게 된 것은 신발업체 ‘TOMS shoes’의 커피사업 진출 뉴스 때문이다. 탐스 슈즈는 일대일(One for One) 기부라는 독특한 비즈니스 방식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신발 한 켤레를 팔 때마다 맨발로 살아가는 개도국 어린이 1명에게 신발 한 켤레를 기부하고 안경 하나 팔 때마다 개도국 주민들의 안경과 녹내장 수술 비용을 지원한다. 이 회사가 이번엔 “커피 한 봉지를 팔 때마다 개도국 주민 한 명에게 1주일치 맑은 식수를 공급하겠다”며 ‘탐스 로스팅’ 설립을 발표한 것이다.

탐스 슈즈의 출범은 아르헨티나가 계기였다. 2002년 ‘어메이징 레이스’란 방송에 누이와 함께 출연, 아르헨티나를 찾았던 20대 미국 청년 블레이크 마이코스키는 3년 후 아르헨티나를 찾아 부에노스아이레스 번두

리에서 봉사활동했다. 지역 어린이 다수가 신발없이 지내는 것을 본 그는 미국으로 돌아와 2006년 탐스 슈즈를 창업했다.

남미 사람들이 즐겨 신는 알파르가타스(alpargatas)라는 가볍고 굽이 낮은 신발을 만들어 팔면서 판매한 숫자만큼 개도국 어린이들에게 신발을 선물했다. 지금까지 기부한 신발이 1000만 켤레, 시력을 되찾은 이가 2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아르헨티나의 맨발’을 본 후 누군가는 자신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다는 불쾌한 감정을 느꼈고 또 다른 사람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했다. 비슷한 상황을 다르게 받아들인 두 사람의 차이를 단순히 시간과 개인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분명한 것은 맨발의 이웃을 보고 다른 반응을 나타낸 두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명제를 던져주고 있다는 것이다.

삶의 굽이마다 무엇을 위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자문한다. 이익을 좇아 세상과 사람을 수단으로만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기심에 빠져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본다. 신발이 없어서, 눈이 잘 안 보여서, 마음 놓고 마실 물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처럼 여전히 많은 이들이 더불어 사는 삶의 울타리 밖에 서 있다.

넓고도 좁디 좁은 이 땅에서 과연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

관악세대/Acro광장

“가라앉는 것이 어찌 세월호 뿐일까?”

이종호(인문대 81) CA
미주 중앙일보 논설위원

#. 아무 말도 못했다. 역장 무너지는 참담함 앞에 가슴만 쓸어내렸다. 희망은 절망이 되고 기대는 좌절로 변했다. 가라앉는 것이 어찌 세월호만일까.

한 시사주간지는 작금의 사태를 ‘고장난 나라 - 비겁한 선장, 무능한 정부, 한심한 언론’이라고 압축해 표현했다.

정말 그렇다. 우리 대한민국호는 속수무책이었다. 승선한 국민들은 집단 멸미에 어지러워 하고 있다. 나 역시 언론 종사자로서 그동안 무책임한 말들, 분노를 부추기는 말들을 열심히 실어 나르지는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또 쓴다. 우리 조국 한국이 다시 일어서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 2년 전 쯤 ‘미국이 좋은 이유 10가지’라는 칼럼을 쓴 바 있다. 잊그제 그 글을 다시 읽어보았다. 이번 참사를 보면서 “우리도 그랬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이 북받쳤다.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 미국을 우습게 본다. 그래도 한국이 미국을 못 따라 오는 것들은 여전히 많다.

좋은 것은 배워야 한다. 옳은 길이라면 따라 가야 한다. 그러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몇 가지만 다시 짚어 본다.

첫째, 미국은 공정한 룰이 지배한다. 편법과 억지는 통하지 않

는다. 한국은 어쨌나. 맘대로 고치고 적당히 봐 주고, 누이 좋고 매부 좋으면 그냥 넘어갔다.

둘째, 미국은 공권력이 존중받는 나라다. 제복입은 사람을 신뢰하고 존중한다. 한국은 공무원과 경찰이 ‘봉’이다. 툭하면 소리치고 먹살 잡고 심지어 구타까지 한다. 이게 나라인가. 질서가 잡힐 리 없다. 시스템이 돌아갈 리 없다.

셋째, 미국은 리더를 인정한다. 정치적 의견이 달라도 국익 앞에 선 하나가 될 줄 안다. 한국은 아예 리더를 만들지 않는다. 탈법과 술수로 올라간 자리들이어서 그럴까. 그것만은 아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싫은 거다. 나보다 잘 난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다. 리더가 없으니 모두가 우왕좌왕이다.

넷째, 미국은 약자를 배려하는 나라다. 어디를 가든 어린이와 임신부, 노인들을 위하고 양보한다. 어린 학생들만 남겨놓고 어른들이 먼저 살겠다고 도망가는 일은 없다. 한국은 강자의 나라다. 돈 없고 힘없으면 살 수가 없다는 말, 수십 년 전에도 들었지만 지금도 듣는다.

다섯째, 미국은 무엇보다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다. 그래서 따지고 또 따진다. 보고 또 본다. 대중대중 열렁뚱땅은 한국의 고질병이다.

#. 걸만 번치르르한 나라, 속으로 골병든 한국. 이제라도 바로 서려면 반드시 배우고 익혀야 할

‘조국이 다시 일어나길 바라는 고언(苦言)’

이원영(인문대 81) CA
미주 중앙일보 논설위원
한의학 박사

세월호 침몰의 아픔이 너무 큼니다. ‘대한민국호가 침몰했다’고 합니다.

온 국민이 애도와 분노, 좌절감에서 헤어날 수 못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의 아픔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아들, 딸 같은 아이들이 눈 뜨고 수장됐다는 사실에 온 국민이 동병상련의 아픔에 갇혀 있습니다. 사회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대한민국호’를 이끌고 있는 선장인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은 누구보다도 비장할 것입니다. 수많은 고민 속에서 밤잠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사고 원인의 철저한 규명, 책임자 엄단, 재발 방지책 마련... 수없이 들어온 말입니다. 대형 참사 뒤에는 그런 단어들이 어김없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길 반복했습니다.

이제 그런 말에 감동받을 국민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위로가 되는 그 무엇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집단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지금 ‘무엇’이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호를 다시 움직일 유일한 위로는 ‘국가개조’에 대한 비전과 확신을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짜 달라지겠구나!”하는 공감이 필요합니다.

생때같은 내 자식의 죽음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훨씬 인간다운 나라, 행복한 나라, 안전한 나라로 ‘개조’된다면 유가족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지 않을까요. 무너졌던 5000만 국민들의 절망감도 조금씩 살아나지 않을까요.

이를 위해선 정부를 완전히 새로 짜야 합니다. 사고 뒤틀처리가 어느 정도 수습되면 잘잘못에 관계없이 내각을 총사퇴시키고 여야를 가리지 말고 인재를 발탁해 거국내각을 갖춰주기 바랍니다.

국민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국민을 사랑하는 성품을 가진 인물들로 내각을 구성해 주십시오. 지금 옆에 있는 참모들의 정신과 머리는 빌리지 마십시오. 애민(愛民)보다는 보신과 개인영달에 눈이 어두운 이들에게 어찌 ‘국가개조’의 의지와 실천을 기대하겠습니까.

탕평 거국 내각을 새로 짜지 않으면 또다시 권력 주변을 맴도는 속물 정치인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다른 ‘세월호 참사’를 만들어낼 것

입니다.

애민 정신이 투철한 공복들로 거국 내각을 구성하면서 통절한 자기반성이 담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 좋겠습니다. ‘국가운명을 잘못했다, 나부터 바뀌겠다’라는 메시지가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사고에서도 드러났지만 기득권층이 그들만의 이익을 서로 주고 받는 시스템이 작동하는 나라에서는 진정한 애민정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봉사보다는 권력, 안전보다는 이익, 공동체보다는 개인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속물 기득권자들의 속성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진 자들의 리그’로 운영되고 그 탐욕이 증폭되고 승계되고 있음을 절감하기에 국민들이 희망을 거두고 있습니다.

기득권층의 이런 이기적 지배구조를 허물어야 국가개조의 비전이 보일 것입니다. 그 실마리는 ‘남북 분단 해소’에 있다고 봅니다. 분단이라는 기형적 구조는 지배층의 기득권 유지와 사회의 술한 모순을 온존시킨 도구가 되어 온 것이 현대사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분단 스트레스를 없애 주십시오. 분단 해소는 사회를 곱게 만든 기득권층의 부패 연대를 끊어지게 할 것입니다. 국민의 자존감은 높아져 비로소 ‘사람 사는 세상’이 보일 것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담판을 지으십시오. 대통령이 크게 움직여야 국가개조의 빛이 보입니다. 넘어진 국민들이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위로이자 희망입니다.***

것들은 또 있다. 미국에 14년 살면서 미국이 좋은 이유, 보고 느낀대로 몇 가지만 더 꼽아본다.

여섯째, 미국은 말을 아긴다. 아무리 큰 사건에도 남을 난도질하는 말을 마구 내뱉진 않는다.

말은 같이다. 제어되지 않는 말은 총칼보다 무섭다. 언론도 그것을 안다.

일곱째, 미국은 실패에서 배운다.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노스리지 지진이 나자 모든 건축법규는 다시 정비되었다. 테러가 나면 검색을 강화한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지만 다수의 안전을 위한 것이기에 불평해도 감수한다.

여덟째, 미국은 그래도 법과 정의가 살아 있다. 의원도, 시장도, 경찰도, 부자도 법을 어기면 합당한 처벌을 받는다.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는 한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아홉째, 미국은 더불어 살려고 애쓰는 나라다. 피부색이 달라도, 언어가 서툴러도 얼마든지 와서 살 수 있다. 이 정도나마 일구고 사는 우리 한인들이 그 증거다.

열째, 미국은 개성을 존중한다. 남 눈치 보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도 뭐라 하는 사람 없다. 전 국민이 명품 안 들어도 되고, 연예인 얼굴로 똑같이 안 뜯어고쳐도 된다. 획일화된 사회, 그것만큼 피곤한 곳은 없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모두 사람 사는 곳이다. 한 끼꼴만 거르면 똑같은 수 있다. 하지만 거리를 귀하게 여기는 시스템은 하늘과 땅 차이다.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역시 너무 차이가 난다. 아직도 한국은 부지런히 더 배워야 한다. 그게 대한민국이 제대로 서는 길이다.***

챌린저호와 세월호 참사

공성식(경영대 89) CA
관악연대 전 총무
디자인 프리미엄 CEO

곳곳에 방치된 ‘깨진 창’들 모두 정비돼야 재발 방지

지난 1986년 1월,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인의 염원을 싣고 쏘아올려진 우주왕복선 챌린저호는 불과 73초만에 공중에서 폭발하고 말았다.

그 사고로 7명의 승무원 전원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 TV로 생중계 되어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그 비극적인 모습을 라이브로 지켜봤다. 고등학교 입학할 앞두고 있던 나에게도 그 모습은 너무도 충격적이어서 아직도 당시의 두려웠던 느낌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최근 우리는 챌린저호 폭발 때보다 몇 십 배나 더 고통스러운 장면을 지켜봐야 했다.

이번에도 라이브다.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것도 고등학생인 우리 아이들이 물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광경을 일주일 이상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으니 이처럼 괴로운 일이 어디에

또 있을까?

거의 30년을 사이에 두고 벌어진 챌린저호 사건과 세월호 사건이 자주 오버랩된다.

‘0링’이라는 작은 부품의 문제로 폭발한 챌린저호의 경우 인재적인 요소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기술 결함이었다. 누가 뭐래도 그것은 로켓 사이언스 아닌가?

몇년 전, 한국도 자력으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려다가 실패를 거듭했을 때, 안타까워할 지언정 고난도 기술의 장벽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었다. 인간적으로 최대한 노력했으나 기술적으로 안 되는 것은 동정의 대상이지 비난의 대상은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 이번의 세월호 사건은 백번 양보해도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날수록 인제의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눈속임 운영, 부실한 관리 등 어느 것 하나 인제가 아닌 것이 없다는 사실에 분개하고 만다. 게다가 사건이 발생하고 난 후의 대처방식은 더욱더 가관이었다. 마치 처음 당한 일인 양, 우리는

또 한 번 놀란다.

범죄학 분야에서 ‘깨진 창(Broken Window)이론’이라는 것이 있다.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이론이다. 사소한 문제를 방치하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번 세월호도 이런 ‘깨진 창현상’이 극에 달해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막으려면 평소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절대 방치하면 안 된다.

구명조끼가 사전에 제대로 구비되었는지, 안전수칙들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감독해야 한다. 만약 그랬다면 아무리 불운해도 이렇게까지 어이없는 사고를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구명정 하나쯤 작동 안 해도 별일 없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이 점점 자라 결국엔 46개 중 제대로 작동하는 구명정이 1개 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에 치달은 것이다.

내 직업인 프로그래밍의 세계에도 ‘깨진 창이론’은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 프로그램에 있는 사소한 ‘버그’들을 한 번 방치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도저히 구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오고야 만다. 코드의 작명법이나 띄어쓰기 스타일 등 사소하게 보이는 원칙들을 무시하고 진행하는 프

로젝트는 대개 실패로 끝난다. 그래서 이 분야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라면 코드의 일부만 훑어보고도 실패를 감지할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뛰어난 프로그래머일수록 그런 아주 사소한 보이는 원칙들을 사수하기 위해 거의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집착한다.

비행기는 속성상 꽤나 위험한 교통수단이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꼽힌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데는 아무리 사소한 항공사고라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 마인드가 큰 몫을 했다.

일단 사건이 발생하면 이를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 포스 팀이 만들어진다. 이 팀에 의해 철저히 규명된 문제점은 전 세계 항공사에 바로 알려져 똑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한다. 세월호 침몰과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했다면 항공 산업에서는 어떻게 대처했을까?

한국 곳곳에 방치된 깨진 창들이 하루 빨리 정비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맘 놓고 즐거운 수학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고2의 딸을 둔 아빠로서의 소박하지만 간절한 바람이다. 아직 30년 쯤 더 기다려야만 가능한 것일까? ***

관악세대/Acro광장<박 변호사의 영화이야기-17>

배반과 반전의 중국 느와르 유성호접검 (流星蝴蝶劍) <上>

박준창(영문 79) CA
변호사

50이 넘는 세대라면 한 번쯤은 중국 무협 영화에 열광한 적이 있을 것이다. 이번은 특이한 중국 무협영화에 대해 얘기한다.

중국 무협영화는 크게 검술 영화와 쿵후 영화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60~70년대가 무기를 쓰는 검술 영화였다면 그 이후로는 맨손으로 싸우는 쿵후 영화가 주로 나왔다. 그런데 대부분의 중국영화들은 다 4자 성어로 돼 있다. 내가 중국영화들에 붙여주고 싶은 4자 성어는 ‘황당무계·허무맹랑·허구작렬·전부 가라(空)’ 등이다. 너무 과장과 엉터리가 많아서다. ‘유성호접검’은 이런 황당한 중국 무협영화의 차원을 뛰어 넘는 걸작이다.

이 영화는 1976년에 나왔는데 너무 재미있어 이런 류의 영화를 애타게 기다렸는데 끝내 나오지 않았다. 2000년 ‘와호장룡(臥虎藏龍 Crouching Tiger, Hidden Dragon)’, 2004년 ‘십면매복(十面埋伏 House of Flying Daggers)’이 나올 때까지는.

영화는 어두운 밤 다리 위에서 시작한다. 푸른 옷과 흰 옷을 입은 두 남자가 다리 위에서 만난다. 푸른 옷이 묻는다. “당신이 하룻밤에 9개 주를 흔들어놓고, 3개 정호국을 박살내고, 108명을 죽인 자냐?” 그렇다는 대답에 푸른 옷이 말한다. “난 돈을 받고 너를 죽이러 왔다.”

몇 합이 검투가 오가고 흰 옷은 칼을 맞고 다리 밑으로 떨어진다. 하룻밤에 108명을 죽인 무사를 간단히 해치운 이 과한 옷이 ‘흑도(黑刀)’ 맹성흔(孟星魂)이다. 흑도는 정의로운 무협 ‘백도(白刀)’와 반대로 암흑가 살인 청부 무사, 즉 자객이다.

다음 장면은 기녀 고노대(高老大)의 정사 장면인데 70년대 영화로는 파격이다. 상반신 누드가 그대로 나오고 그녀의 교성이 가감 없이 화면을 탄다. 상대 남자는 보여 주지 않는다. 남자는 마지막까지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가 나중에야 정체가 밝혀진다.

정사를 끝낸 그녀는 맹성흔에게 살인 의뢰를 전달하는 심부름을 한다. 대상은 용문보(龍門堡)의 보스 손옥백(孫玉伯). 그러나 손옥백은 자신이 엄청난 무예의 소유자일 뿐 아니라 빼어난 호위 무사들로 둘러 싸여 있다.

아들 손검(孫劍)을 위시해 72개의 비밀 무기를 구사하는 오른팔 율향천(律香川), 사는 곳이 알려지지 않은 신비의 무사 한당(韓堂). 그런데 조직 내에 배신자가 있고 배신자는 라이벌 조직 비봉보로 하여금 한당도 죽이게 하고 (한당은 그 배신자의 장을 맞고 죽는다) 아들도 죽이게 한다.

손옥백은 아들보다 더 중요한 자신의 오른팔 율향천을 의심하지만 사실이 아니길 바라며 율향천을 비봉보에게 보내 그를 시험해 본다. 율향천은 비봉보 조직 원들과 결투 끝에 여러 방향에서 던져진 밧줄에 묶여 공중에 부양된 채 죽음의 위기를 맞지만(이 장면도 압권이다) 때마침 나타난 손옥백이 율향천을 구출해 주고 의심은 사라진다.

한편, 손옥백을 죽이고자 하는 자는 맹성흔을 용문보의 조직원으로 들어가게 한다. 맹성흔은 밤에 용문보로 가던 중, 길을 잃고 시내가 흐르는 아름다운 나비의 숲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아릿다운 여인을 만난다. 그는 시를 읊으며 음악을 연주하는 여인에게 빠져 든다.

여인: “시를 이해하시나요?”

맹성흔: “아니오. 하지만 좋아합니다. 나비는 이해하시나요?”

여인: “아니오. 하지만 좋아합니다.”

맹성흔: “나비는 항상 봄에 살지요. 봄과 함께 그들의 아름다움도 가버립니다.”

여인: “그래서 나비는 사랑과 같다고 하지요. 아름답지만 오래가지 않아요. 올때 잡지 못하면 봄이 지나가면 잃어버립니다.”

맹성흔은 자신의 이름을 말해 주는데 여인은 알고 싶지 않다고 한다. 그들은 친구가 아니라 절대 친구가 돼서도 안 된다며,

왜? 자신과 친구가 되려 했던 많은 사람들이 맹성흔이 서 있는 자리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고 물으니 맹성흔은 “두렵지 않습니다. 내게 대항했던 사람들이 먼저 죽기 때문이죠.”

이렇게 짧게 만나고 헤어진 맹성흔은 잊지 못해 다시 여인을 찾아온다. 두 번째 만남에서 맹성흔은 여인과 술을 나누며 자신이 자객임을 밝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자신의 생활과 기억없는

←영화 유성 호접검의 포스터

박흥진의 할리웃 산책

그 여름 피서지에선 무슨 일?

박흥진(사대 64) CA
영화 평론가

학생들은 방학에 들어가고 어른들도 휴가를 즐기는 본격적인 여름철이다. 할리웃의 여름은 5월 첫 주말부터 방학이 끝나는 9월 첫 주말까지다.

제목에 ‘서머’ 자가 붙은 좋은 영화들도 많다. 내가 추천하는 이들 서머 무비는 거의 다 소품이거나 외국 영화들이다.

서머 무비라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피서지에서 생긴 일(A Summer Place.1959)’이다. 텔머 데이브스가 감독하고 둘 다 새파랗게 젊고 예쁘게 생긴 트로이 도나휴와 샌드라 디가 나오는 동부 해안 피서지에서 생긴 티에이저들의 사랑 얘기다.

이 영화를 고교생 때 조선호텔 앞에 있던 2류관 경남극장에서 봤는데 맥스 스타이너가 작곡한 아름다운 주제곡(피서 페이스 경음악단의 연주로 유명하다)과 시원한 여름 바다, 그리고 도나휴와 디의 소꿉장난과도 같은 로맨스에 흠뻑 빠져 있었다.

내가 좋아하는 일본 감독 야수지로 오주의 ‘맥주(Early Summer.1951)’는 사실 계절과 무관한 오주 특유의 가족 드라마다. 직장 여성인 28세난 딸 노리코(오주의 단골배우 세추코 하라)의 과년한 딸 결혼 걱정을 하는 아버지(오주의 단골배우 치슈류)를 비롯한 가족의 얘기로 참으로 고요하고 사려 있으며 은근한 감수성을 지닌 작품이다.

여인들의 하얀 반팔 블라우스와 매미소리 그리고 조는 듯한 오후의 정원과 빨랫줄에 걸린 속옷에서 느껴지는 여름의 감촉이 시원하다. 이 영화는 제목에



계절 이름을 붙이기를 좋아하는 오주의 ‘만춘’과 ‘도쿄 이야기’와 함께 3부작으로 짜여진 ‘노리코 이야기’ 중 두 번째 것이다. 오주처럼 제목에 계절 이름 잘 붙이는 프랑스 감독 에릭 로머의 ‘클레어의 무릎(Claire's Knee.1971)’과 ‘해변의 폴린(Pauline at the Beach.1983)’ 그리고 ‘여름(Summer.1986)’은 모두 여름에 보면 잘 어울릴 영화들이다.

소녀 클레어의 스커트 아래로 드러난 것 익은 듯한 무릎과 수영복 입은 15세난 폴린 그리고 텅 빈 여름 파리에 혼자 남았다가 영화 마지막에 가서 황혼에 황홀한 초록색 섬광을 목격하면서 자아를 찾는 텔핀의 이야기들이 담담하니 좋다. 오주 영화들을 생각나게 하는 연출로 신선하고 아름답고 깊이가 있다.

‘콰이강의 다리’, ‘아라비아의 로렌스’, ‘의사 지바고’ 등을 만든 데이빗 린의 소품 ‘여정(Sumertime.1955)’은 여름 베니스에서 잠깐 맺어지는 미국인 노처녀 초등학교 선생(캐서린 헵번)과 이탈리아인 유부남(로사

노 브라지)의 못 이룰 사랑의 이야기. 부식해가는 물의 도시 베니스의 경치와 헵번의 간절한 연기 그리고 섹시멘털하고 감미로운 음악 등이 모두 좋은 주옥 같은 사랑의 영화다.

스웨덴 감독 잉그마르 베리만의 흑백촬영이 눈이 따갑도록 강렬한 ‘모니카와의 여름(Summer with Monica.1953)’은 두 젊은 남녀의 불태우는 정열이 계절 못지않게 화끈한 러브 스토리다. 나체와 분방한 성적 내용과 묘사로 논란이 일었던 작품으로 주연 여우 해리엇 앤더슨은 촬영 당시 베리만의 애인이었고 그 뒤로도 그의 여러 작품에 나왔다.

프랑스 감독 올리비에 아세야스의 ‘여름 시간(Simmer Hours.2008)’은 줄리엣 비노쉬와 샤를르 베르랑 등 앙상블 캐스트의 조화가 보기 좋은 가족 드라마다. 사망한 어머니의 집과 유산을 정리하기 위해 뿔뿔이 헤어졌던 가족이 여름에 한데 모이면서 묘사되는 변화하는 가족의 얼굴에 관한 사실적이며 민감한 영화다.

나의 ‘길티 플래저’ 영화 중 하나가 ‘서머타임 킬러(Summertime Killer.1973)’다. 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 합작으로 아버지의 살해자들에게 복수하는 아들(로버트 미첨의 아들 크리스토퍼 미첨)의 멜로드라마다. 이들의 연인으로 프랑코 제퍼렐리의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줄리엣으로 나온 올리비아 허시가 나온다.

‘Before Midnight’은 진짜 여름들을 위한 소품 서머 무비다. 리처드 링크레이터가 감독한 ‘제시와 셀린’ 3부작 중 세 번째 영화로 그리스에서 여름을 보내고 파리로 돌아가기 전 제시(이산 호크)와 셀린(줄리 델피)이 결코 애기하고 다투는 ‘워킹 앤 토킹’ 영화다. 오랜 관계의 회로애락을 탐색한 매력적인 명품이다. 해피 서머!***

미래에 대해 얘기를 한다.

사랑에 빠졌던 동료 흑도 염상(葉翔)을 알고 있는 맹성흔인지라 흑도인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 심한 회의가 있다. 맹성흔과 형제처럼 친한 염상은 손옥백의 딸을 사랑했고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손옥백은 염상을 죽이려고 한당에게 지시했던 것.

한당은 바닷가에서 염상과 사흘 밤 사흘 낮에 걸친 결투 끝에 그를 죽일 수 있었으나 살려 주고, 대신 딸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를 한다. 낙담한 염상은 술에 의지한 채 폐인이 되었던 것(염상은 남자에 안 어울리는 예쁜 눈의 우수에 찬 인물로 나온다).

그러나 맹성흔이 자객임을 밝혔어도 여인은 마음의 문을 연다. 떠나는 맹성흔에게 이곳 나비 숲의 봄은 특별히 길다며 꼭 돌아오라고 한다. 맹성흔은 봄이 지나면 기다리지 말라며 작별한다. 그리고 비로소 여인은 자신의 이름을 말해준다. 나비의 숲에 사는 작은 나비 소접(小蝶)이라고.

그런데 운명의 장난. 맹성흔이 사랑에 빠진 이 여인이 염상이 사랑했던 바로 그 여인. 손옥백은 딸 소접을 이곳 나비의 숲에 유배시키고 타인의 접근을 막고

있었던 것. 이 사실을 알게 된 고노대는 맹성흔이 손옥백을 못 죽일 것으로 판단, 염상을 자객으로 급파한다.

한편 맹성흔은 계획대로 손옥백의 비밀 정원에 조직 내 또 다른 배신자의 도움으로 잠입하는데 낮잠을 즐길 줄 알았던 손옥백은 깨어 있다(이 배신자 너무나 손옥백과 가까운 인물). 맹성흔은 손옥백의 호위병들에게 둘러싸여 암살 계획이 발각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때 염상이 손옥백을 죽이러 들어오며 호위병들과 칼싸움이 벌어지고 이 과정에서 맹성흔은 그 여인이 손옥백의 딸이자 염상이 사랑했던 여자였음을 알게 된다.

염상은 손옥백을 죽이는데 실패하고 부상을 입는데 보다 못한 맹성흔이 나서서 목숨을 구해주려고 한다. 하지만 염상은 이제 소접을 돌봐줄 사람이 생겼으니 평화롭게 죽을 수 있다며 맹성흔의 칼을 빼앗아 자결한다.

이를 지켜 본 손옥백은 맹성흔에게 털어 놓는다. 염상은 소접 얘기를 맹성흔에게 해 주려고 목숨을 걸었다는 것. 자신은 딸에 대해 다 알고 있다는 것. 염상은 맹성흔이 손옥백을 죽이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맹성흔 대신

자신이 먼저 손옥백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

“왜 알면서도 자신을 죽이지 않았냐”고 맹성흔이 물으니 “아마도 딸을 위해서였겠지”라고 손옥백은 대답한다. 이상하게도,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자신을 죽이러 온 사람이라며. 때로는 친구보다 적을 믿어야 한다면서.

그리고 다음 날 비봉보에 대한 공격을 하기 위해 부하들에게 무장을 명령하고, 맹성흔에게는 두장의 비밀 지시서를 주며 4명의 호위병과 함께 소접이 있는 나비의 숲에 가서 즉시 추가 병력을 데려 오라고 한다.

소접에게 간 맹성흔은 첫번째 지시서를 보고 깜짝 놀란다. 호위병들을 즉시 죽여 버리라는 지시였기 때문. 그는 즉시 몇 초만에 호위병들을 살해한다. 호위병들은 배신자의 부하들이었다.

장면이 바뀌어, 손옥백의 처소. 그가 갑옷을 벗는 순간 그의 등에 7개의 독침(칠성침)이 꽂혀진다. 배신자가 등 뒤에서 치료약이 없는 독침을 꽂은 것. 드디어 배신자는 그의 정체를 드러내며 손옥백의 죽음을 확신하고 왜 손옥백을 죽이려는지를 설명해준다.

<2부에 계속>



My Journey to America <3>최용완 논설위원

아메리칸 드림 50년<11>

최용완(공대 57) CA
미주 동창회보 논설위원
시인·수필가

자본주의 사회가 자유경쟁을 기반으로 세워졌기에 인류의 생존 경쟁 본능이 사회 발전을 이루어 가는 것인가. 그러한 능력으로 인류가 지구상의 만물의 영장이 되었을까.

▶**애국심과 우리의 국력** = 올림픽 때가 되면 본능적인 애국심이 발동한다. 뛰어난 체력과 기술을 4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으로 세계의 정상에 도전하는 열망의 순간이며 세계의 모든 나라가 참여하는 인류의 큰 잔치다.

벤쿠버 동계 올림픽의 여자 쇼트트랙에서 우리의 금메달은 반칙으로 중국이 가져갔고 소치 올림픽에는 우리가 금메달을 되찾고 중국이 반칙으로 벌을 받는 경우도 보였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질서와 규칙을 따라 인간 최첨단의 능력을 보여주는 개인기의 경쟁이며 여러 선수가 팀을 이루어 진행하는 조직력의 발휘이다. 정상에 이르면 그 나라의 국기가 오르며 국가를 연주하고 금빛으로 빛나지만 뒤지면 은메달이나 동메달을 목에 건다.

어느 때가 오래 전에 동네에서 맨 발로 뛰고 맨 몸으로 씨름하며 시작한 구경거리가 꾸준히 자라서 나라 사이에 경쟁으로 성장하고 이제는 전 세계의 흥행으로 펼쳐졌다. 경쟁종목이 다양해지고 의상과 운동기구의 발달로 스포츠 과학이 동원되는 경제적 뒷받침도 한 몫한다. 운동 종목에 따라 1등과 2등의 차이를 사람의 감각으로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미소하여 첨단 기계에 의존하여 판별하고 3등과 4등의 차이가 거의 없지만, 3등은 메달을 받고 시상대에 오르지만 4등은 경쟁에 참석한 영예로만 만족하기에 더욱 관심을 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체구가 작고 체력이 약한 동양인들이 서구의 장신 선수들과 시합하면 어른과 아이의 경쟁처럼 보였을 때도 있었다. 콜럼버스 오하이오에서 세계 고등학교 야구시합의 마지막 경합이 있었다. 일본과 브라질 팀을 각각 꺾은 한국과 미국의 선수들이 결승에 이르렀다. 고등학교 후배인 선동열 투수를 앞세워 결승전에서 미국 팀을 이겼던 날에는 온 가족과 동포가 목이 쉬도록 응원하였다. 좁은 우리 집에 몰려와 냉면 먹으며 승리를 축하했던 때가 엇그제 같이 기억된다.

반 세기 지나는 세계 경제의 변화 속에 우리나라 젊은이도 체구가 성장하고 이제는 우리의 경쟁력을 어디에나 내놔도 보라는 듯 국력상승을 뽐내어 보여준다. 월드컵 경기 때 서울광장에 모여 뜨겁게 응원하던 붉은 악마의 열기는 경기장 밖에서 보여주는 우리의 자랑이었다.

▶**건축 양식** = 올림픽의 근원은 약 3천년 전에 그리스의 올림픽 피아에서 그곳 신을 섬기는 종교적

행사로 시작되었다고 역사책은 말하지만, 그리스의 석조물 조각이 인도의 목조 조각에서 유래되었고 석조 건축양식도 동아시아의 목조 건축양식에서 발달되었음을 감안하면 그 근원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듯하다.

우리나라 고대 건축의 둥근 기둥 위에는 사각 주두(기둥머리 쟁반)가 있어 그리스의 도릭 건축 양식이 되었으며 후에 아이오닉 형식과 코린시안 형식으로 발전하는 역사적 유래를 본다.

그리스 파르테논 건물과 우리 건축의 완자무늬를 보면, 역사에 관한 견해가 다르다. 그러한 종교적 행사의 근원도 신라의 화랑 정신과 같은 그 뿌리가 동남아시아의 어느 곳이었음을 상상할 수 있다. 유럽의 역사는 2만 년 전에 빙하기 이후에 시작하였고 동남 아시아는 6만 년 전부터 시작된 인류학을 보아도 이해된다.

▶**올바른 경쟁은 성장의 지름길** = 경기를 보는 흥분과 감동의 짜릿한 설렘은 우리가 타고난 본능적 경쟁의식인가 보다.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뿌린 수억의 정자들이 어머니의 몸 안에서 필사의 수영 경쟁을 하여 제일 먼저 도

“순간 내 유도실력이 나와 그는 침대 위에서 방바닥으로 거꾸러졌다. 나는 유도의 조르기 기술에 관해 말해주었다. 숨이 끊기고 정신을 잃게 됨을 설명해 주었다”

착한 정자 하나가 기다리는 난자의 품에 안기는 치열한 경쟁에서 우리는 태어났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두 금메달을 목에 걸고 세상에 왔다. 그러기에 한 목숨이 제각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존엄과 귀중한 가치이기도 하지 않을까. 한 목숨이 세상을 살아감도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경쟁 속에서 새끼 낳아 씨앗을 이어가는 운명이기에 살아있어 건강한 목숨으로 경쟁함은 얼마나 귀한 삶인가.

남자와 여자로 다르게 태어나 남자의 가는 길은 더욱 험한 길인 듯 하다. 여자가 항상 좋은 씨앗을 찾아 능력있는 후손을 이어가기 원하기에 남자는 황소의 머리에 뿔이 솟도록, 독수리의 부리가 사납게 굵도록 싸움하여 생존경쟁에 제일 강한 씨앗을 가졌음을 증명한 후에야 비로소 여자의 선택을 기다리는 존재다.

그러기에 목숨은 곧 올림픽 경쟁이다. 정당한 경쟁은 사회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기에 경쟁하지 않고 정부에 의지하는 사회주의의 구소련의 정치는 무너졌다. 경쟁에서 승리하면 명예와 물질적 혜택이 있어 동기를 부여하고 생산의 질과 양이 성장하여 국가와 사회가 함께 성장한다. 정부나 개인 기관에만 의지하려는 안이한 노동조합은 쓰러진다. 그 뿐만 아니고 일찍 은퇴하고 삶 속에 도전을 잃은 후에 곧 사망하는 사람도 가끔 본다.

후진국에서 태어난 우리 세대가



↑최근 브라질에서 열린 세계 동성애자 대회. 동성애 문제는 오늘 날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선진국에 이민 왔을 때 균등한 경쟁의 기회가 있었기에 언어와 문화의 격차를 극복하고 각자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다. 타지에서 현대나 기아차를 보면 친구처럼 반갑고 세계 각국의 벽에 붙은 삼성이나 LG TV를 보면 가족 얼굴 보듯 기쁘다.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일본의 소니 전자제품이 미국의 시장을 석권하는 모습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지금은 삼성이 유럽과 세계 각 지역에서 소니를 추월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나라가 참으로 대견스럽다.

낮선 땅에서 이방인으로 버둥거리며 이불 덮고 호느끼던 외로움, 자나 깨나 해바라기처럼 모

그날 밤을 같은 호텔에서 머물게 되었다. 호텔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그는 나를 데리고 술 마시는 곳을 찾아갔다. 그곳은 동성애 하는 사람들만 모여 친구가 되고 술 마시고 춤추는 곳이었다. 여자는 없고 모두 남자들이었다.

▶**유도 익힌 덕분에 위기 모면** = 나는 서울에서 대학 다닐 때도 술을 배우려 했지만 체질이 맞지 않았는지 술꾼이 되지 못했다. 술 마시고 남자가 남자를 끌어안고 춤을 추는 모습에 낯설고 소름이 끼쳤다. 내 체질에는 딱 질색이었다. 내가 누군지 여기가 어딘지 혼돈된 느낌마저 들었다.

하지만 스티브는 나를 감독하는 직책이기에 나의 직장을 위해 조심스러웠다. 그리고 이 세상에 이런 곳이 있다는 사실이 내게는 참으로 놀랍고 신기했다.

스티브는 김동철과 동성애 관계였음을 나에게 고백하는 듯 이야기해주었다. 나는 술을 마시는 척 하고 취한 척 하면서 춤을 추자는 스티브를 잘 달래어 데리고 호텔로 돌아왔다.

방문을 잠그고 잠들려는 무렵 스티브가 내방 문을 두들기고 잠옷을 입은 채 들어왔다. 그리고 내 손을 붙들고 자기 말을 들으라고 간절히 부탁하며 나에게 다가왔다. 나는 빠르게 몸을 피하고 방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나를 겁탈하려는 듯 대들었다.

그 순간 내 유도 실력이 나왔다. 두 남자가 잠옷을 입고 한바탕 붙었지만, 그는 침대에서 내 발에 걸려 방바닥으로 거꾸러졌다. 나는 마음을 가다듬고 조용하게 유도의 목을 조르는 기술에 관해 말해주었다. 숨이 끊기고 정신을 잃게 됨을 설명해 주었다. 그는 얼굴색이 파래져 조용히 방을 나가 하마터면 동성애자가 될 뻔한 위기를 모면했다.

다음 날 그는 내가 유도 몇 단이냐고 물으며 자기 허리를 다치게 했다고 불평했지만, 나는 모르는 척 하고 우리는 웃으며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일을 마치고 본사에 돌아왔다.

미국인들은 우리보다 시치미 때

는 단수가 높은 듯 하다. 스티브는 친절하고 책임 맡은 일에 충실함에 변함이 없었다. 나도 입을 꼭 다물고 조금도 남에게 기색을 보이지 않았기에 아무 일 없이 지냈다. 놀라운 사실은 직원들 가운데 여러 명의 동성애 직원들이 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집에 아내가 있고 밖에 동성애 남자가 있는 경우도 보였다. 하지만 그들은 정상적인 생활상이 아니었기에 스티브도 그 직장에서 2년을 넘기지 못하고 회사를 떠나게 됨을 보았다.

돌이켜 보면 동성애 부부는 과거 인류 사회에 오래 동안 지속되어 왔다. 과부가 많은 동네에 맏돌 부부가 있고 교도소나 군대 생활에 오랫동안의 외로움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동성애 부부는 존속해 왔다. 현대인의 생활환경은 개개인의 고독을 더욱 증폭하였다. 외로움 속에 사랑의 갈증을 이성과 풀지 못하고 자유스러운 분위기로 동성애 동반 생활하게 됨은 날이 갈수록 쉬워지고 있다.

도면을 오래 그리다 보면 시력이 약해져서 안과 의사를 찾게 된다. 의사가 나의 바른 쪽 눈을 원시이고 왼쪽 눈은 근시라고 하기에 내 자신이 신기롭고 놀라웠다. 그때부터 나는 내 주위를 한쪽 눈으로 본 후에 다른 쪽 눈으로 다시 보는 버릇이 생겼다. 운전하다가 옆에 운전사를 한쪽 눈으로 보고 눈을 감고 뒤편 모양이다. 자기에게 링크하는 줄 알았는지 내차를 따라오기 시작하는 듯 했다. 분명히 동성애자임을 알고 나는 떠어놓으려다 교통사고가 날 뻔도 했다. 다음 신호등에서 간신히 떼어 놓고 도망쳐왔다.

▶**은 인류의 숙제** = 지구상에 인류의 인구 폭발 때부터 수억 년 동안 사람과 함께 살아온 수없이 많은 동물들, 생명이 우주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환경은 지구 표면에서 기후의 변화를 가져오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이상기후까지 여기저기 나타나며 자연의 모든 생명에 생태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동성애 가정은 남의 아이를 입양해 기르지만,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에 인구증가를 늦추는 결과도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자라난 아이들이 부모와의 관계를 본받아 그들은 동성애 부부를 다시 이루며 살게 되지 않을까.

지구상의 인류는 풍선처럼 커질 만큼 커져서 이제 터지기만 기다리는 위기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선진국의 결혼 결핍에 따른 인구증가 속도가 줄어든 다거나, 중국처럼 한 가정에 한 아이만을 갖게 하는 정책 등은 세계적 인구증가율을 다소 늦출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후진국의 인구 증가를 억제하지 못하기에 인류의 지구표면 파괴는 멈추지 않는다. 최근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동성애 결혼의 합법성을 거론하여 지금까지 지켜온 가정의 토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동성애 가족처럼 이러한 비정상 가족이 많을수록 인류의 인구증가를 조금은 늦출 수도 있지 않을까.

<계속>

<여행기> 인도차이나

내가 본 불교의 왕국들<2>

김명자(문리대 62)NE

지붕이 있고 계속 보여주는 화면이 조금은 지루함을 달래주는 듯 했다. 안내는 “그 양반이 죽을 때 화장해달라 했는데 자기 생각에는 아무도 그 몸을 만져 본 사람이 없어 건물에 누워 있는 시체는 Wax일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9월부터 11월까지 body를 다시 embalm하기 위해 러시아로 가져간다고 했다.

Uncle 호치민 은퇴 후 말년에 살던 겸소한 집과 생활을 보면서 국민의 존경을 받을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옛날부터 시작했다는 공자의 학교에 갔는데 정조라는 시인이 다 나온 듯 했고, 명(命)·복(福)·장수(長壽)같은 글들을 붉은 종이나 금 종이에 돈을 주고 써 가지고 가서 방안에 걸기 위해 긴 줄을 서고 있었다.

▶삼성-하이테크 공장 = 사람이 페달을 돌리는 인력거를 타고 200년이 넘었다는 옛날 골목과 집들을 지나 갔는데, 1미터 정도의 좁은 골목과 20-30미터 안 쪽으로 작은 방들이 여러 개로 할아버지·할머니·삼촌·이모 등 20-30명이 살고 있고, 화장실은 하나라고 했다. 일단 그 곳에서 살기 시작하면 빠져 나오지 못하는데 골목 집값이 100만불이 넘기 때문에 팔면 여럿이 돈을 나누어야 하고, 그 돈으로는 아무 것도 못사기 때문에 허물고 다시 짓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했다. 한국 같으면 다 밀어 버리고 20-30층으로 올릴텐데..., 공산주의 국가라도 못하는 것,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은 듯 했다.

하노이에서 비행장 가는 길에 세계에서 가장 큰 삼성-하이테크 공장이 있는데 차를 타고 가면서 보아도 정말 수궁하게 됐다. 가난한 많은 베트남 사람들이 직장을 가져 적당한 월급을 받는다고 생각하니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 일어나는 듯 했다.

하노이에서 Ha Long Bay까지는 100마일로 4시간 반 걸려 도착했다. 작은 목선에서 점심을 먹을 때 진초록색 물결을 헤치며 배는 미끄러져갔다. 바위들은 용의 등 같기도 하고 하늘이 만든 호수 같기도 한 희귀 석회 암석들이 여기저기 솟아 있었는데 다행이었던 것은 유네스코가 일찍 유물로 정해 놓아 바다가 깨끗했고, 바위들도 천연 그대로인 듯 했으며 지저분한 배나 장사꾼들도 없었다. 바위마다 나무와 풀이 우거져 있고 연노랑 바윗돌들과 잘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얼마 후 배는 어느 바위 섬에 닿았고 200여 층계 위에 Grotto of Heavenly Palace라 불리는 동굴이 있었다. 일행 중 뉴욕에서 온 젊은 치과 의사가 있었는데 다리도 못 쓰고 허리도 구부러지고 목조차 돌아가 있는 아주 심한 불구자였지만 보통사람이 하는 행동은 다 했기에 큰 감명을 받았다. 멀쩡한 다리으로도 200여 층계를 불평한다는 것은 장피한 일이어서 입을 꼭 다물어야 했다.

비행장으로 가는 중 성당 한 복판에 있는 개인집을 들렀다. 2대

째 가톨릭으로 전통을 자랑했는데 안방에 예수와 Uncle 호의 사진이 나란히 있었고 돼지 한 마리, 비둘기 10마리 쫘, 닭싸움에 쓸 병아리 5마리, 그리고 꼬리를 흔드는 개는 4마리의 새끼를 지키고 있었다. 자그마한 텃밭에는 양배추 대여섯 포기, 시금치와 상추가 조금씩 자라고 있었다.

집 입구에는 벧짚이 높이 쌓여 있고 부엌에는 현 술 2개가 있었는데 지프라기와 손가락 굵기의 나뭇가지로 요리를 하고 있었다. 남편은 막걸리 비슷한 술과 붉은 땅콩을 자랑스럽게 우리들에게 돌리고 있었다.

▶캄보디아의 상징 Angkor Wat = 캄보디아 Angkor Wat행 베트남 비행기는 한 시간이나 연착했다. 옆에 앉은 69세의 부부는 공무원 은퇴 후 처음 여행한다면서 서투른 영어로 말을 시작했다. 나에게 빌려갔던 만년필을 가지라고 주고 여분이 있어 여자에게도 하나, 그리고 샌드위치를 주었는데 얼마나 고마워 하던지 그들의 순박함에 부끄러워졌다.

모두들 피곤해서 Angkor Wat 구경을 다음 날로 미루고 대신 불교의 절 Angkor Thom을 보러 갔다. 200여개 상들이 54개 Sand Stone 탑에 새겨져 있었다. 가는 곳마다 덥고 너무 붉벼 내일

“캄보디아의 상징 Ankor Wat는 가장 잘 보존돼 있는 절로 9~13세기 sand stone으로 건축됐는데 hinduism의 신 Vishnu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은 새벽 일찍 구경하기로 했다. 캄보디아 상징이 돼버린 Angkor Wat은 가장 잘 보존돼 있는 절이었다. 9~13세기 sand stone으로 지은 절들은 처음에는 hinduism의 신 Vishnu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었는데, 연간 3도작으로 1만명 이상을 먹여 살렸으나 기후 변화로 1도작을 하게 되면서 먹을 것이 모자라게 됐고 주위와 교역이 줄어들어 국민의 생활이 곤란해져 가면서 떠났으며 종교인들과 정치가들은 힌두교에서 불교로 전환하게 됐다.

가까운 Tonle Sap 호수(Great Lake)는 물 위에 떠 있는 마을로 유명한 곳이다. 호수가 너무 커서 주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100만이 넘는지만 몸이 더러워 실망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 곳이나 보트를 가져다 놓고, 세금도 없고, 이웃이 싫으면 판 곳으로 가고, 보트 집 옆에는 물 위에 나무 널판지를 ‘미움’ 모양으로 만들어 악어도 기르고 그 옆으로는 판 방처럼 물 속에 울타리를 만들어 생선들을 기르고 있었는데, 이 물을 먹고 빨래하고 불 일도 보는 등 호수는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Killing Field = 3-6살 정도 아이들은 옷도 없이 맨 몸으로 능구렁이와 놀고 있었다. 보트가 좀 깨끗하고 파란 칠 한 것이 학교라고 했다. 1-2학년짜리들은 구명대나 어른도 동반하지 않고 손바닥 만한 보트를 타고 자유자

재로 오고 갔는데, 미국서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다.

1979년 Khmer Rouge의 미친 우두머리 Pol Pot이 국민의 4분의 1을 학치는 대로 죽인 Killing Field의 비극이 있었는데 너무 비참해 베트남과 중국 군인들이 와서 더 이상의 참상을 막아 주었다. 그 후 하루 1~2달러 수입으로 사는 이곳에 이명박씨가 경제 고문으로 있으면서 생활을 향상시켜 주었고, 대통령이 된 후 더 적극적으로 공장과 호텔을 많이 세우고 관광객들을 불러들여 한국인에 대한 호감은 보통이 아니었다.

일행 중 일부는 방콕으로 가고 간호원인 Julene과 우리는 Luang-Prabang, Laos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하루 종일 기다려야 했기에 가까운 국립 박물관엘 갔다. Kmer제국의 기원으로 시작해서 앙코 왓 건설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고 1천개의 크고 작은 불상들이 잘 진열돼 있어 국민들이 얼마나 불교에 젖어 있는가를 느낄 수 있었다.

Villa Santi Resort & Spa Hotel은 바나나 나무가 많았다. 내 팔뚝보다 굵은 대나무가 30~40피트는 되는 듯 했고 드높이 솟아 있었다. 이들의 불교문화는 더욱 깊어 어디를 가나 삼각형의 뾰족한 탑과 크고 작은 불상들이 있었는데, 놀라운 것은 아들은 10살 정도가 되면 Novice로 절에 들어가 잔 심부름을 하면서 2년을 이직 저것 배우고 그 생활이 좋으면 다시 12년을 절에서 생활하다가 세상으로 나온다는 것인데,

나로서는 도저히 상상하기도 힘들었다. 물론 그동안 3~5년 정도의 학교도 다닌다고 했다.

20살이 지나 사회에 나와 자기가 갈 길을 가거나 완전히 불교에 자기를 내어 놓고 중(Monk)으로 일생을 보내기도 한다. 얼마나 오랜 허송 세월을 하는 것인지나 아는지...!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지혜, 특기, 재능, 인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뿐이었고 잘 살기는 글렀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모두들 진실한 불교 신자가 되어서 그런지 사람들은 착하고 조용한 듯 했으며, 700만이라는 적은 인구 때문인지 가는 곳마다 쓰레기도 덜한 것 같았고, 또한 절을 쓸고 닦듯이 열심히 청소를 하는 것 같았다.

▶우리 세계는 천당? = 목화씨를 빼면서 물레질을 하고 삼베를 짜는 상점에 잠깐 들렀다가 Hmong족의 소수 민족 마을에 들렀는데, 오마하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 더 관심을 가지게 됐다. 6년 의무교육이지만 아이들은 학교라는 것을 모르고 지내고, 거의가 성글성글한 갈대모 두른 캄캄한 방은 물론 전기가 없었다. 방은 흙바닥에 문고리조차 없는 가난한 동네였다. 모든 가난은 무지에서 오는 것이라 생각하니 우리 오마하에 살고 있는 그들은 천당에서 살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몇 블록 떨어진 절이 많은 곳에 갔는데 6시



02/05/2014



↑ 위 사진은 캄보디아의 상징 Angkor Wat앞에서. 아랫 사진은 코끼리 화가가 코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장면이다.

가 지나자 북소리가 울린 후 자그마한 돗자리가 깔린 곳의 걸상에 앉자 안내가 조그만 대나무 밥통을 나에게 주었는데, 해 뜨기 전 30~40명의 중들이 주황색 옷을 한 쪽 어깨에 걸치고 맨발로 늙은 사람부터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밥통을 하나씩 들고 차례

행기로 한시간 거리로 1.7백만이 산다는 두번째로 큰 도시는 지저분했고 먼지도 많았다. Whole Earth란 식당을 찾아서 좀 걸었는데 Massage Parlor상점이 한 집 건너 하나씩 있었다. 아시아나 비행기가 서울서 직접 온다니...한글 간판들이 더 많은 듯 했다.

Kim이란 여자 안내원이 보여주는 전화기에는 이를 전 헤어졌던 Barry와 그의 부모, Harrison내외도 있었고 우리가 도착하기 조금 전 방콕으로 떠났다고 했다. Mae Sa Valley에 있는 코끼리 트레이닝 센터로 50분을 달려서 갔다.

▶영리한 코끼리 = 코끼리 한 마리에 Trainer가 한 사람씩 달려 있었다. 우리가 탔던 코끼리 트레이너는 키가 작고 까무잡잡한 버마 사람이었는데 4년 전 이곳에 와 부인과 딸과 같이 살면서 24시간 그 코끼리만 돌본다고 했다. 여기서 코끼리 70여 마리가 있는 캠프와 코끼리 훈련을 보았으며 타기도 하고, 그들이 그리는 그림을 보았는데 정말 포유류 중 지능은 최고로 발달한 것 같았다. 코로 붓을 쥐고 하늘과 땅, 나무 등 잘 그렸지만 한자로 붙 ‘춘’ 자를 쓰면서 처음 한 획을 빼놓았다가 몇 초 후 한 획을 가해 제대로 글을 썼다. 이들 그림은 400~500달러씩에 팔리고 있었다. 불을 차서 바스켓에 집어 넣기도 하고, 화살로 큰 풍선을 터트리기도 했다. show가 끝나자 관중석으로 가서 코로 땅을 두드렸고 팀을 주면 받아서 주인에게 넘겨주기도 했다.

도중에 Orchid Farm에 들렀는데 250여 종의 꽃들 중 27 종이 있었는데 탐스러웠고 색깔도 매우 아름다웠다. 열 나비 전시관에도 갔는데 희귀 종류들이 많았다.

▶사원의 왕국 = 타이랜드에서 처음 방문한 절은 해발 3,464 feet에 있는데 붓다를 보기 위해선 310(Wa T Doi Suthep)개 층계를 올라가야 했지만 지금은 Hunikuli Humikula를 타고 쉽게 오를 수 있었다. 물론 가는 곳마다 신발은 벗어야 했다. 하다못해 화장실까지. <25면에 계속>

생활 수필

고국 북설악 2011년 6월

김해암(의대 52)NJ
코넬대 의대 부교수

이 수필은 50여년 전 신천웅 함석헌 선생이 북설악 중턱에 위치한 화전민 고장에 개척한 원시 농장을 2011년 뉴욕을 떠나 고국을 방문하면서 그 곳을 답사해 보려 시도했던 때 쓴 것이다.

고국의 초여름은 참으로 아름답다. 늘 듣는 이야기고 또 갈 때마다 보고 느끼는 바지만 신록이 솟아나고 앞을 다투며 자연을 온통 푸르게 단장하는 산과 들을 이번엔 여러 친지들과 함께 경험한 기억이 너무도 아름다워 이 글을 다시 엮어본다.

우리 선조들은 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한반도를 ‘삼천리 금수강산’이라 일컬은 정서를 2011년에 옛 화전민의 생태계를 답사해 보려는 색다른 경험을 통하여 감상할 수 있었다.

6월 21일, 화요일 아침 동서울 어린이 공원 후문에서 씨알 기념사업회 이사장 및 몇 분의 이사님, 사무총장, 그리고 나, 이렇게 5명이 문 목사 차에 올라 GPS의 방향을 강원도 진부령 고개에 두고 차를 몰았다. 어렸을 때 소풍가던 기분과 흡사한 들뜬 마음으로 ‘안반덕’ 여행에 나섰다.

이번 나들이는 분이 선생이 1~2년 계획하여 결행된 여행인 만큼 큰 기대를 모았다. 특히 캐나다에서 젊은 시절을 살았던 정 사무총장은 들뜬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였다.

“저에게 안반덕은 전설의 고장입니다. 함석헌 외할아버지가 알뜰한 젊은이들과 씨앗을 들고 들어가 뿌린 안반덕 고장을 보고 싶은 충동은 언제나 제 마음 속에 도사리고 있었죠”라고 감명깊은 이야기로 꽃을 피웠다.

우리 모두가 이런 낭만의 하루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행운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날씨는 화창하고 초여름 햇살이 온 누리를 적시는 더운 날, 그늘을 찾아갈 정념을 주는 감촉의 기분이 넘쳐 흘렀다.

분이 선생도 “이곳은 나도 40여년 동안 가본 적이 없는 고장입니다. 당시 고읍에서 안반덕으로 들어가는 길가에 학교가 있었는데 그곳에 20대의 아리따운 여대생들이 학교를 등지고 민주화 운

동에 참여했다가 경찰을 피해 이곳으로 와서 이 동네 어린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쳤던 그 낭만의 고장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감개무량하게 말했다.

당시 잊혀지지 않는 ‘인수’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아직 이 고장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고 했다. 그 인수 학생과 우연한 기회에 연락이 되어 고장 안내를 부탁하였다고 한다.

분이 님과는 40여년 전의 사제지만 서로 만나더니 “인수야, 하루 내 주어 고맙다”라고 정겹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 한국인의 정서는 마치 오랜 세월이 지난 시간을 어제 같이 생각하는 특별한 정을 느낄 수 있었다. 서양에서는 있을 수 없는 정이 듬뿍 담긴 대화 속에서 놀랍고 가슴이 찡하는 조국의 정서를 다시금 확인 할 수가 있었다.

진부령으로 향하는 차는 아무작ום 없이 조용한 2차선 도로를 힘차게 달렸다. 춘천 방향에서 동쪽으로 향하는 46번 도로를 타고 인제를 향하여 두 시간여 달리니 차츰 구릉과 밭에서 산중으로 들어서게 되었다. 북설악은 구릉에 가까운 작은 산부터 높은 산까지 웅장장대한 많은 구릉과 산이 겹겹으로 겹쳐 있다. 좀 더 뚜렷하고 높은 봉우리로 올라가면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산과 들과 골짜기가 차곡차곡 에워싸여져 있는 듯이 보인다.

함 선생은 젊어서부터 산을 좋아하였고, 일본 유학에서 돌아오신 후, 당시 서양에서 유행하던 ‘고독과 산보’의 영향이었던 지 고향의 산을 잘 타시고 명상을 하셨다고 했다. 산과 들은 ‘그 산에 그 들’이라고 할 만큼 떼어 놓을 수 없다. 산을 타는 사람들만이 아는 신선노름같은 감상은 산행하는 등산객들만이 공유하는 특권이다.

큰 별이 별로 없는 조선 반도는 참으로 아름다운 산으로 좁은 땅에 잘 조각되어 있다. 옛날에는 길을 걷는 것이 일반의 교통 수단이었으므로 따로 산을 많이 타지 않았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산을 타는 운동이 최고의 운동효과를 내니까 한국인의 등산 열은 미국에서도 잘 알려져 있다.

산을 자세히 보면 산에는 구조가 있다. 풍화작용으로 깎이고 다듬어져 산이 마치 꽃 봉우리의 꽃잎이 에워싸듯 그런 모양을 하

고 있다. 특히 오동통한 꽃일수록 겹층이 풍부한 것처럼 산도 마찬가지로 뾰족하기보다 통통한 산일수록 둘레에 에워싸는 구릉들이 풍부하다. 특히 조국의 산들이 그렇다. 그런 것과 인간관계도 인연이 있을 법 하다.

인제 마을을 돌아 동인제를 지나면서 산 속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최신 2차선 포장도로가 각각 동서로 뻗어 있었다. 이 산장도로는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뚫어져 있어 아름다움을 한 층 더 해주었다. 조국의 도로 공사와 설계 기술에 감탄하면서 내가 미국인의 관점에서 보는 자연의 특이성을 잡아 이런 저런 점을 지적하니 차 내의 모두가 새삼 동의하며 초여름의 경치를 다시 한번 감상하게 되었다. 그리 높지 않은 400m에서 봉우리까지 높아야 1000m도 안될 산들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나는 50여 년이라는 세월을 미국 동북부에 살고 미국화된 감각이 내가 보는 시각을 다양화 해주고 있으리라. 그래서인지 나의 눈은 역시 조국의 자연과 내가 즐겨 등산하는 뉴욕 근교의 산들과 비교를 하게 되어 다시금 감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꽃동산’을 사진기에 담아 놓으면서 진부령 고개에 다다르니 서쪽 편은 한 시간 이상 서서히 올라갔으나, 진부령 고개의 분수령에 이르면 내리막길로 2차선이 꼬불꼬불하게 급강하하여 30분 정도 가면 평지에 도달한다. 군부대들이 사방에 위치하고 있어 휴전선에 가까이 와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분이 선생 제자인 인수 씨가 차에 깜빡이를 켜 놓고 학교가 있는 동네 앞길에 대기하고 있었다. 반가이 인사하는 40년 만에 만난 선생과 제자의 상봉은 아직도 “인수야” “선생님”하는 사이였다. 여자 선생이 60세가 가까운 45여 년 전의 제자, 아직도 옛정이 그대로 살아 있는 조국의 정서, 산과 들처럼 변함이 없고 또 그렇게도 아름다운 수가! 점심 때인지라 인수 씨 안내로 그 고장의 유명한 메밀국수 집에 가서 갈비도 곁들여 푸짐하게 점심대접을 잘 받았다.

점심 후 간성읍을 지나지 않고 곧 바로 골짜기로 들어섰다. 푸른 바다가 멀리 보이는데 우리는 길은 녹음의 골짜기 길을 산을 향하여 올라가는데 양쪽으로 군부대가 곳곳에 있고 포진도 된 군 차량이 좁은 길로 나란히 움직였다. 우리 차는 산골짜기로 약 20여분 올라가니 교차로 주변에 평지가 있고, 집 5~6채가 있

했는데 막상 불교의 나라들을 접하고 보니 종교를 부정하는 공산치하에서도 종교의 뿌리가 깊은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중동 쪽엔 가게 되면 또 한 번 놀라게 되리라는 추측을 하면서...

지금도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다. 작년 아시아 여행사에서 인도차이나 모집광고를 봤을 때 우리 부부만 신청했는데(아프리카는 30여 쌍) 6개월이 넘도록 미국 한인 신청자가 하나도 없었지만 미국 여행사를 보니 일주일에 20~30명씩 가는 group이 있었는데(적어도 3~5년) 이유가 무엇인지 여행이 끝난 지금도 궁금증은 여전히 남아 있다. *** <끝>

동문 시 감상

추억

박평일(농대 69)
미주 동창회 감사

늙음은 시간의 무게,
시간은 소유할 수 없는 것
즐거는 것

시인 푸시킨이 말했든가?
지난 추억들은
그립고 아름답다고

내가 걸어 온 길,
스쳐간 인연들
희미한 추억의 촛불아래
춤추고 있는 저 행복한
그림자들, 가슴이 서럽다.

그래, 추억은
가슴이 피어놓은
한 송이 장미꽃
시간의 무게에 시들지 않는 꽃

나의 마지막 종착역은 어느
메 쫄일까?

차창을 스치는 산자락 풍경들
총알보다 빠르다.
두 눈에 드는 것은
붉게 물들어 가는 석양빛 뿐

곧 길은 어둠이 내리고,
나는 기차에서 홀로 내려야겠지
낡은 추억의 붓집들을
그 자리에 남겨두고

칠혹 어둠 속 플랫폼
누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추억처럼
하얀 함박눈이라도
펄펄 쏟아졌으면 좋으련만
나, 외롭지는 않게

그 때까지
한 순간이라도 눈 붙이지 않고
깨어 있어야겠다 ***

<버지니아 숲 속에서>

었다. 옛 초등학교 교우가 살고 있거나 그 자손들이 살고 있는 바로 그 교차점에 학교가 1960년도에 있었던단다. 지금은 교사와 선생님이 살던 집과 운동장이 있던 평탄한 곳이 옥수수 밭이 되어 옥수수가 채소와 함께 가지런히 줄지어 심어져 있었다.

언덕 오솔길을 올라가느라면 전쟁 때 군부대 도로와 콘크리트 계단만 풀 속에 묻혀 남아 있을 뿐이었다. 낯익은 이곳은 분명 아름다운 학교였으리라. 신학생들과 일반 대학생들이 몰려와 자원 봉사로 학교를 일으켰을 때 함석헌 선생이 그 젊은 여성들이 도시를 등지고 이 산골짜기에 와서 봉사하는 것에 감탄하다 못해 사랑에 뛰어 들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도 들었다.

안반덕! 이곳은 먼 산골 학교가 있는 골짜기 밑에서도 오솔길을 따라 2시간 내지 3시간을 걸어 올라가야 하는 곳이다. 안반덕은 옛날 화전민이 일구어 놓은 흙토지대로 무슨 씨앗이든 뿌리면 돌아나는 비옥한 땅이었다. 그곳에 젊은이들이 씨알을 뿌리려 몰려 들었고 자연을 예찬하다 못해 연센 자연에 부대렸으나, 2~3년의 자연과 씨름하다 함석헌이 뿌린 씨앗을 안고 모두들 제 갈 길을 찾아 간 것은 틀림 없이 역사에 남겨야 할 사실이었다 한다.

소와 염소, 개들을 한 두 마리씩 끌고 올라와 뒤로 솟은 북설악을 지붕삼고 옆으로 뻗은 구릉을 병풍 삼아 젊은이들이 낭만을 꿈꾸었다고도 한다. 물 맑고, 공기 좋고, 땅이 비옥하여 모든 자연적 조건은 이상향답지만 일주일 중 하루는 바닷가 간성 마을에 가야 했단다. 겨울에는 길길이 눈이 쌓여 다닐 수 없는 길을 하루 길로 오르내렸다 한다. 그 후 민주화 운동이 도시로 후퇴하고 새로운 전진태세로 바꾸어 나아갔다 한다. 그런 와중에 낭만은 날아가고 인생에 쫓기고 문명에 찌든 도시로, 학창생활로 그 젊은이들은 돌아갔다고 한다.

함 선생이 가꾸던 채소밭에서 명상의 하루를 꼬박 보내시던 고장이 지금은 먼 산 중에 피는 꽃들의 전설로 남아있을 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고장이 되고, 자연으로 환원되어 있었다.

오솔길로 갈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가다 시냇물을 건너야 했는데 옛 군대가 만들었던 콘크리트 다리가 홍수에 떠내려가고 목초와 덩굴초로 오솔길이 끊어져 시냇물을 건너 올라가는 길이 막혀 버렸다. 길 자국도 찾아보기 어려운 상태였다. 다시 학교가 있었던 마을로 내려와 아쉬움을 달랬다. 시냇물에 발을 담그며, 가지고 간 점심을 먹었다.

목욕을 하고 싶도록 더운 초여름 날 우리는 안반덕의 얼굴이라도 멀리서 보고자 골짜기 밑에 우뚝 솟은 두 바위산을 타기도 하였다. 찾길은 언덕 산을 넘어 간성의 새마을로 갈 수 있는데도 길이 험하여 인수씨의 지프차로 겨우 올라갔다. 관대바위라는 두 개의 봉우리 옆의 앞 봉우리에 오르니, 희미하게 안반덕이 보였다. 북설악의 준령이 병풍처럼 하늘을 두르고 있는 바로 밑에 분지 같은 고장, 미국 원주민 인디언들이 ‘메-사’라고 부르는 평탄한 고산지대 같은 풍경이었다. 우리는 냇을 잃고 바라다 보았다.

“아~호”하며 한 없이 울려 퍼지는 메아리를 치고 또 친 후 뒤를 자꾸 돌아 보며 다시 산 아래로 내려왔다.

처음엔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으나 안반덕을 멀리서나마 보고 가는 심정은 옛 님을 보고 가는 듯한 아련한 정념이었다. 역시 낭만은 아직도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 있는 듯 하였다. 그때의 낭만이 오늘의 한국을 일으켰다는 생각도 해 보게 되었다. 지금 그 때의 일들을 돌이켜 보면 빛나간 민주화 운동도 알고 보면 모두 새로운 한국을 낳기 위한 진통이 아니었던가 싶다.

나중에 돌아오는 길은 한 층 가벼워져 있었다. 한강변을 따라 서울로 향하였다. 아쉬움을 달래기 위하여 양주에 들러 통 현미밥 정식을 주문했는데 자그마치 산채 나물 15종류를 맛볼 수 있었다. 그리고 나니 하루를 지탱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식사 후 서울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다.***

<24면에서 계속>

1782년 Rama 1세 왕 때 만들어진 The Grand Palace는 왕의 거처이기도 했지만 관공서들이 있던 자리로 21,8000 Sq meter의 거대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수도는 Chao Phraya강 건너로 옮겨졌고, 지금은 그 공간에 크고 작은 절들이 산재해 있었다.

아침 햇살에 눈이 부시도록 번쩍이는 Gold Temples, 여러 개의 크고 작은 Gold Buddha, 사람들로 붐비는 Emerald Buddha, 편안히 누워 있는 거대한 70피트의 Buddha, 두 손을 합장하고 있는 Buddha등 너무도 Buddha가 많아 무슨 Buddha를 보았는지 정신을 차

릴 수 없었다.

방콕은 사원들을 모아놓은 총 집산지 같았다. 타이랜드에 있는 사원만 3만3천여개로 아직도 짓고 있으며 가는 곳마다 아름다웠으며 보전도 잘 해 깨끗하고 반짝 거렸다. 관람객, 소원을 빌러 온 사람들, 남을 위해 대신 빌어주는 Monk, 노동자, 사원 안팎에서 인산 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물론 90도를 오르내리는 기온과 습도는 괴로웠지만 에어 쿨이 없는 절들이라 찬 물을 가지고 목을 추가는 수 밖에 없었다.

살아 오는 동안 서양문화에 젖고 또 기독교인으로 살아 왔기에 동양문화와 종교에는 등한시

동창회비•관악후원금•광고 및 업소룩비•기타 후원 동문(2013.7.1 ~ 2014.6.3)

동창회비

▶Alabama
서안희(간호63)
▶Alaska
윤제중(농대55)
하인환(공대56)
▶Arizona
김영철(공대55)
박양세(약대48)
유기석(문리60)
장석용(공대63)
정문필(사대56)
지영환(의대59)
진명규(공대70)
최종태(공대69)
▶California
강경수(법대58)
강동순(법대59)
강동원(수의75)
강명식(의대61)
강영호(의대63)
강윤희(간호72)
강재신(음대61)
강재호(상대57)
강정수(문리61)
강정자(간호61)
강정훈(미대56)
강천호(사대58)
강호석(상대81)
강홍제(상대53)
강희창(공대57)
고석규(치대65)
고석원(문리50)
고영준(음대59)
고용규(의대67)
고재철(공대57)
곽용길(문리59)
권기상(대원72)
권길상(음대45)
권영재(의대57)
권오형(사대61)
권영달(문리50)
권영조(의대65)
권용덕(공대54)
김강수(문리59)
김건진(문리62)
김경숙(간호68)
김경순(대원64)
김경옥(미대61)
김계윤(의대57)
김광은(음대56)
김광하(치대46)
김교복(농대63)
김군빈(법대56)
김기선(간호55)
김기수(공대74)
김기태(의대52)
김기형(경영75)
김길평(상대62)
김낙구(상대67)
김난경(음대66)
김난영(공대53)
김대우(치대62)
김동산(법대59)

김동석(음대64)
김동호(농대58)
김명원(의대62)
김명환(문리67)
김명희(간호67)
김병곤(공대58)
김병완(공대58)
김병호(상대57)
김상엽(공대57)
김상운(약대21)
김석득(농대58)
김석홍(법대59)
김선기(법대59)
김성복(공대59)
김성호()
김성희(의대65)
김수백(치대49)
김수영(사대57)
김순길(법대54)
김순덕(간호61)
김순자(치대57)
김양희(음대77)
김영기(의대54)
김영배(미대61)
김영옥(간호69)
김영춘(수의64)
김영환(법대54)
김영희(간호66)
김완기(사대50)
김원경(약대59)
김원택(공대65)
김원호(약대63)
김용권(문리49)
김용수(경영74)
김운복(음대58)
김의신(의대60)
김은희(치대46)
김익창(의대51)
김재영(공대62)
김재봉(치대62)
김 정(치대59)
김정민(상대58)
김정민(상대58)
김정애(간호69)
김정희(음대56)
김중수(공대74)
김종표(법대58)
김진호(약대64)
김창무(음대53)
김철한(공대57)
김태곤(공대59)
김현광(공대74)
김현철(의대57)
김혜숙(약대77)
김홍복(문리60)
김희재(사대66)
김희창(공대64)
신대식(상대70)
나두섭(의대66)
나민주(음대65)
나승욱(문리59)
남승채(공대66)
남장우(사대56)
노명호(공대61)
노문희(사대59)

림원규(문리57)
문병길(문리61)
문병하(법대51)
문석훈(농대59)
문인일(공대51)
민경탁(의대61)
민병곤(공대65)
민병돈(문리57)
민영기(치대61)
박경룡(약대63)
박노면(사대50)
박병원(의대49)
박성욱(상대58)
박순자(간호60)
박영옥(사대55)
박우성(사회77)
박원준(공대53)
박의순(상대52)
박은숙(미대62)
박인수(농대64)
박인창(농대65)
박임하(치대56)
박자경(사대60)
박제인(약대60)
박종성(법대53)
박중수(수의58)
박찬호(농대63)
박창선(공대55)
박취서(약대60)
박태호(치대66)
박혜옥(공대65)
박홍근(공대64)
방명진(공대73)
배동완(공대65)
배병욱(음대58)
배석민(상대71)
배옥례(간호55)
배효식(문리52)
백산옥(간호77)
백소진(문리55)
백승호(치대55)
백옥자(음대71)
백혜란(미대70)
변영근(수의52)
부영무(치대72)
서동영(사대60)
서영석(문리61)
선우원근(공대66)
성낙호(치대63)
손기용(의대55)
손명세(공대60)
손선행(간호69)
손창순(공대69)
손학식(공대61)
신광재(공대73)
신대식(상대60)
신동국(수의76)
신우식(치대59)
심상운(상대54)
심진숙(간호68)
안백영(공대75)
안병일(의대63)
안병협(공대58)

안호삼(문리58)
양명교(의대55)
양은혁(상대56)
양창효(상대54)
엄세욱(간호69)
엄동해(농대74)
오문성(법대56)
오충자(가정59)
오재인(치대33)
우춘식(상대61)
원미랑(미대65)
유두영(공대55)
유석홍(상대61)
유재환(상대67)
유한택(농대70)
유희자(음대68)
윤경민(법대55)
윤병석(사대51)
윤성희(사대58)
윤성희(공대74)
윤용길(공대55)
윤정옥(약대50)
윤진수(의대57)
이관보(공대55)
이광재(공대59)
이교락(의대53)
이근원(공대67)
이기재(문리52)
이기준(법대54)
이명선(공대58)
이문상(공대62)
이미정(의대76)
이방기(농대59)
이법식(공대61)
이법진(상대60)
이병무(치대70)
이병준(상대55)
이상문(의대54)
이성중(공대56)
이성형(공대57)
이승재(상대67)
이영모(의대53)
이영준(치대63)
이영수(상대60)
이영식(농대58)
이영신(간호77)
이영일(문리53)
이우근(음대50)
이원익(문리73)
이원택(의대65)
이은경(간호80)
이익삼(사대58)
이일복(공대64)
이장길(치대63)
이정근(상대72)
이재권(법대56)
이재룡(공대71)
이재선(농대58)
이정근(사대60)
이정옥(공대52)
이정옥(가정71)
이정희(음대55)

이종걸(상대53)
이종묘(간호69)
이준식(의대61)
이준호(상대65)
이중희(공대53)
이진주(문리55)
이창무(공대54)
이창설(공대57)
이채진(문리55)
이정광(상대61)
이혜영(공대56)
이호진(간호74)
이흥기(공대62)
이흥표(의대58)
이희순(음대64)
이희중(공대68)
이철훈(치대60)
임동규(미대57)
임동호(약대55)
임동호(상대58)
임용오(의대57)
임정란(음대76)
임진자(미대60)
임희배(간호73)
장기열(치대55)
장기창(공대56)
장기화(치대57)
장동석(문리66)
장문섭(공대69)
장 준(인문85)
장진성(약대66)
장종성(공대57)
전경배(의대75)
전낙관(사대60)
전명자(미대58)
전병련(공대54)
전상훈(사대52)
전순열(사대47)
전원일(의대77)
전희택(의대58)
정규남(공대52)
정낙영(음대52)
정대연(치대74)
정동구(공대57)
정동수(가정72)
정두호(공대64)
정수만(의대66)
정예현(상대63)
정원훈(의대38)
정인환(법대54)
정재훈(공대64)
정정순(사대56)
정진수(공대56)
정진화(약대)
정창희(법대54)
정철룡(의대55)
정태부(사대44)
정해창(치대67)
정현진(간호68)
정형민(문리71)

정 황(공대64)
조동준(의대57)
조만연(상대58)
조상하(치대64)
조성운(법대46)
조임현(간호72)
조계길(사대61)
조정시(공대60)
조태목(사대60)
조태준(문리59)
주정래(상대65)
진성호(공대64)
차기민(공대85)
차민영(의대76)
차재철(의대62)
차중환(사대54)
최경선(농대65)
최경희(사회83)
최동욱(의대59)
최상현(의대55)
최상길(치대65)
최수일(법대55)
최승룡(상대53)
최정호(수의62)
최완관(공대57)
최재운(문리54)
최준권(문리59)
최 철(의대62)
최대근(법대48)
최홍수(자연87)
추춘득(공대69)
이명선(음대67)
하지환(공대66)
한상봉(수의67)
한성구(상대53)
한성현(의대55)
한정철(치대62)
한효동(공대58)
허영진(문리61)
현기웅(문리64)
현순화()
홍병익(공대68)
홍선애(미대62)
홍유현(음대61)
홍준만(문리58)
황규현(공대50)
황동하(의대65)
황만익(사대59)
황준오(치대70)
▶Chicago
강영국(수의67)
강창만(의대58)
강화영(문리50)
고병철(법대55)
곽영로(수의72)
구정호(의대59)
권호연(문리57)
김갑조(간호51)
김갑중(의대57)
김광철(공대58)
김상기(문리56)

2014.7~2015.6 회비선납

▶Alabama
유성무(상대66)
▶California
강중경(공대48)
계지영(문리60)
고영준(음대59)
권오형(사대61)
김광은(음대56)
김기선(간호55)
김동산(법대59)
김석홍(법대59)
김 정(치대59)
김혜숙(약대77)
김영서(상대54)
김용건(문리48)
김용자(사대60)
김태형(의대57)
김학래(공대60)
방창모()
손종수(의대50)
안승덕(상대51)
유희자(음대68)
유성무(상대66)
유우영(의대61)
이영진(공대76)
임수암(공대62)
임한웅(공대60)
정경근(농대59)
정양수(의대60)
정인태(의대58)
정일화(상대55)
진창진(의대55)
최재학()
최종진(의대63)
▶Hawaii
김승태(의대57)
김용진(공대50)
김창원(공대49)
문세화(법대57)
송호민(문리52)
유재호(문리59)
전영표(문리55)
장광수(사대51)
최경윤(사대51)
▶Heart land
곽노균(상대51)
구명순(간호66)
권준희(생활87)
김명자(문리62)
김경숙(가정70)
김승희(법대55)
김재권(사대68)
도태형(사회93)
배규영(사대68)
백산옥(문리51)
이경배()
이상강(의대70)
이상문(상대57)
이주현(미대62)
정민재(농대70)
최원운(의대64)
최은관(상대64)

▶Las Vegas
김영중(치대66)
김용재(의대60)
김택수(의대57)
이 관(공대55)
▶Michigan
이시형(사대56)
계동휘(치대67)
김정순(법대53)
박순영(법대56)
박익수(사대52)
서병선(음대65)
양명자(사대63)
유제성(공대65)
이정태(간호74)
정동주(가정72)
차재철(의대62)
황준오(치대70)
▶Ohio
최인갑(공대57)
▶Philadelphia
전희근(의대54)
▶Tennessee
김경덕(공대75)
▶Utah
김인기(문리58)
▶Wa.DC
김시환(공대71)
김영기(공대73)
신용환(의대62)
이유세(사대72)
▶Wa.States
김선호(사대59)

▶Michigan
고광국(공대54)
권순관(공대60)
김국화(공대56)
김원정(의대69)
김정일(의대67)
남성희(의대56)
문광재(의대62)
박준환(의대55)
서정원(공대53)
오동환(의대65)
이상철(의대52)
정 태(의대57)
서영일(의대61)
신강근(공대66)
신동화(문리55)
유효명(의대58)
육대식(의대61)
윤효운(의대63)
이상철(의대58)
이상일(의대54)
이성길(의대65)
이영모(의대53)
임병훈(의대54)
조문희(공대56)
차대양(공대55)
채무원(의대59)
최병두(의대52)
▶Minnesota
권학주(치대59)
김영남(사대53)
김태환(의대58)
남세현(공대67)
박정선(농대60)
변우진(인문81)
성욱진(치대87)
송창원(문리53)
이창재(문리56)
주한수(수의62)

▶Las Vegas
김영중(치대66)
김용재(의대60)
김택수(의대57)
이 관(공대55)
▶Michigan
이시형(사대56)
계동휘(치대67)
김정순(법대53)
박순영(법대56)
박익수(사대52)
서병선(음대65)
양명자(사대63)
유제성(공대65)
이정태(간호74)
정동주(가정72)
차재철(의대62)
황준오(치대70)
▶Ohio
최인갑(공대57)
▶Philadelphia
전희근(의대54)
▶Tennessee
김경덕(공대75)
▶Utah
김인기(문리58)
▶Wa.DC
김시환(공대71)
김영기(공대73)
신용환(의대62)
이유세(사대72)
▶Wa.States
김선호(사대59)

*보내주시는 각종 후원금은
Tax감면 대상이 됩니다.
Federal TIN :13-3859506

서울대학교 미주 동창회 후원금 (회계연도 2013년 7월 ~ 2014년 6월)

성명: 한글		영문		단과대학 및 대학원:		입학연도:	
주소:		전 주소					
업소 이름:		업소 주소					
전화: (B)		(H)	(C)	(Fax)	e-Mail:		
관악후원금	동창회비(구독료)	업소룩 광고비(6개월)		일반광고비		특별후원금	
연 \$200	☐	2013.7~2014.6 \$75	☐	2013.7~2013.12 \$120	☐	명함크기(3.5" x 2") \$120	☐
연 \$500	☐	2014.7~2015.6 \$75	☐	2014.1~2014.6 \$120	☐	1/6면 (5" x 4.5") \$200	☐
연 \$1,000	☐				☐	1/3면 (10" x 4.5") \$400	☐
					☐	1/2면 (10" x 6.7") \$600	☐
					☐	전면 (10" x 13.5") \$1000	☐
					☐	전면(Back 10" x13.5")\$1500	☐
모넬 곳:1952 Gallows Rd.,Suite 206 Vienna VA 22182 Tel(Fax):703-462-9083 e-Mail:snuaausa12@gmail.com							
지불방법(Check 또는 Card) Pay to order of 'SNUAA-USA'							
Visa() Master() American Express() 기타() 전화 <703-462-9083>로() Check No.()							
Card No.:		Security Code:			Expire Date:		
Cardholder's Name:				Date:			
Address No. Only		Zip		Pay to order of SNUAA-USA			

<26면서 계속>

▶N.Carolina

김기현(문리52)

마동일(의대57)

신두식(의대58)

우양구(법대70)

이법세(의대56)

이석형(사대56)

이종영(음대58)

이항열(법대57)

한광수(의대59)

홍 훈(자연)

▶NY & NJ

강석권(법대61)

강성권(공대65)

강신자(간호59)

강에드(사대60)

강영선(공대51)

강재룡(의대51)

강태원(상대62)

계동휘(치대67)

고강희(약대56)

고순정(간호69)

곽노섭(문리49)

곽상준(약대55)

곽선섭(공대61)

권문웅(미대61)

권영국(공대60)

권용구(상대61)

금영천(약대72)

김경순(상대59)

김광수(간호54)

김광현(미대57)

김광희(간호69)

김기훈(상대52)

김동욱(의대55)

김동진(약대56)

김명철(공대60)

김문경(약대61)

김정권(법대63)

김병석(의대53)

김병숙(대원)

김봉련()

김부용(공대71)

김석식(의대58)

김석자(음대61)

김성현(약대56)

김세준(공대50)

김세환(공대65)

김수산(의대52)

김순자(약대59)

김양호(의대51)

김영숙()

김영애(사대56)

김영일(약대58)

김영철(의대55)

김용두(의대58)

김용연(문리63)

김용술(상대56)

김옥현(의대59)

김완주(의대54)

김운수(상대50)

김은섭(의대53)

김인형(미대59)

김자익(의대69)

김정빈(약대54)

김정순(법대53)

김정순(법대57)

김재필(공대71)

김정환(문리60)

김정희(간호69)

김종원(사대58)

김종율(사대51)

김진승(문리53)

김창수(약대64)

김태원(상대62)

김택환(의대61)

김해암(의대52)

김현중(공대63)

김 훈(의대65)

김훈일(공대60)

김희국(약대50)

남상래(간호65)

노용면(의대49)

라준국(공대47)

라찬국(의대57)

문석면(의대52)

문소자(음대60)

민발식(의대60)

민준기(공대59)

박경원(미대66)

박상원(음대69)

박성일(상대58)

박수안(의대59)

박순영(법대56)

박승화(간호69)

박영태(상대63)

박은규(약대72)

박정우(의대54)

박중섭(상대74)

박진우(상대77)

박찬명(약대57)

박현성(약대60)

반영철(약대54)

방신자(간호59)

배명애(간호47)

배상규(약대61)

백낙환(약대56)

백윤자(간호64)

변건웅(공대65)

변영근(수의52)

서병선(음대65)

서영숙(간호67)

서충선(사대57)

선우치민(약54)

선우문혜(약59)

선종철(의대57)

석창호(의대66)

성기로(약대59)

손경택(농대57)

손광호(의대59)

손완배(농대70)

송근숙(간호66)

송기인(의대60)

송병문(공대62)

송영순(사대60)

송영우(사대64)

송용섭(농대63)

신남철(인문81)

신두식(의대58)

신의정(음대55)

신정택(약대62)

안이섭(법대53)

안태홍(상대65)

양거영(의대49)

양명자(사대63)

양성택(상대66)

엄종열(미대61)

우관혜(음대63)

우상영(상대55)

유 강(의대64)

유영호(의대52)

유재룡(공대58)

유탕상(문리58)

육순재(의대63)

윤병하(농대80)

윤봉균(사대54)

윤영섭(의대57)

윤인숙(간호63)

윤정옥(약대50)

윤준식(법대58)

이강욱(공대70)

이경림(상대64)

이경태(공대63)

이국진(사대51)

이근수(상대64)

이능식(의대57)

이대연(약대65)

이명준(공대72)

이문봉(미대76)

이병무(법대58)

이성구(약대56)

이성기(간호72)

이승철(약대66)

이시진(문리54)

이영숙(간호56)

이영애(농대59)

이용대(약대63)

이운순(의대52)

이유성(사대57)

이유찬(의대58)

이재진(의대59)

이정자(간호59)

이종대(약대65)

이중식(약대57)

이종환(법대51)

이준행(공대48)

이중준(공대56)

이중오(의대63)

이태상(문리55)

이태형(문리62)

이희경(의대55)

임진식(음대54)

임공세(의대63)

임대목(의대60)

임충섭(미대60)

장영진(법대59)

장영자(간호68)

전병삼(약대54)

정도현(공대57)

정순기(문리69)

정인식(상대58)

정창동(간호45)

조규웅(의대59)

조남진(사대59)

조달훈(사대66)

조대영(공대61)

조성준(의대58)

조숙자(간호59)

조영일(공대68)

조종수(공대64)

조태환(상대56)

조희재(음대58)

주선후()

차국만(상대56)

천병수(공대70)

최구진(약대54)

최수강(의대65)

최영태(문리67)

최영혜(간호64)

최원로(의대42)

최일단(미대55)

최준희(의대58)

최치권(상대53)

최태식(의대69)

최한용(공대56)

최한용(의대58)

최형무(법대69)

최 호(문리61)

한성호(약대60)

한영진(의대61)

한태진(의대58)

함종금(간호66)

허경열(의대73)

허병열(사대42)

허선행(의대58)

허정열(사대63)

홍선경(의대58)

▶Ohio

김동광(공대62)

명인재(자연75)

박 철(사대58)

성종원(수의75)

송용재(의대63)

여준구(의대64)

이건일(의대62)

이명진(공대56)

이영웅(의대56)

최인갑(공대57)

▶Oregon

김상안(음대46)

김상순(상대67)

박희진(농대78)

성성수(사대67)

이은철(상대73)

전희근(의대54)

정용남(문리60)

한국남(공대57)

한영준(사대60)

▶Philadelphia

강영배(수의59)

강준철(사대59)

고병은(문리55)

고영자(치대63)

김국간(치대64)

김규화(상대63)

김동한(문리53)

김무형(약대63)

김상철(농대64)

김영우(공대55)

김순주(치대95)

김종균(의대63)

김주진(법대54)

김현영(수의58)

남영선(공대79)

문대옥(의대67)

민홍식(수의60)

박영환(약대68)

박호원(의대52)

배성호(의대65)

서의원(공대66)

서재진(공대47)

서중민(공대64)

손재옥(가정77)

송성균(공대50)

송영두(의대56)

신선자(사대60)

신성식(공대56)

신영식(공대76)

심완섭(의대67)

안세현(의대62)

양운택(의대58)

양국용(의대54)

오진석(치대56)

원종민(약대57)

윤정나(음대57)

이명진(공대56)

이만택(의대52)

이병인(수의69)

이성배(수의59)

이성중(가정74)

이송옥(사대64)

이우영(공대56)

전무식(수의61)

전방남(상대73)

전희근(의대54)

정용남(문리60)

정홍택(상대61)

제갈은(문리59)

미주 동문 업소록

광고 문의는 전화
(703) 462-9083

CA

남가주

공인회계사

강동순 회계사
강동순 (법대 59) (310) 538-9315
19401 Vermont Ave. Suite C-201
Torrance, CA 90502
kangdon@att.net



김재영 공인회계사
* 김재영 (농대 62) (213) 385-1985
2960 Wilshire Blvd.#300, L A, CA 90010

신대식 공인회계사
* 신대식(상대 60)
(310) 329-6557
555 W. Redondo Beach Bl., #260,
Gardena CA 90248

Kim & Kang CPA's
(김경무 강정옥 공인회계사)
김경무 (공대 69)
(213) 616-1390
3435 Wilshire Blvd. #1150 Los Angeles, CA 90010

AAMKO Consulting Co.
강신용 공인회계사
강신용(사대 73)
213-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인문대 76)
(213)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4 LA, CA 90010

강호석 회계사무소
강호석(상대 81) 714-530-3630
12912B rockhurst St. #370
Garden Grove CA 92840 213-380-5060
3600 Wilshire Blvd. #1004 LA CA 90010

STANLEY Cha, CPA
차기민(공대 85)
213-739-5700, 714-525-1821
schacpa@gmail.com
3440 Wilshire Blvd. #807 LA CA 90010
229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Jun Chang CPA
장 준(인문대 85)
818-772-2811 213-481-0100
junchangcpa@hotmail.com
19520 Nordhoff St. #16 Northridge, CA 91324
1100 Wilshire Blvd. Suite 2904 LA, CA 90017

재정/보임

Paramount Planning Group
조임현(간호대 72)
213-487-3253
3435 Wilshire Blvd. Ste.2500 LA CA 90010
im.cho@axa-advisors.com

운송/유통/통관/원자재

SeAH Steel America, Inc.
유통/강관도매
이병준(상대 55) (562)692-06009
9615 S. Norwalk Blvd., #B,
Santa Fe Springs CA 90670

엔지니어링 컨설팅

Lee & Ro, Inc.
노명호(공대 61)
(626) 912-3391
1199 S Fullerton Rd City of Industry CA 91748

건축/컨설팅

Mackone Development Inc.
양태준(상대 56)
(213) 252-9506
2244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농대 74)
(714) 641-4730
1526 Brookhollow Dr,Santa Ana CA 92705

의료/약국

Gilbert Pharmacy I
* 최무식 (약대 66)
(714) 638-8239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정수만 암내과 · 혈액내과
정수만(의대 66) (714) 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식품/음식점

자연나라 Jayone Foods, Inc.
이승훈(상대 74)
(562)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치과병원

황준오 D.D.S.
황준오(치대 73) 408-732-0493
877 W.Fremont Ave.#H3
Sunnyvale CA94087

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치대 81)
(213) 365-1008
3240 Wilshire Blvd.# 510 LA. CA 90010
ddsshp@yahoo.com

재정/컨설턴트



김기형(상대 75)

Michael Kim
CEO
3435 Wilshire Blvd. #2820
Los Angeles, CA 90010
Office: (213) 505-8102
Cell: (626) 722-7835
Fax: (213) 947-1521
E-MAIL: MichaelK@UnitedProjects.US
www.UnitedProjects.US

서비스/자동차/재정/보험

A.P.W. 자동차 부품
서동영(사대 60)
(310) 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비영리법인 애양 극지에너지

International Society of Off
shore & Polar Engineers
정진수(공대 56)
(650)254-1871. 495 N.Whisman Rd.
Ste.300 Mt.View CA 94043

동물병원

Francis Animal Hospital
최재현(수의대 66)
909-627-0951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91710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수의대 67)
510-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94805

변호사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 (사대 81)
(213) 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os Angeles, CA 90010

부동산/교외

Teamspirit Investment & Dev.
이종묘(간호대 69)
714-396-0624 949-251-0404
30 Corporate Park, Ste.207, Irvine
CA 92606

라 캐나다 한인교회
독고 원(공대 65)
818-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리테일러/보석

세계보석
김광철 (음대 59)
(213)627-0547
650 S. Hill St. #E 8 LA, CA 90014

두리 하나 결혼정보

높은 성혼율과 많은 초혼, 재혼자 데이
트 중. 서울대 동문과 동문자녀 특별할인
정지선(상대 58) 510-224-0760, 2910
Telegraph Ave. Ste.200 Oakland
CA 94609 www.2makes1.com

클리닉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농대 80)
909-882-3800(B) 714-323-8612(C)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우주개발/기술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공대 64)
714-952-2240
10874 Hope St.PO Box6034 Cyoress CA 90630
jc@taycoeng.com www.taycoeng.com

NY-NJ 뉴욕/뉴저지

공인회계사

Changsoo Kim, CPA P.C.
* 김창수(약대 64)
(212) 760-1768 (917)647-0606
38 W 32St Suite #900 New York NY 10001
changsookimcpa@hotmail.com

Kenneth K. Lee CPA
이경림(상대 64)
(212) 768-9144
1430 Broadway Suite 906
New York NY 10018

리테일러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농대 60)
(212) 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Young Tai Choi E.A.
* 최영태(문리 67)
(212) 695-0206
13 E 30th St. 2Fl New York NY 10016

American Int'l Line, Inc.
윤병하 (농대 80)
(718) 995-7060
147-38 182nd St.Jamaica, NY 11413

건축/부동산

Evergreen Realty
이재원(법대 60)
201-944-5353
242 Broad Ave.Palisades Park NJ 07650

김주현 건축사무소
김주현(공대 93)
347-213-3516
150 S. Middle Neck Rd. #10
Great Neck NY 11021

북가주

엔지니어링

International Society of Offshore &
Polar Engineers 정진수(공대 56)
650-254-1871
495 N.Whisman Rd.# 300 Mt.View CA 94043

조지아

Auto Plaza Group, INC.
이영진(공대 76)
404-579-8282
4132 Bedford Hwy Duluth GA 30096

PA 필라델피아

동물병원/건축 설계

Cottman Animal Hospital
주기목(수의대 68)
215-745-9030
1012 Cottman Ave. Philadelphia PA 19111

Timothy Haahs & Assoc.
손재옥(생활과대 77)
484-342-0200
550 Township Line Rd. Ste.100 Blue Bell PA 19422

이즈미 일식당
최종문(공대 61)
(267) 408-7342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TX 텍사스

산업/건축

C&C Industries INC.
진기주(상대 60)
713-466-1644
10350 Clay Rd., Ste.250 Houston TX 77041
kc@candcvalve.com www.candcvalve.com

MD,VA 워싱턴DC

치과

이준영 치과(치대 74)
(301) 220-2828 (301)926-9692
6201 Greenbelt Rd.SieU-10. College Park MD 20740
8931shady Grove Ct.Gaithersburg MD20877

부동산

BPS Appraisal Company
박평일(농대 69)
(703) 750-1707
7518 Evans Ford Rd. Clifton VA 20124

모터/기계/전기

Drivetechn, Inc
엄달용(공대 69)
703-327-2797
Carrington Drive, Chantilly, VA 20152

재정/보험/컨설팅

Fairway Asset Corporation
남옥현(경영대 84)
301-279-6969.
414 Hungerford Dr.#203 Rockville MD 20850

C & N 종합보험 / 뉴욕 라이프
정세근(자연대 82)
703-663-8400(O) 703-785-8467(C)
1952 Gallows rd.Ste 214 Vienna, VA 22182

NE 네바다

Best Care Dental
김영중(치대 66)
702-384-2828 702-480-7115
5205S Durango Dr. #103 Las Vegas NV89113

OR 오레곤

Flonomix Inc.
박희진(농대 78)
612-418-5393
P.O.7416 Beaverton OR.97007

동문 신간

■ 커튼을 제끼면서 -李相日 외 지음

‘菽麥’ 동인 회원인 李相日(독문 53 - 57) · 鄭鎮弘(중교 56 - 60) · 朱鍾演(국문 60졸) · 郭光秀(불문 59 - 65) · 李翊燮(국문 56 - 60) · 金璟東(사회 55 - 59) · 金明烈(영문 62졸) · 金相泰(국문 56 - 60) · 金學主(중문 52 - 56) · 金容稷(국문 58졸) · 金在恩(교육 50 - 54) · 金昌珍(국문 57졸) · 李相沃(영문 58졸) 동문 등 13명의 저자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오롯이 담아낸 에세이집.

표제작 ‘커튼을 제끼면서’에서 金在恩동문은 “아침에 일어나서 커튼을 제끼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과가 됐다. 왜냐하면 매일, 아침이 나를 맞이해 주기에 내가 살아 있고 새날이 탄생하기 때문이다” 라고 적고 있다. <푸른사상刊 · 값17,000원>

■ 북한정치 변천 神政체제의 진화과정 - 李相禹 지음

신아시아연구소 李相禹(행정 57 - 61 서강대 명예교수)소장이 최근 북한정치체제의 변천을 다룬 책을 펴냈다.

이 책은 李동문이 앞서 출간했던 ‘북한정치입문’(1997년, 2000년)과 ‘북한정치’(2008년)의 후속서로 분단 이후 태어난 한국인의 북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출간했다.

李동문은 이 책에서 북한이 이미 세상을 떠난 시조 金日成의 초인간적 권위에서 통치권의 타당근거를 찾는 神政체제로 변질돼 북한의 國體는 민주주의도, 인민주권 및 공화주의도 부인하는 1인 지배의 전제주의·전체주의 신정국가라고 소개한다. <오름刊 · 값22,000원>

■ 뇌의 비밀 - 徐維憲 지음

한국뇌연구원 徐維憲(의학 67 - 73)원장은 창조의 본산이며, 인류

최후의 도전인 뇌의 비밀을 일반인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고 밝힌다.

그간 뇌에 관해서는 순수과학적 입장이나 신경 정신이상의 치료를 위한 의학적 입장에서 주로 다뤄져 왔지만, 이제 일반인들에게도 ‘뇌의 비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나 자신과 자신의 내면세계에 대해 깊은 성찰을 할 수 있으며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다양한 측면에서 뇌에 대해 접근하면서 뇌 연구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으며, 인간의 성격과 인지형태, 지능, 감정과 행동 등 뇌에 관한 전반적이고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살림刊 · 값4,800원>

■ 헤이안의 사랑과 풍류 이세 모노가타리 - 高善允 지음

백석예술대 외국어학부 高善允(동양사학 84 - 88)겸임교수가 펴낸 연구서.

‘이세 모노가타리(伊勢物語)’는 일본 詩歌인 와카(和歌)를 중심으로 1백25개의 짧은 이야기로 이뤄진 헤이안 시대(794~1185년)의 작품이다. 큰 골격은 아리와라 나리히라로 생각되는 남자의 일대기를 그리고, 동시에 미의식 ‘미야비’에 여파된 헤이안 당시의 이상적 인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 책은 8개의 장을 통해 헤이안 시대 문학 세계의 미의식을 관통하는 ‘미야비’라는 이념에

접근한다. 20여 년에 걸친 저자의 세밀하고도 진솔한 연구를 통해 일상적 틀을 벗어난 마음의 흐름을 와카로 구현한 미야비 문학 ‘이세 모노가타리’를 이해함과 동시에 헤이안 시대 사랑과 풍류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다. <제이앤씨刊 · 값24,000원>

■ 사회사상과 정치 이데올로기 - 梁佑炫 · 卞鍾憲 옮김

제주지방자치회장을 맡고 있는 제주대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梁佑炫(정치 74 - 83)교수가 교육대학 卞鍾憲(국문윤리교육 83 - 87)교수와 함께 호주 퀸즐랜드대에서 교재로 사용되고 있는 앤드류 헤이우드의 저서를 우리말로 옮겼다.

정치학 연구가 앤드류 헤이우드가 쓴 이 책의 주요한 장점은 그가 이데올로기를 진지하게 다루고 있으며, 또 고전적인 서구 이데올로기들의 다양한 특징들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최근의 이데올로기적

사고의 방향과 새로운 논점에 대해서도 인내심을 갖고 놀라울 정도로 명확하게 천착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서출판 오름刊 · 값23,000원>

■ 바다 위의 소녀 - 정지현 옮김

프랑스 그르노블대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정지현(본명 韓石賢 원자핵공학99 - 06)동문이 프랑스 시인이자 소설가인 쥘 슈페르비엘의 단편소설 12편을 번역했다.

우주적인 시적 세계를 구축한 쥘 슈페르비엘의 단편들은 불가사의한 세계를 무대로 전혀 예측하기 힘든 이야기가 펼쳐진다.

삶과 죽음, 동물과 인간, 현실과 몽상, 지상과 천상이 서로를 마주대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가능해지는 저자의 ‘우주’로 들어가 ‘시적 환상’으로 채색된 기묘한 이야기들을 만나볼 수 있다. <이모선복스刊 · 값14,000원> ***

커튼을 제끼면서
이성일 · 정진호 · 주영민 · 박광수 · 이인식 · 김희철 · 김현철 · 김상태 · 김기주 · 김복직 · 김재호 · 김현진 · 이상환

북한정치 변천
신정(神政)체제의 진화과정
이상우 지음
Evolution of North Korean Theocracy
Rhee Sang-Woo

헤이안의 사랑과 풍류
이세 모노가타리(伊勢物語)
고선용

북한정치 변천
신정(神政)체제의 진화과정
이상우 지음
Evolution of North Korean Theocracy
Rhee Sang-Woo

사회사상과 정치 이데올로기
An Introduction
梁佑炫 · 卞鍾憲 옮김

뇌의 비밀
Science·Medicine·Science·Technology
서유연 지음

바다 위의 소녀
L'enfant de la haute mer
정지현 옮김

동문 작품 지상 전시회
이병석 작

환화-버림이 머무는 곳, Oil Mixed Media, 53×41cm, 2013년

<작가약력>
▶1962 모교 회화와 졸업
▶개인전 11회
▶1984 아시아현대미술제 국제상
▶제94회 프랑스 앙데팡당 국제전
▶MAN I F 한국구상대전 · 서울국제현대미술제 · 서울시미술대전

초대전
▶대한민국미술대전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장, 서울미술대전 심사위원장, 진주개천미술대전 심사위원장 역임
▶현재 한국미협 · 서울미협 고문, 국가보훈문화예술협회 상임고문

원고 청탁

▶시·수필·칼럼·여행기·독후감·기타 = 동창회보는 모든 동문들의 글을 게재하고 있으니 언제나 글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와 내용은 제한이 없습니다만 지나치게 정치사회적, 또는 이념적으로 민감한 내용이거나 동문간 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것은 편집위원회에서 다소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교적으로도 너무 치우

친 내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량은 특집이 아닌 경우 A-4(Letter)용지 3~4매 이내로 열 글자진과 연락처를 첨부해주시시오.

▶My Journey to America = 동문들의 지나 온 과거를 그리는 연재 'My Journey to America' 시리즈에서 최근 최용완(공대 57) 동문님의 글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모든 동문들께서는 이 시리즈에 글을 써서 앞으로 자신의 자서전으로 이용할 수도 있으니 이를 많이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주간>

‘편집후기’

○...컬러사진 인쇄효과 = “미주 동창회 웹사이트(www.snuaa.org)에 게재된 컬러 사진에 비해 동창회보에 게재되는 컬러 사진의 상태가 왜 그리 좋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이따금씩 받고 있습니다. 원인은 인쇄상의 문제로 우선은 종이의 품질 즉 지질(紙質)의 차이를 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인쇄 기술에 의한 차이가 또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동창회보 인쇄상에는 소자망점(素子網點)이 육안에

도 두드러지게 보일 정도의 크기로 인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뛰어난 인쇄일수록 망점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인쇄소를 택했느냐고 할 것입니다. 현재 미주 동창회보는 총 6천700여부가 인쇄돼 각 동문님들 자택으로 발송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 동문 주소 label을 하나 하나 붙인 뒤 다시 우체국까지 배송 서비스를 해주는 인쇄소를 찾아야 하는 데 그리 혼치 않습니다. 설령 그런 인쇄소를 찾는다 해도 가격이 큰 문제입니다. 이런 점 널리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순식간에 지나간 1년 = 정말 빠른 것 또한 세월이라고 할까요. 6월호를 마감했으니 이제 이곳 버지니아 생활도 딱 1년 남았습니다. 필자가 캘리포니아에서 지난 해 7월 초 이곳 버지니아로 이사를 온 지 벌써 1년이 지나간 것입니다. 과거 서울의 언론사에 있을 때 선배 중 하나가 “수요일만 되면 그 한 주일은 전광석화같이 지나간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실감하고 있는 것은 일주일이 아니라 1개월이 그냥 훌쩍 훌쩍, 너무나도 빠르게 흘러가는 느낌입니다.*** <편집주간>

미주 동창회 조직과 임원단

서울대 미주 동창회 제12대 회장단 및 임원

역대 회장

박윤수(문) · 강수상(의) · 이병준(상) · 오인석(법) · 이용락(공) · 오흥조(치) · 이영목(공) · 이진구(농) · 송순영(문)

명예회장 : 김은종(상)

제12대 회장 : 오인환(문)

차기 회장 : 손재욱(가정)
관악후원회 부회장 : 김인순(가정)
Brain Network담당 부회장 : 이재진(문)
미 주류사회 담당 부회장 : 공순옥(간)
관악세대 담당 부회장 : 이원영(사회)
사회봉사 담당 부회장 : 권기현(사대)

상임고문 : 박윤수(문) · 이영목(공)

집행부 임원

사무총장 : 정평희(공)
총무국장 : 한정민(농)
조직국장 : 백옥자(음)
재무국장 : 유홍열(자연)
광고국장 : 함은선(음)
사업국장 : 김정식(농)
섭외국장 : 이우진(농)
기금모금위원장 : 권철수(의)
IT개발위원장 : 손재욱(가정)

회보 임원

발행인 : 오인환(문)
주필 : 백순(법)
편집위원장 : 장경태(사)
편집주간 : 이기준
편집위원 : 윤경의(공) · 서윤석(의) · 이윤주(상) · 이해덕(상)
정평희(공) · 김정식(농) · 진학송(약) · 함은선(음)
이나래(경) · 각 지역 동창회 편집간사

논설위원장 : 이항열(법)

논설위원 : 김일훈(의) · 고병철(법) · 조동준(의) · 이재진(문)
최용완(공) · 정홍택(상) · 윤상래(수의) · 김창수(약)
차민영(의) · 이석구(문) · 김용현(경) · 유재풍(문)
장석정(법) · 하용출(사) · 민경훈(법) · 이원영(정)

회칙위원회

위원장= 한재은(의)
위원= 서중민(공) · 이민언(법) · 윤상래(수의)
김지영(사) · 신응남(농) · 함은선(음)

감사 : 박평일(농) · 주기목(수의)

*사진·취재·기사작성·편집·디자인= 이기준 편집주간
snuaausalkj@gmail.com snuausa12@gmail.com
*인쇄= Silver Communications
102-A Executive Dr., Sterling, VA 20166

각 지역 동창회 회장단

남가주	회장	이서희(법대 70) 213-840-2064 steelapt@gmail.com	회계년도 Feb-Feb
	차기회장	박해옥(간호대 69) 818-952-2871	
북가주	회장	이장우(문리 72) 408-891-0200 president@snuaa-nc.org	Jan-Dec
	부회장	박희례(간호 73) 831-818-2959 acuheerei@hotmail.com	
뉴욕	회장	박상원(음대 69) 917-324-2989 sangparkny@gmail.com	Jan-Dec
	차기회장		
뉴잉글랜드	회장	장수인(음대 76) 978-821-9434 sooihnee@comcast.net	
	차기회장	이경애(인문 73) 978-479-0046 kyungaelim@gmail.com	
달라스	회장	최연(공대 70) 817-919-3057 younchoy@sbcglobal.net	
	차기회장	오기영(공대 73) 214-457-7974 kiyoungoh@gmail.com	
룩키마운틴스	회장	김영일(법대 64) 719-321-9989 youngisaackim@hanmail.net	
	차기회장		
미네소타	회장	변우진(인문대 81) 952-926-0040 woodlaw@yahoo.com	
	차기회장	조해석(공대 84) 952-807-6559	
샌디에고	회장	최흥수(자연대 87) 858-259-5273 heungsoo.choi@knobbe.com	
	부회장	김주성(농대 83) 858-213-5666 briankim00@yahoo.com	
시카고	회장	김호범(상대 69) 847-657-8919 hkim@moogong.com	Jan-Dec
	부회장	김용주(공대 69) 630-235-9387 kimyongjoo@msn.com	
애리조나	회장	오윤환(문리대 56) 520-271-2601 younhwan-oh@yahoo.com	
	차기회장		
앨라스카	회장	윤제중(농대 55) 907-223-0887 jaejyoon@hotmail.com	
	차기회장	배석현(농대 58) 907-561-0818	
오레곤	회장	김기린(사대 75) 360-213-5476 blueberryfield@gmail.com	
	차기회장		
오하이오	회장	송원길(의대 58) 614-378-2918 wonsong3140@aol.com	
	차기회장		
워싱턴 DC	회장	함은선(음대 77) 703-969-3006 samilauri2010@gmail.com	Jul-Jun
	차기회장	장경태(사대 75) 703-901-3770 jangkent@gmail.com	
워싱턴주	회장	이원섭(농대 77) 206-954-1871(C) wonlee@qbmintl.com	
	수석총무	임현민(공대 84) 425-444-3899 heonmin.lim@microsoft.com	
유타	회장	정경완(자연대 83) 801-897-4060 Kyungwan@mathradar.com	
	부회장		
조지아	회장	김동현(상대 68) dhkimkim@hotmail.com	
	부회장	강창석(의대 73) 314-363-8396 kangs5@gmail.com	
중부 텍사스	회장	김성근(법대 78) 512-750-4680 hi5chris@gmail.com	
	부회장	이주희(음대 89) 512-663-0931 Juhee.williamson@gmail.com	
필라델피아	회장	한중희(공대 80) 484-354-3547 jhan9@its.jnj.com	Jan-Dec
	부회장	유기병(문리 64) 215-822-5248	
플로리다	회장		
	부회장		
캐로라이나	회장	정신호(자연대 78) 919-928-9696 sinho.jung@duke.edu	
	차기회장	이상구(자연대 78) 919-610-2830 slee109@nc.rrr.com	
테네시	회장	박재현(자연대 81) 865-696-9066 jae.park99@gmail.com	Jan-Dec
	부회장	백승준(농대 85) 865-974-8216 865-671-3602 sbaek2@utk.edu	
하와이	회장	김용수(농대 75) 808-394-2369 ykim@hawaii.edu	
	차기회장	성낙일(해양 77)	
하틀랜드	회장	이상강(의대 70) 918-687-1115 wanjunhada@gmail.com	
	차기회장		
휴스턴	회장	이호성(공대 72) 281-877-6584 hlee@eagle.org	Jan-Dec
	부회장	최인섭(공대 75) inchoi@msn.com	
캐나다 밴쿠버	회장	이명규(농대 69) 778-378-7339 nycmikelee@gmail.com	
	부회장	김종욱(공대 70) 604-524-0101	
캐나다 앨버타	회장	조용희(자연 82) 403-620-8261 dalhousiedq@hotmail.com	
	부회장		

A Tasty Gift From The Sea

Seaweed Snacks are versatile and can be used for a variety of dishes!

대표 이승훈(상대 74)

562-633-7400
www.jayone.com

facebook.com/JayoneFoods

twitter.com/JayoneFoods

youtube.com/user/Koreanfoodmart

JW 토닉 샴푸

HAPPY SEEDS INCORPORATED

novitausa

Something better for you

세정력의 차이!
욕실품격의 완성
노비타 비데

• 서울대 동문에게는 10%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좋은사람만나 결혼해 듀오

믿을 수 있는 한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본국에서도, 미국에서도, '결혼' 하면 누구나 듀오를 떠올립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대한민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믿을 수 있는 듀오에서 당신의 인연을 만드세요.

듀오

• 소비자가 인정하는 프리미엄 브랜드: 듀오와 믿음, 서비스까지 고객이 인정하는 결혼정보회사입니다.

• 듀오만의 매칭 프로그램: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매칭 프로그램으로 이상형을 찾아드립니다.

• 베테랑 커리어매너: 전문적이고 믿을 수 있는 커리어매너가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 드립니다.

• 본국 회원검색: 본국 회원과의 만남을 원할 경우, 2만 6천명이 넘는 회원 중 가장 잘 맞는 상대를 찾아드립니다.

한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LA지사 3055 Wilshire Blvd. #505 LA, CA 90010 / 뉴욕지사 2050 Center Ave. Suite 540 Fort Lee, NJ 07024

문의 LA 213-383-0077 / NY 201-242-0505

재미서울대 여행동아리와 함께하는 한스여행사!

한스에서 직접 모시고 가는 모든 단독 여행 상품들은 차별화된 고급 여행 상품들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활력과 에너지를 선사해 드립니다.

재미 서울대 여행동아리와 함께 했던 여행지들

1차 2007년 지중해 크루즈 여행

2차 2008년 이집트와 나일 크루즈

3차 2009년 네덜, 인도 여행

4차 2010년 러시아, 발틱 여행

5차 2011년 페루, 브라질 여행

6차 2012년 발칸반도 9개국 여행

7차 2013년 아프리카 사파리 투어

2014년 한스관광이 직접 모시고가는 여행

• 2월 03일(월) - 2월 08일(금)
코스타리카 4박 5일 **SOLD OUT**

• 2월 17일(월) - 2월 28일(금)
HOLY LAND / EGYPT, ISRAEL, JORDAN 성지순례 11박12일 **SOLD OUT**

• 3월 03일(월) - 3월 15일(토)
THE BEST GREEK ISLANDS 7박8일

• 4월 01일(화) - 4월 11일(금)
PERU/AMAZON 잉카의 신비 10박11일

• 4월 01일(화) - 4월 15일(화)
PERU/AMAZON 잉카의 신비 + 브라질 이과수, 리오데자네이로

• 4월 07일(월) - 4월 19일(토)
GREECE / TURKEY 12박13일

• 4월 14일(월) - 4월 21일(월)
맛따라 맛따라 고국 전국일주 (홍도, 흑산도 및 해변열차) 7박8일

• 4월 22일(화) - 4월 25일(금)
방콕 3박4일 (POST TOUR)

• 4월 18일(금) - 4월 27일(일)
Amadeus 동유럽 스페셜 9박 10일

• 5월 02일(금) - 5월 12일(토)
서유럽 10박11일 **SOLD OUT**

• 5월 02일(금) - 5월 15일(목)
크로아티아+발칸 1차 13박 14일

• 5월 04일(일) - 5월 13일(화)
베네룩스 & 프랑스(노르망디) 9박10일 - 2014년 SNU Group Tour

여행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쿤데호프, 헤이그)
- 벨기에 (브뤼셀, 브뤼헤 - 룩셈부르크(룩셈부르크)
- 프랑스 (파리, 도발, 몽생미엘, 루아르, 파리)
여행경비: \$2890 per person (미국 출발 국제선 항공비 불포함)

• 5월 7일(수) - 5월 17일(토)
서유럽 10박11일

• 5월 15일(목) - 5월 28일(수)
크로아티아+발칸 2차 **SOLD OUT**

• 5월 22일(금) - 6월 02일(월)
스페인 북부 11박 12일

• 7월 03일(목) - 7월 16일(수)
RUSSIA / NORTHERN EUROPE 13박14일 - 1차

• 7월 9일(수) - 7월 15일(화)
Amazing Korea Trip (1.5세를 위한 고국 가족여행 '신상품')

• 7월 28일(일) - 8월 10일(일)
RUSSIA / NORTHERN EUR **SOLD OUT**

• 8월 10일(일) - 8월 23일(토)
WONDEROUS LAND, AFRICA TOUR 13박14일

• 9월 4일(목) - 9월 14일(일)
서유럽 10박11일

• 9월 12일(금) - 9월 21일(일)
보헤미안 동유럽 9박10일

• 9월 21일(일) - 9월 28일(일)
크로아티아와 휴일 + 옥토퍼 페스티벌 7박8일

• 9월 22일(월) - 10월 5일(일)
그리스 터키 13박14일

• 9월 29일(월) - 10월 12일(일)
포르투갈, 모로코, 스페인 13박 14일

• 10월 7일(화) - 10월 15일(수) - 1차 출발

맛따라 맛따라 고국일주 (홍도, 흑산도 및 해변열차) 7박8일

• 10월 15일(수) - 10월 23일(목) - 2차 출발

맛따라 맛따라 고국일주 (홍도, 흑산도 및 해변열차) 7박8일

• 10월 25일(토) - 11월 9일(일)
CHINA & THE ESSENCE OF SOUTH EAST ASIA 15박16일

• 10월 27일(월) - 11월 7일(금)
이스라엘 & 요르단 11박12일

HANS WORLD TRAVEL
Toll Free: 800-963-4267 / T. 703-658-1717, 301-770-1717, 410-480-9898
Fax. 703-658-3110, www.hanstravel.com, 7601 Little River Tnpk, Suite 102, Annandale, VA 22003



New York Golf Center, INC.

골프 인생

1. 치는 법을 배움

골프를 치려거든 치는 법을 배우시게
팔과 어깨 목에서 힘을 주욱 뺏으시고
백 스윙은 천천히 공에서 눈을 떼지 말고
고개를 들지 말고 외아들에 정성 쏟듯
하얀 공에 정성들여 다운스윙도 천천히
스~슬쩍 찰싹 하고 내려치는 느낌이라.

2. 예의를 지킴

골프를 즐기려면 예법부터 배우시게
이 세상에 신사놀이가
이만한 것 또 있을까?
말 조심, 서는 자리, 앞서 가고 뒤 서는 것
내 파트너 잘 칠 때엔 칭찬일랑 잊지 말고
내 파트너 실수할 땐 그 실수가 내 것인 듯
내 친구만 이웃인가!
전너 동네도 이웃일세
호떡집에 불 안났네. 말소리는 조용조용
실례가 많아지면 친구들이 멀어지네
나를 슬쁘게 하는 것 중
이것 또한 으뜸이라.
잘못된 모든 일은 그 모두가 내 탓이며
라이벌은 누구인가!
바로 '나' 자신일세.

3. 실패를 극복

골프를 치다 보면
청개구리 '공'이란 놈
곰배팔이 팽이 친 듯 좌측으로 우측으로
오줌 맞은 두꺼비가 웅덩이로 뛰어들 듯
돌팔매에 놀란 토끼 숲 속으로 도망가듯
골프 인생 우리 인생
실수 투성이 아니런가!
관운장도 실수하여 조조에게 잡혔듯이
이것들이 그 모두가 병가상사 아니겠소?
낙담일랑 하지 말고 초연함을 잃지 말게
이번 실수 교훈삼아 새 성공을 기대하소.

4. 과욕은 금물

핸들을 줄이려면 서두르지 마시게나
열 여덟개 기회있고 일흔두번 기대있네
조금 더 내보낼까 팔과 목에 힘을 주니
'공'이란 놈 자~알 가다가
삼천포로 빠지누나
상쾌하게 날아가는 공을 한 번 바라볼까!
머리를 번쩍 드니 생크 볼이 나는구나
한 번 실수, 두 번 실수
누구라고 아니 하나!
전 홀에서 잃은 것을 지금 당장 찾으려고
욕심을 내서는 공이 알고 도망가네
'항우' 장사 실패하여
'유방'에게 잡혔듯이
'동탁'이 실패하여
'여포'에게 죽었듯이
과욕으로 인한 실패
실수 아닌 '업보'라네.

5. 운영의 묘

골프를 잘 치려면 나온 거리 남은 거리
수학 문제 풀어가듯 계산부터 하신 후에
풀 길이가 길었는가?
장애물은 어디 있나?
그린 위에 펄럭이는 핀을 슬쩍 노려본 후
분수에 맞는 채를 꺼내
깊은 호흡 한 번 쉬고
마음부터 비운 후에
투~욱 하고 내려 치면
공이란 놈 날아가서 그린 위에 꽂힌다네.

6. 정직함

골프를 즐기려면 이 세상에 무엇보다
정직보다 중요한 것 그 어디에 있을소냐?
풀섶에 숨은 공을
발로 차서 꺼내 놓을까?
아무도 안 보니까 공을 한 개 놓고 칠까?

모든 유혹 떨쳐버려
있는 그대로 올려 보세.
자기 것을 계산하고 내가 나를 감독하고
백에라도 단 한 번쯤 자기 양심 속일 때엔
'공'이란 놈 먼저 알고
숲 속으로 도망가네.

7. 운

골프를 잘 치려면 운도 또한 기다리세
모사는 재인이요, 성사는 재천이라.
그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한 후에
과욕은 극복하고 마음만 차분~하면
팔과 다리 허리 머리 오장육부 조화 이뤄
기적같은 동작들이 이따금씩 나타나서
날아가는 새도 잡고 홀인원은 못할 소냐?

8. 건강

이렇게 하여 열 여덟홀
한 바퀴를 돌고 나면
몸에서는 싱그러운 풀 냄새가 향기롭고
푸른 하늘 닮은 마음 한량없이 상쾌하네
엔돌핀은 축적되고 백혈구도 많아지고
혈액순환 순조로워 혈압도 뚜~욱 떨어져
허리뼈가 시큰시큰 이따금씩 아픈 증세
목욕 한번 하고 난 후
씻은 듯이 없어졌네.

9. 가정

하루 종일 나 혼자서 좋은 시간 가진 동안
사랑하는 아내 골프 과부 만들었네
당신도 골프 배워 우리 함께 건강하여
검은 머리 파뿌리 되어
한 백년을 살아 보세
미안한 맘 금치 못해 혼잣말로 중얼 중얼
운전일랑 조심하고 고속으로 가지 마소!
천사 같은 마누라와 토끼 같은 우리 새끼
저녁 밥상 차려 놓고 아빠 오기 기다리네.



詩人 : 이전구(李典九)

1964년 농대 졸업 · 뉴욕골프센터 그룹 회장
서울대학교 미주 동창회 제9대 회장
미 동부 한국문인협회 제14대 회장

New York Golf Center, Inc.

131 W.35th Street New York, N.Y. 10001
Tel: (212) 564 2255 Fax: (212) 244-6941
www.nygolfcenter.com